

교과서 연구

제113호 2023년 가을

특별기획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연구논문 3~4학년군 수학 교과서의 문제 만들기 과제 유형 분석

국제동향 실크로드 심장에 불고 있는 한국어

현장교육 교과서의 전환, 브리태니커식에서 위키피디아식으로

초대석 남북 거래말의 이질화와 〈거래말큰사전〉 편찬의 필요성

교과서 속 인물 이야기 비운의 정치개혁가 조광조

탐방 “인공지능 융합수업 연구회”를 찾아서



세상이 변해도 배움의 즐거움은 변함없도록

시대는 빠르게 변해도
배움의 즐거움은
변함없어야 하기에

어제의 비상은
남다른 교재부터
결이 다른 콘텐츠
전에 없던 교육 플랫폼까지

변함없는 혁신으로
교육 문화 환경의 새로운 전형을
실현해왔습니다.

비상은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교육 문화 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혁신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를 초월하고
오늘의 교육이 어제의 교육을 초월하여
배움의 즐거움을 지속하는 혁신,

바로, 메타인지 기반 완전 학습을.

상상을 실현하는 교육 문화 기업 비상

메타인지 기반 완전 학습

초월을 뜻하는 meta와 생각을 뜻하는 인지가 결합한 메타인지는
자신이 알고 모르는 것을 스스로 구분하고 학습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궁극의 학습 능력입니다. 비상의 메타인지 기반 완전 학습 시스템은
잠들어 있는 메타인지를 깨워 공부를 100% 내 것으로 만들도록 합니다.



교과서연구

제113호 2023년 가을

발행일 • 2023년 9월 1일

등록번호 • 동작 바 00041호

발행인 • 전우홍

기획편집위원장 • 박제윤

기획편집위원 • 김훈범, 박상준, 손병길,
손지현, 이화성, 홍미화

간사 • 변자정

발행처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우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3
(신대방동, 삼성보라매오피타워) 2층 201호

전화 • 02-6206-6362

팩스 • 02-2651-1954

Homepage • <http://www.textbook.ac>

e-mail • bj819@textbook114.com

디자인·인쇄 • 신성기획 02-2279-9920

정가 • 3,000원

*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의 내용은 발행처인 한국교과서연구재
단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기획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006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와 교과서 설계 방향
| 이승미

022 2022 개정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방향 | 김영아

034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중학교 영어과 교과서 | 임성은

연구논문

050 3~4학년군 수학 교과서의 문제 만들기 과제 유형 분석 | 임미인·박혜민

국제동향

065 실크로드 심장에 불고 있는 한국어 | 팽주만

현장교육

074 교과서의 전환, 브리태니커식에서 위키피디아식으로 | 양효준

초대석

079 남북 거래말의 이질화와 〈거래말큰사전〉 편찬의 필요성 | 민현식

교과서 속 인물 이야기

086 비운의 정치개혁가 조광조 | 남궁원

탐방

098 “인공지능 융합수업 연구회”를 찾아서

안내사항

106 원고 모집

107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소식

108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TIOS)

109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

110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112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114 교과서 원문DB 이용 협약 체결 안내

교과서연구

특별기획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가을호 특별기획은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입니다.

개정된 중학교 교육과정의 그 방향성과 특징,

적용 교과서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와 교과서 설계 방향 | 이승미
- 2022 개정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방향 | 김영아
-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중학교 영어과 교과서 | 임성은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와 교과서 설계 방향



이승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중학교 교육과정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전체의 체계에서 의무교육 시기의 교육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공통 교육과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상당 부분 유사성을 공유한다. 또한 중학교 교육과정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묶어 중등 교육을 구성하는 한 학교급의 교육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특징을 가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연장선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이나 고등학교 교육과정과는 구분되는 중학교 교육과정만의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방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와 동일한 이유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중학교 교육과정에 의해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서로 연결성을 가지고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중학교 교육과정은 다른 학교급과 구분되는 독자성이 부족하다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녔지만, 그로 인하여 서로 다른 초·중등 교육과정 전반의 특징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역동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2022년 12월에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이와 같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특징이 자연스럽게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첫째, 중학교 교육과정은 3

년간 학생이 학습해야 하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별 기준 수업 시수와 최소 수업 시수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을 제시하고 있다(이에 비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선택 과목이라는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특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중학교 급에 공통적으로 신설된 ‘학교 자율시간’에 대한 중학교 교육과정의 규정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즉, 다음과 같이 학교 자율시간의 시수 확보 및 운영 방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동일하지만, 학교 자율시간의 개설 내용과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학교 자율시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에서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의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그런데 이 시간을 활용한 개설 대상은 초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임에 비하여 중학교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지 않은 새로운 선택 과목’이다. 즉,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자율시간에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하여 운영하는데 비하여, 중학교에서는 과목(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목 외 새로운 선택 과목)만을 개설할 수 있다(〈표 1〉 참고).

표 1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 자율시간 관련 규정 비교

	초등학교	중학교
개설 내용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자율시간을 활용하여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 외에 <u>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u> • 학교 자율시간에 운영하는 과목과 활동의 내용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학교가 결정하되, 다양한 과목과 <u>활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한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자율시간을 활용하여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목 외에 <u>새로운 선택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u> • 학교 자율시간에 개설되는 과목의 내용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학교가 결정하되, <u>학생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다양한 과목을 개설·운영한다.</u>
시수 확보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자율시간은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의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 주: 밑줄은 필자가 학교급별 차이점을 강조하여 제시한 것임.

※ 출처: 교육부(2022a: 19, 21-22).

따라서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에 그에 따른 교과서 설계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관계를 고려하여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본문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보급될 중학교 교과서에서 반영되어야 할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변화를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와 ‘진로연계 교육의 도입’ 및 ‘그 외의 변화’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세 측면의 변화에 기반한 중학교 교과서의 설계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2.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1992년 고시된 6차 교육과정부터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에 근거하여 지역 및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화 및 지역화를 실현하고자 지속해서 개선되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도 이 연장선에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를 요청하는 주요 배경으로 “교육과정 의사 결정 과정에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과정 자율화 및 분권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며(교육부, 2022a: 4), 특히 중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하여서는 시수 증감 범위의 확대 및 학교 자율시간의 신설 등을 통해서 그 요구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가. 시수 증감 범위의 확대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가 처음 도입된 6차 교육과정에서는 지역 및 학교 수준에서 발휘할 수 있는 교육과정 자율화의 장으로 초등학교에 학교장 재량시간이 도입되었는데 이것이 7차 교육과정부터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재량활동이라는 교과 외 활동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 간의 중복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둘을 융합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등장하였다. 그런데 학교장 재량시간, 창의적 재량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은 모두 교과 외 활동에 대한 교육과정 자율화의 장이었다. 이에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군)별 기준 수업 시수에서 20%를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체육, 예술 교과군은 시

수를 감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시수 증감 대상을 교과(군)에서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확대하였다. 예외적으로 체육, 예술 교과군은 시수를 감축할 수 없으며,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를 증감하더라도 3년간 총 수업 시간 수는 최소 수업 수업 시수로 총 수업 시간 수를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는 없다. 이처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시수 증감의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이 포함됨에 따라 교과별로 담당 교사가 지도하는 중학교에서 필요한 경우 시수 증감의 활용 폭이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교과(군)의 시수 감축은 성취기준을 삭제하거나 약화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 감축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교육부, 2022a: 21).

이상을 정리하여 시수 증감 범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 시수 증감 범위의 개선 방향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수 증감 범위	20%	20%
시수 증감 대상	교과(군)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
예외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의 시수는 감축할 수 없음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의 시수는 감축할 수 없음
고려 사항	3년간 교과(군) 소개와 총 수업 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로, 감축할 수 없음	3년간 총 수업 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로, 감축할 수 없음

※ 출처: 교육부(2022a: 21; 2015: 12)

나. 학교 자율시간의 도입

학교 자율시간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를 일부 가져와서 학교 나름의 과목을 개설·운영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되었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총론 문서에는 학교 자율시간에 대해서, 학교가 “한 학기에 17주, 1년에 34주를 기준으로 편성·운영하는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수업 시간에서 학기별 1주 분량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지 않은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설될 “새로운 과목의 교육 내용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학교가 결정하되, 학생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다

양한 과목을 개설·운영”해야 한다. 관련하여 “학교가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시도 교육감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교육부, 2022a: 20-22).

학교 자율시간에 개설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 과목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목 이외의 범위라면 다양하게 개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교과 융합 등 주제 중심 과목, 진로 체험과 관련된 과목, 각 교과에 관한 탐구나 실험, 실습, 악기 연주, 신체 활동 등을 제공하는 과목, 그리고 기초소양 등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원활한 교과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과목이나 활동 등 다양하게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교육부, 2022b: 69 참고). 참고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에서 각 교과 교육과정의 학습량을 학기당 17주가 아닌 16주로 개발하였다.

이상을 정리하여 학교 자율시간의 신설 방향을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 학교 자율시간의 신설 방향

시수 확보 방안	학기별로 최대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의 1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
시수 활용 방안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목 외에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
선택 과목의 내용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학교가 결정하되, 학생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다양한 과목을 개설 운영

※ 출처: 교육부(2022a: 21-22).

3. 진로연계 교육의 도입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학교급 간 또는 학년(군)간 전환기에 학생들의 학교급 간 연계 및 진로 교육을 강화하는 진로연계 교육을 편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교육부, 2022a: 19). 이에 중학교 교육과정에는 첫째, 2012년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중학교 학생들의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을 위해 처음 등장하여 2015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된 자유학기가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연계 교육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초-중학교 학교급 간 전환기의 학교급 간 연계 및 진로 교육을 실현하려는 방안으로 개선되었고, 둘째, 이 외에 고등학교 입학 앞둔 시기에 “고등학교 생활 및 학습 준비, 진로 탐

색, 진학 준비 등”을 위한 진로연계 교육을 편성·운영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교육부, 2022a: 22).

가. 초·중 전환기의 진로연계 교육: 자유학기

자유학기는 2012년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중학교 학생들의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을 위해 처음 등장하였는데, 이후 현장 적용 과정에서 중학교의 수업 및 평가 개선에 대한 특성이 더 강조되는 등 그 운영 취지가 시기별로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유학기의 긍정적인 효과로 중학교 수업의 개선이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인정되고 있다. 관련하여 지역 및 학교에 따라서는 자유학년과 연계학기를 운영하기도 하여 왔다. 다만 자유학기는 그 출발 시점부터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을 위한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으로는 중학교 1학년이라는 시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지속해서 지적됐고, 자유학기의 편성 영역이 기존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중복된다는 점, 자유학과 일반 학기 간의 특성이 달라 서로 연계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왔다(이승미 외, 2022).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유학기의 편성·운영 방안이 개선되었다(교육부, 2022a: 23).

첫째, 자유학기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한 시기의 학생들을 위한 전환 교육으로서의 그 성격을 명확히 하여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폭넓게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둔다.

둘째, 자유학기에 대하여 교육 현장에서 자유학년 또는 연계학기를 도입하였던 것을 삭제하고 지역이나 학교에서 한 개의 학기를 선택하여 편성·운영한다.

셋째, 자유학기의 편성 영역을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등 두 가지 영역으로 단순화한다.

넷째, 교육과정 총론 문서에는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유학기를 한 학기에 170시간 편성한 것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 학기에 102시간 편성되도록 할 예정이다.

다섯째, 자유학기의 교수·학습 개선 효과를 지속해서 유지하고자 자유학기의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규정을 유지하여 토의·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하고,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

용하되, 일제식 지필 평가는 지양한다.

이상을 정리하여 자유학기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 자유학기의 개선 방향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취지	진로 탐색	진로연계 교육과 연계하여 운영(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학습의 즐거움 경험)
기간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년과 연계 학기 등	1개 학기
편성 영역	4개 영역(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2개 영역(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편성 시간	1개 학기에 170시간 (17주 기준 1주에 10시간 편성)	1개 학기에 102시간으로 편성 예정 (17주 기준 1주에 6시간 편성)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	토의·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하고,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되 일제식 지필 평가는 지양	

※ 출처: 교육부(2022a: 23, 2015: 13)

나. 중·고 전환기의 진로연계 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의 진로연계 교육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의 유형 선택을 포함한 진로 교육을 실현하는 한편, 고교학점제에 적합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간의 교육 연계와 고등학교에서의 학업 설계를 원활히 실현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진로연계 교육은 특정 학기에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학교의 필요 따라 여러 학기에서 진로연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진로연계 교육을 위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진로연계 교육과 관련된 성취기준이나 성취기준 해설 및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 등을 개발하였다. 예를 들어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로 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적으로 포함한 성취기준을 발견할 수 있다.

[9국02-07] 진로나 관심 분야에 관한 다양한 책이나 자료를 스스로 찾아 읽는다.
 [9과23-02] 자신의 진로와 관련 있는 과학 분야를 조사하고, 진로 선택을 위하여 필요한 과학 학습을 계획할 수 있다.
 [9기가01-07] 자기 이해를 기반으로 전 생애적 관점에서 진로 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한다.

※ 출처: 교육부(2022c: 45, 2022d: 60, 2022e: 20)

이 외에 특정 교과에 국한되지 않고 고등학교의 유형 및 고교학점제 전반의 특징을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데 필요한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 활동’ 영역, 선택 과목에서 진로와 직업 과목, 학교 자율시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관련하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의 진로연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진로 선택 및 진로 설계를 일반 고등학교로만 치우치지 않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다양한 고등학교의 유형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그 외의 변화

가. 기초소양 교육의 도입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기초소양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교과 학습과 평생학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학생이 학습의 기초인 언어·수리·디지털 기초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하여 <u>학교 교육과 평생 학습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 기간을 포함한 평생 학습에 필요한 기초소양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습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의 깊이 있는 학습에 기반이 되는 언어·수리·디지털 기초소양을 <u>모든 교과를 통해 함양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한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며, <u>학생들의 기초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 교과에 공통 과목을 개설하여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한다.</u>

※ 주: 밑줄은 필자 강조한 것임.

※ 출처: 교육부(2022a: 5, 9, 10, 15)

예를 들어 다음의 성취기준이 원활하게 학습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검색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발표 자료로 만드는 능력인 디지털 소양, 그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텍스트의 내용을 읽고 해석하기 위한 언어 소양,

세계와 지역의 변화와 영향력에 관련된 수치와 그래프 등과 관련된 내용을 읽고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 수리 소양 등이 요구된다.

[9사(지리)01-03] 세계의 변화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의 변화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조사한다.

※ 출처: 교육부(2022f: 40)

즉, 기초소양은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을 의미하는 것으로(교육부, 2021.11.24.: 13), 각 성취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초소양은 성취기준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도출된 기초소양은 다음의 세 가지 방안에 따라 학습되어야 한다.

첫째, 그 과목을 배우기 이전의 시기에 국어, 수학, 정보과의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기초소양의 기반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기초소양의 학습 방법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취기준을 충분히 학습하기 위해서는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 등의 기초소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보과의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인터넷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활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학생들의 디지털 소양 실태에 근거하여 해당 학생들이 해당 성취기준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소양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학생들이 기초소양이 특정 성취기준을 적절히 학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성취기준을 다루는 과정에서 기초소양을 향상할 수 있는 교수·학습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각 성취기준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에서는 논술이나 프레젠테이션 등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교사가 수행평가 문항 개발 및 실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디지털 소양 실태에 근거하여 수행평가에서 요구하는 기초소양 수준의 적절성을 검토한다면,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통해서 기초소양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교수·학습 방향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문서에서는 교수·학습의 방향으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한 핵심역량 함양’, ‘학생 참여형 수업과 학생 맞춤형 수업의 활성화’, ‘유연하고 안전하며 디지털 기반 학습이 가능한 학습 환경 조성’이라는 네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참고).

1)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한 핵심역량 함양

성취기준은 핵심 아이디어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 단편적 암기 중심의 교육을 지양하고 교과 고유의 탐구 방법을 익히고 실생활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교육부, 2022a: 10).

2) 학생 참여형 수업의 실현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이 체험과 탐구 활동 및 개별 학습 활동과 협력적 문제 해결 경험을 충분히 경험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학생 참여형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교육부, 2022a: 11).

3) 학생 맞춤형 수업의 활성화

또한 학생의 특성과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하여 수업에서 학생의 출발점과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술 매체 및 지식기능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개인적, 사회·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이 이해·존중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교육부, 2022a: 11).

4) 유연하고 안전하며 디지털 기반 학습이 가능한 학습 환경 조성

이상에서 제시한 교수·학습의 방향이 실현되기 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교과 교실 운영이 활성화되는 한편 유연한 학습 공간 활용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청과 학교 등에서 개발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하여 디지털 학습 환경이 구축되어 필요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실험

실습 및 실기 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의 확보 방안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교육부, 2022a: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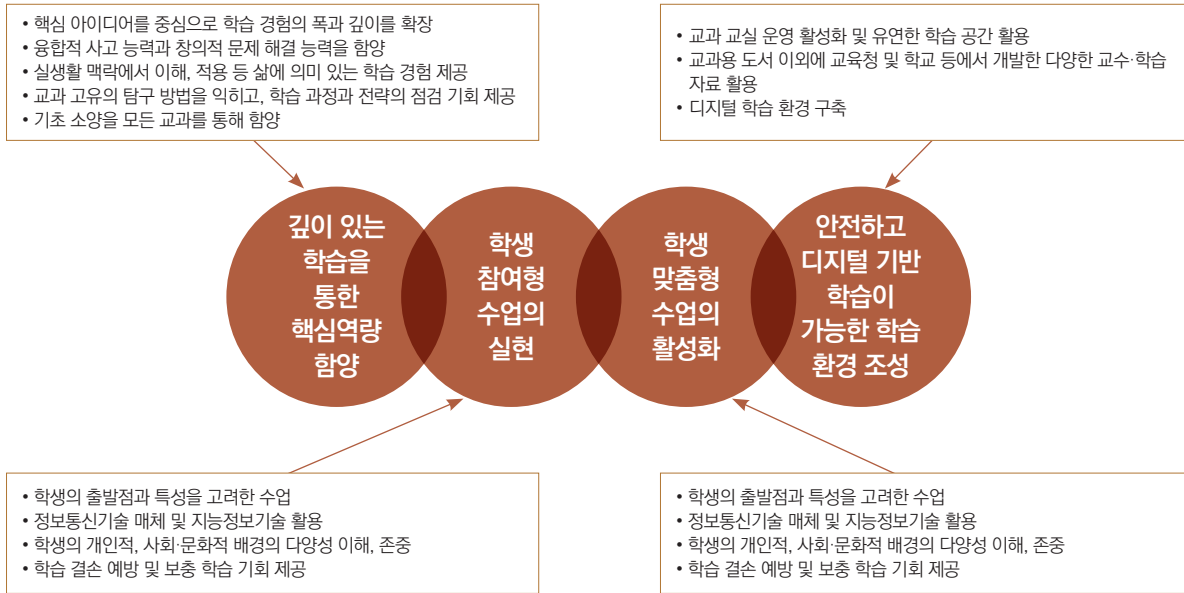


그림 1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향

5. 맺음말: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방향 탐색

본문에서 다룬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에 근거하여 각 변화가 교육 현장에 실현되기 위해 요구되는 교과서의 개발 방향을 탐색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교과서 개발 방향

1) 교과의 시수 증감 범위를 고려한 교과서 학습량의 융통성 실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시수 증감 범위 확대의 활용 범위가 교과(군)과 더불어 창의적 체험활동까지 확대되어 그 활용 가능성이 더 커졌다. 그리고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서 학기별 1주 분량의 시수를 확보하여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지 않은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하는 학교자율시수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습량이 학기별 17주 분량에서 16주 분량으로 감축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목에 관한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학습 분량을 학기별 16주를 기준으로 제시하되, 시수 증감 폭의 적용이나 학교 자율시간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16주 이상이나 이하로 활용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학교에서 선택 가능한 다양한 학습 활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수를 정하여 16주 이상으로 해당 교과목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특히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 지도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시하거나, 영역별로 어떠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것인지를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특정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택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학교의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2) 학교 자율시간을 실현하기 위한 교과서 개발과 활용의 용이성 확보

학교에서 학교 자율시간을 활용하여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목 외의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는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개발과 인증의 절차를 단순화하고 교과서 개발과 활용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하여 교과서 개발에의 접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정, 검정, 인정 교과서의 개발에 교육 현장의 교원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지만, 전체 교원에 비교하여 볼 때 그 비율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누구나 교과서 개발과 인증에 대해 쉽게 접근하려는 방안으로서의 교과서 개발을 위한 종합 플랫폼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지역의 인증 과목과 교과서를 안내하고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과 교과서를 선택하여 간단한 지역별 인증 절차를 통해 학교의 학교 자율시간의 선택 과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국 단위의 플랫폼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 자율시간이 이제 출발 단계라는 점에서 지역별 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우 플랫폼에 탑재될 인증 과목과 교과서의 양이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정보가 필요한 교원의 해당 플랫폼 방문과 활용이 저조하여 플랫폼의 발전이 더디게 이루어지면 결국 플랫폼의 활용이 더 저조해지는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이 플랫폼에서 지역별 교과서의 인증 요건 및 절차를 제시하는 한편 그에 따라 새로운 과목의 교과서를 개발하려는 학교가 교과서의 인증 절차별로 인증 요건을 해당 플랫폼에 차례대로 제출하면 그에 따른 피드백을 받아 개선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안할 수 있다. 학교의 과목 개설은 시도 교육감의 인증을 받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국 단위의 플랫폼 안에서도 인증 요건 및 절차는 지역별로 제시하여 지역 내 학교의 교과서 인증 절차를 해당 플랫폼에서 해결하는 한편 지역별로 관련 정보의 교환을 원활히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별 인증 요건 및 절차를 제공하는 섹션에서는 새로운 과목의 교과서를 개발하려는 학교가 인증 요건 및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관련 해당 플랫폼에 올리고 관련 전문가가 그에 대하여 컨설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컨설팅 내용과 결과를 탑재하는 방식을 고안할 수 있다.

나. 자유학기제와 진로연계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과서 개발 방향

1) 자유학기의 개선을 위한 교과서 개발 방향

중학교는 자유학기에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폭넓게 탐색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진로 탐색 활동과 주제 중심 활동을 편성·운영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유학기의 편성·운영은 단순히 1개 학기의 특정 시간이나 프로그램으로 국한하지 않고 해당 학기 전반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의 취지로 반영되어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중학교 생활과 학습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교육부, 2022a: 22).

관련하여 중학교 1학년에 다루어지는 교과목의 교과서는 다른 학년의 교과목에 비하여 초등학교 6학년의 교과서와 교수·학습 방법을 참고하여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의 학습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과서의 구성과 제시되는 교수·학습 방법의 선정 및 제시 방법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학교 1학년의 교과서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단계에서 초등교사가 자문 또는 검토를 위해 참여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과서를 비교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시기의 진로연계 교육의 도입에 따른 교과서 개발 방향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시기의 진로연계 교육과 관련하여 특정한 기간, 영역,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학교가 이 시기의 진로연계 교육을 학교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

가 전체의 일괄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기반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22a: 22).

따라서 이 시기의 교과서는 교과목별로 해당 교과목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관련된 고등학교의 유형과 고등학교에서의 관련 선택 과목을 탐색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학교에서 교과서의 진로연계 교육 관련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룰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개별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접하기 쉬워질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안내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방법으로 오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기의 교과서에서는 중학교 교과 교육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다. 그 외의 변화를 반영한 교과서 개발 방향

1) 기초소양을 반영한 교과서 개발 방향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을 포함하는 기초소양은 학생들이 교과목의 교육 내용을 이해하고 더 적극적으로 교수·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하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및 수리적 정보의 유형과 수준 및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중학교 학생들의 세 가지 기초소양 수준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과서를 개발하기에 앞서 교과서의 기반이 되는 성취기준 각각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초소양을 분석하고 그 이전 학년(군)까지 학습하였던 국어, 수학, 정보과의 수준을 고려하는 한편, 그 내용을 학생들이 해당 교과목의 성격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텍스트 및 수리적 정보의 유형과 수준을 선택하고 그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각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기초소양의 수준과 활용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학생의 기초소양 실태를 고려하여 이를 실현하려는 방안을 해당 교과서의 교수·학습 방법에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할 것이다.

2) 교수·학습 방향의 실현을 위한 교과서의 개발 방향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문서에서는 그 이전의 교육과정 총론 문서와는 달리 교수·


학습 및 평가와 관련된 규정을 학년군별 편제표보다 상위에 배치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설계·운영에서 교수·학습 및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 교과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는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이 충분히 실현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을 위해서는 특히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되어 있는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한 핵심역량 함양’, ‘학생 참여형 수업의 실현’, ‘학생 맞춤형 수업의 활성화’, ‘유연하고 안전하며 디지털 기반 학습이 가능한 학습 환경 조성’ 등의 네 가지 교수·학습 방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네 가지 방안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의 방향 및 성취기준의 개발 원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림 1]에서 제시한 각 하위 항목을 포함하여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는 중학교 교과서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방향 탐색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 — 2022 중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방향 탐색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개정 내용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방향 탐색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시수 증감 범위 확대	• 시수 증감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선택 가능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의 사례 제시
	학교 자율시간 신설	• 학교 수준의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전국 단위의 종합 플랫폼 개발(지역별 인증 과목과 교과서 안내, 지역별 인증 요건 및 절차 안내, 지역별 인증 관련 컨설팅 제공 등)
자유학기의 개선과 진로연계 교육의 신설	자유학기의 개선	• 초등학교 6학년의 교과서 및 교수·학습 방법과 연계한 교수·학습 방법의 선정 및 제시(초등교사의 자문 및 검토와 초·중 교과서의 비교포함)
	고등학교 입학 앞둔 시기의 진로연계 교육 신설	• 교과목별로 해당 교과목과 관련된 진로 탐색, 고등학교의 유형, 선택과목의 유형 탐색과 관련 자료 제공
그 외의 변화	기초소양의 신설	• 성취기준별로 요구되는 기초소양을 분석하여 학생의 학년(군)에 적합한 기초소양의 유형과 수준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 제공
	교수·학습의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한 핵심역량 함양 • 학생 참여형 수업의 실현 • 학생 맞춤형 수업의 활성화 • 유연하고 안전하며 디지털 기반이 가능한 학습 환경 조성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은 2025년부터 연차적으로 교육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 안착하기 위하여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이 충실히 구현되기 위한 중학교 교과서의 개발 방향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의 실현, 자유학기과 진로연계 교육의 실현, 기초소양을 포함한 교수·학습의 방향의 실현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를 포괄하여 앞으로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요구, 교과 특성, 교사의 활용 편의성을 충분히 담아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
 교육부(2021.11.24.).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발표.
 교육부(2022a). 초·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
 교육부(2022b). 2015-74 교육과정 총론 해설 고등학교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교육부 고시 제2022-2호 일부개정 포함). 발간등록번호 11-1342000-000331-14.
 교육부(2022c).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5].
 교육부(2022d). 과학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9].
 교육부(2022e). 실과(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0].
 교육부(2022f).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이승미, 이미숙, 이은경, 이수정, 강현석, 설규주, 박정유, 임용덕, 장경환, 최성이, 김영아, 임성은(2022). 2022 개정 초·중학교 교육과정 개선 연구(연구보고 CRC 2021-1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필자 소개

2022 개정 초·중학교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 참여하였다. 관심 분야는 교육과정 자율화, 교육과정 책무성, 교육과정 거버넌스, 국가-지역-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등이다.

2022 개정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방향



김영아

세종 나성중학교 교사

1. 들어가며

교육부는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한 이후 1년여의 각론 시안 개발 연구를 거쳐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하였다. 초·중학교 교육과정의 추진 방향과 내용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학생의 성장과 발달은 지속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년군과 학교급별로 분절되는 부분에 진로 중심의 전환 교육을 제공한다. 둘째,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는 시수 확보 방안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 예시를 제공하며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셋째, 자유학기제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방향을 명료화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중학교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이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이며 이에 대한 현장에서의 원활한 편성과 운영을 위한 탐색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미래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개별 학생의 학습 및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의 실현이 요청되고 이에 맞추어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선 필요를 반영하여 국어과 교육과정 시안이 최종 개발되었다.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특히 고교학점제의 시행 대비, 미래 세대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반영, 지속가능한 사회를 고려한 가치 함양을 위한 교육

을 교과 교육과정 내용에 반영하였다. 학교 교육과정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국어과 교육과정 개선의 필요와 역량 함양을 위한 국어과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설계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개정된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부분의 변화된 사항을 통해 교과서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내용과 활용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2022 개정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방향

가. 미래 사회 역량 함양 교육과정

미래 사회는 지식 및 정보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단편적 지식의 습득보다는 학습한 내용을 삶의 맥락에 적용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불확실성과 복잡성,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고, 학교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 역량 함양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학생들이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및 평가가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함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바이다. 역량 함양 교수·학습 구현을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깊이 있는 학습’, ‘교과 간 연계 통합’, ‘삶과 연계한 학습’,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의 주요 방향과 기초소양과 기초학력 함양 교육 필요성 등을 고려하고 지식과 기능뿐만 아니라 가치, 태도, 동기 등과 같은 정의적 특성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해보는 경험과 과정을 통해 역량이 함양될 수 있다. 이러한 역량 함양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내용이 피상적이지 않고, 깊이 있게 교수·학습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교과 교육과정 문서 역시 깊이 있는 학습을 지향하는 형태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해당 교과 영역의 교육내용을 아우르면서 해당 영역의 학습을 통해 일반화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진술한 문장을 ‘핵심 아이디어’로 제시하였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가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제시했던 것과 달라진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요소를 제시하는데 있어서 역량의 개념을 반영하여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등 세 차원으로 구조화하였다.

역량 함양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여러 교과와 내용을 서로 연결하여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습 내용과 경험이 학습자의 삶에서도 의미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학생의 삶과 연계된 실생활의 맥락 속에서 학습 내용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방식이 교수·학습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과 전략을 점검하는 등 학습의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메타인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외에도 역량 함양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에서는 학습자가 수업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학습자 중심 교육에 대한 강조와 함께 지속해서 강조되어 오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이자 역량 함양 교육의 지향점이기도 한 학생 주도성은 자신이 학습하는 방법을 알고 스스로 학습해 나갈 수 있는 기초소양을 가지고 있을 때 발휘될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역량 함양과 평생 학습자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더불어 기초소양과 기초학력이 기반이 되어야 하므로 모든 교과를 통해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의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 요소들이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교수·학습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미래 사회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평가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평가는 학생이 교육 목표를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평가와 학생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사의 수업 활동을 개선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는 학생이 학습 내용을 새로운 상황과 맥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학생의 사고 계발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열린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도록 지원하거나 복잡한 관계를 수행하고 스스로 결론을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에 집중하게 하며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고 평가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습 과정에 대해 성찰할 때는 자신의 학습을 단순히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비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평가는 수업의 질 개선뿐 아니라 학생의 사고 계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성찰하고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상황과 맥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학생을 평가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 등을 고려하여 교수·학습과 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나.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학령인구의 감소로 학생 개개인을 고려한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한 교육내용과 방법의 다양화, 학교 여건과 학생 특성에 따른 학습 집단의 다양화, 학습 결손 보충을 위한 특별 보충수업 운영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학령인구의 감소가 가속화되는 현상, 학습자의 성향 변화와 가정 및 사회문화적 배경의 다양화 등을 반영하고 발달된 과학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교수·학습 준비와 실행에 있어서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재, 자료, 활동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학생의 상황, 장애 유무 등과 같은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 등이 다양화되고 있는 점도 유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 교수·학습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기술 매체를 활용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같은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여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학습 격차를 완화하려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학생 맞춤형 혹은 개별화 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간 학습 수준이나 학습 방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고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을 반성하고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디지털·AI 활용 교육 활성화

코로나 19 상황에서 학교는 원격수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을 실천해 왔고, 학습의 공간은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고 디지털 공간을 아우르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온·오프라인 연계 등 비대면 원격 교육의 확대와 디지털 시대의 교육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형 교수·학습 방법의 구축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중요하다. 또한, AI, SW 교육을 비롯하여 디지털 기초소양을 강화할 수 있는 교수·학습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원격 수업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학습 방식의 혼용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경험을 누적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격수업 관련 지침을 완전히 폐기하기보다는 학교 교육과정의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과 같은 지능정보기술을 교실수업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며 디지털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소양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이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디지털을 활용한 교수·학습의 변화와 더불어 학생 평가에도 비대면 원격 교육의 확대와 디지털 시대의 교육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체제변화가 요구된다. 디지털·AI 교육환경에서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평가, 에듀테크를 활용한 평가 등과 더불어 학습자 개별 맞춤형 지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

3.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중학교 교과서 개발

중학교 1학년에 배정된 성취기준 중 문학 영역의 [9국05-01]의 성취기준을 활용해 미래역량 함양, 학생 맞춤형 수업, 디지털·AI를 활용한 수업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AI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신기술 발전이 우리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 만들어나가기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1~2, 3~4차시는 개념학습을 기반으로 한 교과서 작품 감상과 학생활동으로 구성된다. 학생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교사는 개념학습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학습자 역량과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개념학습 자료를 통해 개념 이해에 대한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한다. 5~6차시는 운율, 비유, 상징의 개념과 이해를 확인하고 AI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를 써보고 시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시를 완성하도록 한다. 5~6차시 수업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먼저 광고를 통해 비유와 상징의 전시학습 개념학습의 내용을 떠올리고 함께 이야기 나눈다. 광고를 여러 종류로 제시하여 개념학습에 대한 학생의 수준을 점검하고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인공지능 글쓰기 툴로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챗 GPT와 뽀튼, 노션AI, 라이팅 젤 등이 있다. 챗 GPT는 쓰고 싶은 내용을 채팅란이 정보를 통해 찾아낼 수 있고, 뽀튼은 블로그 포스팅뿐만 아니라 카피라이팅, 소개서 등의 글쓰기와 아이디어 생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션은 개인적인 아이디어 정리에 편리한 인공지능 글쓰기 툴이다. 다양한 인공지능 글쓰기 툴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 이 수업에서는 중학생들이 조금 더 손쉽게 접근하고 글쓰기를 할 수 있는 라이팅 젤을 사용해 보고자 한다. 인공지능 글쓰기 ‘라이팅 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카카오, 페이스북 중 하나를 선택해 로그인해야 하므

로 교사는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로그인이 되지 않을 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짝을 배정하여 안내한다.

표 1 — 2022 개정 중학교 성취기준의 학년별 배당(안)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매체
1학년	[9국01-01] 화자의 의도와 관점을 추론하며 듣는다. [9국01-07] 토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9국01-10]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상찰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한다.	[9국02-02] 읽기 목적과 글의 구조를 고려하며 글을 효과적으로 요약한다. [9국02-03] 독자의 배경 지식과 글에 나타난 정보 등을 활용하여 글에 드러나지 않은 의도나 관점을 추론하며 읽는다.	[9국03-02] 복수의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9국03-03]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들고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주장하는 글을 쓴다. [9국03-05]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쓴다.	[9국04-02] 단어의 특징을 분석하여 새말 형성의 원리를 이해한다. [9국04-03]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국어 자료를 분석한다. [9국04-07] 세대·분야·매체에 따른 어휘의 양상과 쓰임을 분석하고 다양한 집단과 사회의 언어에 관문적 태도를 지닌다.	[9국05-01] 운율, 비유, 상징의 특성과 효과에 유의하며 작품을 감상하고 창작한다. [9국05-02] 갈등의 신형과 해결 과정을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9국05-03] 인간의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으며 문학의 가치를 내면화한다.	[9국06-01]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의 특성과 영향력을 비교한다. [9국06-02] 소통 맥락과 수용자 참여 양상을 고려하여 상호 작용적 매체를 분석한다.

표 2 — 비유와 상징 수업 차시 계획 및 주요 활동


차시		주요 활동
1-2	• 개념학습 • 적용하기	• 비유 개념을 이해하고 작품 감상 • 학생활동 : 노랫말 속 비유 바꿔쓰기
3-4	• 개념학습 • 적용하기	• 상징 개념을 이해하고 작품 감상 • 학생활동 : 우리반 상징물 만들기
5-6	• 동기유발 • 적용하기	• 광고를 통한 비유와 상징 개념 이해 • 비유와 상징을 활용한 시 쓰기

학생은 라이팅 젤에 접속해 로그인 후 글감 선정을 위한 ‘글감 찾기 질문 카드 뽑기’를 누른다. 글감을 생성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쓰고자 하는 시의 제재를 선정한다. 시의 제목과 제재를 3가지 적어 넣고 인공지능 시 쓰기를 클릭한다. 시의 내용을 읽어본 후 마음에 드는 시가 선정되면 운율, 비유, 상징을 적용해 시의 내용을 수정하고 시를 완성한다. 인공지능이 쓴 시는 영어로도 동시에 제공되고 같은 제재와 주제 안에서 새로고침이 가능하다. 이후 시의 분위기와 정서를 드러낼 수 있는 음악을 선정하고 시 낭송의 시간을 통해 쓴 시를 함께 나눈다. 인공지능이 써 준 시를 읽어본 학생의 느낌과 생각을 함께 이야기하고 시를 고치면서 든 생각 등을 함께 이야기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표 3 — 비유와 상징 수업 지도안

단 원 명	비유와 상징		차시		5~6/6	
학습주제	비유와 상징을 활용한 시 시쓰기					
성취기준	[9국05-01] 운율, 비유, 상징의 특성과 효과에 유의하며 작품을 감상하고 창작한다.					
학습목표	시 프로그램을 활용해 운율, 비유, 상징의 특성과 효과를 이해하고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대상 학년	중1					
2022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핵심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
	✓				✓	
수업 특성	시 활용 글쓰기 (로그인 가능 여부 확인)					

학습단계 (시간)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10분)		동기 유발	- 광고를 통한 비유와 상징의 개념 확인 - 본시 학습 목표 확인	- 광고를 보고 자유롭게 의견 발표 - 본시 학습 목표 이해	
전개 (70분)		본 수업	- 인공지능 글쓰기 : 라이팅젤 (https://tinytingel.ai/)		
			<p>〈수업 순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라이팅 젤 사이트 접속2. 구글, 카카오톡, 페이스북 로그인3. 글감 선정 : ‘글감 찾기 질문 카드 뽑기’를 클릭해 글감을 찾기 위한 질문 카드 뽑기4. 제재 선정 : 뽑은 카드를 통해 나의 경험을 떠올리며 시의 제재 선정5. 시(가사) 쓰기 클릭6. 인공지능이 쓴 시에 운율, 비유, 상징을 넣어 시 완성하기7. 시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시 음악 선정		

전개 (70분)	본 수업	<div data-bbox="459 231 1107 572"> <p>글을 세분화 생각 훈련 사람들</p> <div> <div> <p>MBTI 연애편지</p> <p>사랑해 써서면, 받아줘서 좋아합니다. 세잔때마다 대답을 건네주세요.</p> </div> <div> <p>젓문장 자판기</p> <p>당신의 제각각은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시나요? 초콜 콘센트계 계속해온 드시다가 시안을 서두릅시다.</p> </div> <div> <p>글감찾기 질문 카드뽑기</p> <p>당신 가족은 얼마나 흥미있고 21억과 2.5조원 당신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세요.</p> </div> </div> <div> <div> <p>아이기 재로 찾기</p> <p>모든 아이기는 집에서 시작합니다. 정말 신으로, 정말 연으로 계속해주세요.</p> </div> <div> <p>판타지 세계관 생성</p> <p>판타지 세계관 만들기, 비평가 읽어오, 새로운 세계가 무제한 6시도 생성됩니다.</p> </div> </div> </div> <div data-bbox="459 586 1107 927"> <p>글감찾기 질문카드</p> <p>당신의 글이 무엇에 관한 것일까?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세요.</p>  </div> <div data-bbox="459 940 1107 1150"> <p>글을 쓰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p> <div> <div> <p>잔반 논거</p> <p>특정 이슈에 대한 찬반양론 의견을 갖고 있나요? 안전하고 균형있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p> </div> <div> <p>시(가사) 쓰기</p> <p>나도 편지나 노래 속의 영어 가사 넣고 싶지 않음. 무엇을 할지 고민되어 생각해.</p> </div> <div> <p>말기쓰기</p> <p>책이든 글이든 글이든 시든, 당신 가족을 좋아 한다는 편지 써주세요.</p> </div> </div> </div> <div data-bbox="459 1164 1107 1615"> <p>시 제목과 가사에 달고 싶은 주제어를 3개 이상 입력하세요.</p> <div> <p>제목에 적어주세요.</p> <p>키워드를 적어주세요(최대 10글자) 0/10</p> <p>키워드를 적어주세요(최대 10글자) 0/10</p> <p>키워드를 적어주세요(최대 10글자) 0/10</p> </div> </div>	
정리 (10분)	차시 예고	<p>8. 시 낭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 나눔 - 다음 차시 안내 	

이 수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지식 정보를 창출하고 인간을 돕는 기능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리거나 작곡을 하는 등 창의적인 일도 할 수 있음을 알고 사람과 인공지능이 같이 협업해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학생들 스스로 생각보다 인공지능의 변화는 매우 빠르게 다양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며 미래사회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수업 예시로 [9국05-02] 문학 성취기준과 듣기·말하기 영역의 [9국01-10]의 성취기준의 연계를 통한 융합 수업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표 4 — 2022 개정 중학교 성취기준의 학년별 배당(안) 중 연계요소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매체
1학년	[9국01-01] 화자의 의도와 관점을 추론하며 듣는다. [9국01-07] 토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9국01-10]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말한다.	[9국02-02] 읽기 목적과 글의 구조를 고려하며 글을 효과적으로 요약한다. [9국02-03] 독자의 배경 지식과 글에 나타난 정보 등을 활용하여 글에 드러나지 않은 의도나 관점을 추론하며 읽는다.	[9국03-02] 복수의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9국03-03]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들고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주장하는 글을 쓴다. [9국03-05]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청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쓴다.	[9국04-02] 단어의 짜임을 분석하여 새말 형성의 원리를 이해한다. [9국04-03]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국어 자료를 분석한다. [9국04-07] 세대·분야·매체에 따른 어휘의 양상과 쓰임을 분석하고 다양한 집단과 사회의 언어에 관용적 태도를 지닌다.	[9국05-01] 운율, 비유, 상징의 특성과 효과에 유의하며 작품을 감상하고 창작한다. [9국05-02]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을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9국05-03] 인간의 정경, 감정을 다양한 문학의 가치를 내면화한다.	[9국06-01]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의 특성과 영향력을 비교한다. [9국06-02] 소통 맥락과 수용자 참여 양상을 고려하여 상호 작용적 매체를 분석한다.

표 5 — 자전거 도둑 수업 차시 계획 및 주요 활동










차시	주요 활동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념학습 적용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설의 기본 개념 및 구성 단계 알기 그림을 보고 내용 상상하여 글쓰기(모둠활동 : 협력적 글쓰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설 '자전거도둑' 읽기 멘티미터 → 워드 클라우드 활동으로 소설의 주요 내용 정리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념학습 적용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의 종류 및 특징 학습지 활용 구성단계별 내용 정리(갈등 상황 파악) 시인물 캐릭터 제작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념학습 적용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설 속 인물의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알기 멘티미터 → 투표를 통한 인물의 행동에 대한 가치판단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 내 갈등 상황 찾기 모둠활동 : 〈갈등해결지침서〉 제작

이 수업은 소설 속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을 파악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성취수준을 기반으로 한 수업이다. 중학교에 들어와 처음 배우는 소설 제재이

다 보니 소설의 기본 개념과 구성 단계에 대한 개념학습이 필요하다. 개념학습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모둠 친구들과 소설 구성 단계별 그림을 보고 내용을 상상하는 협력적 글쓰기 활동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소설의 발달 단계에 관한 내용 이해를 적용할 수 있다. 이어 소설 자전거 도둑을 읽고 멘티미터의 워드 클라우드 활동을 통해 소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워드 클라우드는 특정 단어의 빈도나 중요성을 글자의 크기로 나타낸 이미지로, 소설의 주요 내용을 함께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3차시 수업으로 소설에 나타나는 갈등의 종류와 특징을 학습하고 학습지에 제시된 구성 단계별 내용 정리를 통해 소설 속 갈등의 상황을 파악한다. 소설 속 인물의 외양 묘사와 더불어 행동, 대화 등을 통해 인물의 모습을 상상해 보고 AI 캐릭터를 함께 제작한다. 봉봉미니에 접속하면 별도의 로그인 없이 다양한 캐릭터 제작이 가능하며 모둠별로 만든 캐릭터를 비교해 보는 것도 매우 흥미롭다. 4차시는 소설 속 인물의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을 파악하고 멘티미터의 투표 프로그램을 통해 인물의 행동을 가치판단하고 토론한다. 5차시는 교실 내 갈등 상황을 찾아보고 갈등 해결지침서를 제작한다.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해 학생들이 생각해보고 언어폭력의 문제점과 상호 존중의 대화를 실천할 방법까지 함께 논의해 봄으로써 듣기·말하기 성취기준에 대한 융합적 접근이 가능한 수업이다.

표 6 — 자전거 도둑 수업 지도안

소설	자전거 도둑
학습 목표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 유의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오늘의 다짐!	1학년 ()반 ()번 이름 :

1. 함께 쓰는 '자전거 도둑'	
인물	수남, 주인공, 신사, xx상회 주인(각 단계별 3줄 이상 쓰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2. 워드 클라우드 만들기	
- menti.com 접속 -> 코드 입력	
- 자전거 도둑을 읽고 떠오르는 단어 및 생각을 3개 적어주세요.	

3. 구성 단계별 내용 정리	
<발단 : 141쪽 시작~146쪽 12번째 줄>	
소설의 구성 단계	중심 사건을 한 문장으로 써 보세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수남이 고등학교만 보면 가슴이 찡찡해지는데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수남이 운동 논코 풀 세 없이 바쁜 까닭은 무엇일까요?	
<전개 : 146쪽 13번째 줄 ~ 152쪽 20번째 줄>	
소설의 구성 단계	중심 사건을 한 문장으로 써 보세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사람들은 가게 골목에서 일어난 사고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수남의 외적갈등	'수남'과 'xx상회 주인'
수남은 ()을/를 받아 내라고 하고, 'xx상회 주인'은 주지 않으려고 함.	
<위기 : 152쪽 21번째 줄 ~ 157쪽 3번째 줄>	
소설의 구성 단계	중심 사건을 한 문장으로 써 보세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신사의 말과 행동에서 알 수 있는 신사의 성격은?	
수남의 외적갈등	'수남'과 ()
수남은 차 수리비를 면해 보려고 '신사'에게 용서를 빌고, '신사'는 끝까지 받아 내려고 함.	

<결정 : 157쪽 4번째 줄 ~ 161쪽 10번째 줄>	
<p>소설의 구성 단계</p>	<p>중심 사건을 한 문장으로 써 보자.</p>
<p>수남은 자물쇠를 분해하는 주인공임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p>	
<p>수남이 만물부질 못하고 좋은 방안을 해낸 까닭은 무엇인가?</p>	
<p>'수남'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았는지 고민하면서 내적 갈등에 빠짐.</p>	<p>→ '수남'은 도덕적으로 자신을 견제해 줄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함. 그러자 '수남'의 양아버지()이 가시고, 소년다운 정순함으로 빛남.</p>
<결말 : 161쪽 11번째 줄 ~ 끝>	
<p>소설의 구성 단계</p>	<p>중심 사건을 한 문장으로 써 보자.</p>
4. 소설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인물 캐릭터 만들기	
<p>'나만의 캐릭터 만들기' 검색 -> 붕붕미니(https://br.vomoni.me/quiz/504)</p>	<p>페이스 유어 망가(https://faceyourmanga.com/)</p>

수남	
주인 명칭	
XX 상징 주인	
자주인	

- 수남의 행동을 판단해 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menti.com 접속 -> 코드 입력

	<p>나는 수남의 행동이 (옳다 / 옳지 않다)고 생각해.</p> <p>왜냐하면</p>

5. 갈등 해결 지침서 만들기

-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과 해결방법을 모음별로 토의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갈등 해결 지침서>를 만들어 봅시다.

(1) 친구들과의 갈등이 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 떠올려 봅시다.

--

(2) 친구들과의 갈등을 키우는 말이나 행동이 무엇인지, 반대로 갈등을 줄이는 말이나 행동이 무엇인지 토의해 봅시다.

갈등을 키우는 말이나 행동	갈등을 줄이는 말이나 행동

(3) (1),(2)를 바탕으로 <갈등 해결 지침서>를 만들어 봅시다.

갈등 해결 지침서

❖ 화가 날 때에는 마음속으로 열을 세어 보면서 화를 가라 앉힌 뒤에 일을 건넌다.

◆

◆


◆

◆

◆

4. 맺음말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교사이다. 문서와 활자로 존재하는 교육과정에 숨을 불어넣어 학생에게 의미 있는 배움을 만들어줄 수 있는 주체의 역할을 하기 때

문이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교사의 능숙한 활용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 교사와 교육과정은 매우 긴밀한 관계이며, 교육과정 자율화를 기반으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더더욱 교사에게 부담과 책임을 느끼게 하고 있다. 하지만 한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우리 종착지는 학생들이라는 사실이다. 학생들의 삶을 중심에 두고 학생의 배움과 삶을 연관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사들의 묵묵한 한 걸음걸음이 요구되고 있다. 미래 사회 요구를 반영하고 학생의 삶과 연계된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교과서가 잘 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참고 문헌

- 이승미(2021). 2022 개정 초중학교 교육과정 개선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주연(2021). 2022 개정 초중학교 교육과정 운영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노은희(2022).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노은희(2022).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시안(최종안)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필자 소개

삶을 통한 성장으로 교육을 생각하고 매일 매일 아이들과의 즐거운 만남을 기다리는 중등교사이다. 앓과 삶이 하나 되는 수업을 교육철학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초·중학교 개선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삶이 하나가 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매일 고군분투하고 새로운 수업과 활용을 위한 도전을 즐기는 교사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중학교 영어과 교과서



임성은
정자중학교 교사

1. 들어가며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됨에 따라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군 적용을 시작으로 2025년에 초등학교 3~4학년군,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영어 교과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영어과 교과 역량 중 영어 의사소통 역량에 편중되어 연계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등을 고려한 성취기준이 추가 개발되었다(온정덕, 2021).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는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현된다. 교사는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교과용 도서이다. 교과용 도서는 국가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바를 교수·학습자료와 학생의 학습 활동 형태로 구현하여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기능을 해왔다. 역량 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서 교과서는 학습자의 사고력 증진과 배운 내용을 새로운 상황과 또는 이후의 학습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교사가 학습자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도록 한다(박창언 외, 2021). 학습자료로서의 교과용 도서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개발되므로, 이에 2022 개정 중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중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편찬 방향을 구성과 내용, 교수학습과 평가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2. 2022 개정 중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중점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양성한다는 총론의 개정 방향을 반영하고, 국가·사회적 요구 및 영어 교과학의 학문적 동향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초·중학교 영어는 영어 교과가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실생활 중심의 영어 의사소통 역량 함양을 목표로 설정하고, 고등학교 영어는 보다 심화된 영어 의사소통 역량 함양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로·직업을 고려한 영어교육이 주요 목표가 되도록 하였다.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영어를 ‘다양한 언어 및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주요 의사소통 수단의 언어’로 규정하고 학교 교육에서의 영어교육이 추구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지향점인 자기 주도성, 창의와 혁신, 포용성과 시민성 등을 반영하였고, 기후변화 및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역량과 변화 대응력 함양 등을 연계 진술하였다.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국가·사회적 요구, 미래 사회 변화, 학문적 체계, 해외 동향 등을 반영하여 더욱 포괄적이고 확장된 개념으로 재정의하여 총괄 목표로 상정하고, 협력적 소통 역량,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공동체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등의 교과 역량을 기반으로 총 6개의 교과 세부 목표를 진술하였다.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네 가지 언어 기능 영역을 이해(reception)와 표현(production)의 2개 영역으로 개편하였다. 이해 영역에서 학습자는 정보를 취득(reception)하기 위한 목적하에 다양한 방식의 언어 입력(구두, 문자, 동영상 등)을 수집, 처리, 활용하게 되고, 표현 영역에서는 자기 생각, 느낌, 의견 등을 다양한 방식과 매체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고자 하였다. 이해 영역과 표현 영역은 독자적인 영역으로 기능하는 한편, 두 영역의 결합한 형태로 영어 사용자 간 상호작용도 가능하도록 이해와 표현 영역 간 통합을 장려한다. 영역별로 핵심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 3개의 진술 문으로 진술하였다.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은 세 가지 범주(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로 구성하여 제시되었다. ‘지식·이해’는 언어와 맥락의 2개 세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언어’는 언어적 지식(linguistic knowledge)으로 언어 재료인 별표 자료(소재,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 어휘, 언어 형식), 글이나 담화의 유형 등을 학교급별로 제시하였다. ‘맥락’은 영어가 사용되는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 부분으로 주제(영어 사용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을 범주화한 것)와 문화 내용을 학교급별로 제시하였다. ‘과정·기능’에는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수행 기능을 보다 정교화하고 학교급별로 위계를 고려하여 구체화하여 영어 사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과 강조되어야 할 언어 기능별 전략을 일부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가치·태도’는 해당 영역의 학습을 통해 학생이 궁극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정의적인 태도로 규정하고 영어 학습을 통해 내면화될 수 있는 가치나 태도를 학교급 및 영역별로 제시하였다.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일부 교과 역량에 편중되지 않게 모든 영어 교과 역량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이를 통해, 기존 성취기준에 제시되지 못했던 정의적 요소를 포함하거나, 학습 전략 및 매체 활용 관련 성취기준 등이 추가되었다. 학교급 간 연계와 위계가 강화되도록 학년군별 성취기준의 수를 조정하여 학습량을 적정화하였다. 또한, 영어 교과 목표 및 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성취기준의 수준을 재설정하였다. 초등학교에서는 영어 기초 문해력 및 학년군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읽기,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이 보강되었으며, 중학교에서는 네 언어 기능의 영역 간 비중 및 학생의 인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성취기준을 개선하였다(임찬빈 외, 2022).

3.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편찬 방향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우리 교육은 이제 교과 지식 중심이었던 전통적인 교육을 탈피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변하고 있다. [그림 1]과 같이 교육의 중심을 학생에 두고 교사와 동료, 매체, 교과 지식이 지원하고 있는데, 교과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교수·학습 자료 중 하나이다. 이에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양성하고자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을 반영하고, 국가·사회적 요구와 영어 교과와 학문적 동향을 고려하여, 교과서가 그에 맞는 모습으로 새롭게 단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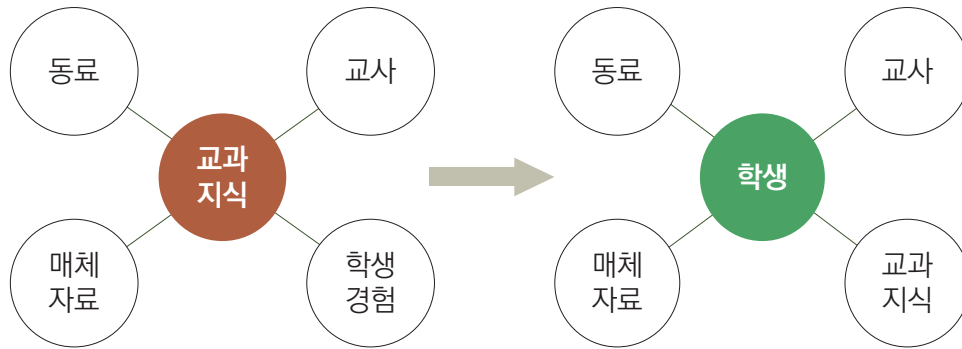


그림 1 —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위한 변화

가. 구성 체제

1) 이해(reception)와 표현(production)이 통합된 교과서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네 가지 언어 기능 영역을 이해(reception)와 표현(production)의 2개 영역으로 개편하였다. 이해 영역에서 학습자는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하에 다양한 방식의 언어 입력(구두, 문자, 동영상 등)을 수집, 처리, 활용하게 되고, 표현 영역에서는 자기 생각, 느낌, 의견 등을 다양한 방식과 매체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고자 함이다. 다음 [그림 2]와 같이, 이해 영역과 표현 영역은 독자적인 영역으로 기능하는 한편, 두 영역의 결합한 형태로 영어 사용자 간 상호작용도 가능하도록 이해와 표현 영역 간 통합을 장려한다(임찬빈 외, 2022).



그림 2 — 영어과 역량 및 영역 구성

사실, 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동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을 총괄 목표로 삼고, 학생들이 영어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습득하여 기본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을 세부 목표로 두었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현행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을 분절적으로 구성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네 가지 언어 기능이 동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실제 맥락과 동떨어진 의사소통 환경을 조성하게 되거나, 네 가지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교사가 다시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가르쳐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었다.

새로운 교과서에서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방향과 취지에 맞게, 이해와 표현 영역의 관점에서 통합적 접근을 해주길 기대한다. 변화된 교육 환경의 현실과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동시 학습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네 가지 언어 기능의 균형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 적용 시 학습자의 듣기와 읽기 능력을 균형적으로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지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해 영역의 듣기와 읽기를 연계한 활동뿐만 아니라 이해한 내용을 말하거나 쓰기, 질문하며 답하기 등의 활동을 활용하여 이해 영역 활동이 자연스럽게 표현 영역 활동에 연결되도록 통합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4영01-06] 자기 주변 주제에 관한 담화의 주요 정보를 파악한다.'라는 성취기준은 담화의 내용을 듣거나 읽는 것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대화나 담화를 듣기 영역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읽기 영역에서도 사용 가능한 텍스트가 될 수 있으며, 이를 '[9영02-07] 친숙한 주제에 관해 듣거나 읽고 내용을 요약한다.'와 연계하여 통합 지도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교과서의 단원 구성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의 독립된 분절적인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주제에 대해 듣고 말하기, 듣고 쓰기, 읽고 말하기, 읽고 쓰기, 듣고 읽고 쓰기 등 다양한 형태의 통합적인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더 나아가,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이해 영역으로 듣기와 읽기 외에 '보기(viewing)'를, 표현 영역에는 말하기와 쓰기 외에 '제시하기(presenting)'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는 실제 언어생활을 반영하여 듣거나 읽기의 단일 모드로 정보를 취득할 수도 있지만, 뉴스 영상과 자막을 동시에 보면서 정보를 얻는 경우와 같이 읽기, 듣기, 보기(viewing)가 결합하는 방식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더불어, 이해와 표현 영역의 설정을 네 가지 기능들의 단순히 물리적으로 묶거나 통합한

것과는 다름을 명시하고 있다. 이해 영역을 예로 들면 듣기 기능과 읽기 기능은 그 자체가 교육 목표가 아니라 정보의 이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학생들은 과제 유형이나 상황에 따라 때로는 개별적으로, 때로는 통합적으로 듣기, 읽기, 보기 등을 학습하고 사용한다. 표현 영역 역시 말하기, 쓰기 기능의 함양 자체보다는 학생들이 다양한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여 자기 생각이나 느낌, 의견 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이해와 표현 영역은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두 영역이 결합하여 화자 간 상호작용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는 이해와 표현이 동시에 일어난다(임찬빈, 2022). 따라서 기존의 네 가지 언어 기능 체계에서 기능 간 통합이 강조되었던 것처럼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기반한 새 교과서에서도 이해와 표현 영역 간 통합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2)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지원하는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교육과정 자율화가 강화됨에 따라 점차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교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은 교육과정 문해력을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 재구성이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각론에 제시된 교과 교육과정을 재료로 하여 그 내용 혹은 배우는 순서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의 특색, 학교의 여건 및 상황, 학생의 흥미와 관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으며, 이는 교과 내, 교과 간 연계 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체험 중심의 교과학습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새 교과서가 든든한 도움 자료의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우선, 현행 교과서들의 천편일률적인 구성 체제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를 선정하기 위해 교사들이 교과서를 심사·검토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요구에 맞지 않거나 획일적인 단원 구성 등으로 특별히 눈길을 끄는 교과서가 없어, 교사들이 교과서 선정을 어려워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기존의 대부분의 중학교 영어 교과서는 출판사별 단원 구성 체제가 매우 유사하다. 듣기 활동을 시작으로 말하기, 본문 읽기, 문법, 쓰기, 단원 평가, 프로젝트 등의 활동 순서로 나열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결국 기존에 사용하던 익숙한 교과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저명한 출판사의 교과서를 맹목적으로 채택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그러므로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모습을 탈피하여 교과서 출판사별로 특색 있게 구성해 볼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학생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내용과 교수·학습 활동들을 중심으로 학생 개별 맞춤형 교과서가 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즉,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요구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과 세부 내용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또는 교과서 단원 및 내용의 재구성, 교과 내 통합, 교과 간 통합 등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사 교육과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할 수도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급(학년) 간 전환기의 학생들이 상급 학교의 생활 및 학습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자 진로연계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영어 교과를 포함한 모든 교과에서 다룰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의 일환으로,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과 연계하거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으로 학교 자율시간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진로연계 교육이나 학교 자율시간을 운영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교과 간 통합이다. 그러나 동일 학년의 교과 간 주제가 통합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다른 학년에 관련 주제가 배치되어 있어 통합하기 어려운 경우를 자주 마주하게 된다. 주제 중심의 교과 간 통합이 유연하도록 교과서 구성 시 동일 학년 내에서 타 교과와의 관련성도 고려한다면 교사의 교사 교육 과정 실천을 돕는 교과서가 될 것이다.

나. 내용

1)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교과서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여러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서로 연결하고 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학생의 관심과 흥미에 기초한 활동 중심 주제 통합보다는 교과 내 영역과 여러 교과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2015 개정 중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영어 교과의 내용 요소는 친숙한 주제, 줄거리나 요지 등으로 제시하고 있어, 교과 간 통합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교과 중 하나이다. 이에 영어과 주제와 타 교과를 연결하고 통합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습자의 사고와 경험이 확장되도록 돕는 교과서가 필요하다.

특히,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삶과 연계한 실생활 맥락 속에서 학습 내용을 습득하고 적용, 실천하도록 하는 ‘삶과 연계한 학습’을 강조한다. 나아가, 학

습자의 공동체 가치 함양을 위해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전환 교육과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이 영어과 교육 내용의 소재 목록으로서 좀 더 구체화하였으며,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기초 소양 교육의 개념 정의와 내용 체계 안을 반영하여 <표 1>에서와 같이 소재 목록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따라서 교과서에서는 기존의 개인·학교·사회 생활, 문화 등 외에 생태전환, 민주시민, 디지털·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

표 1 —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소재

연번	범주	세부 내용
1	개인생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미, 오락, 여행, 운동, 쇼핑 등 여가 선용에 관한 내용 - 보건, 위생, 영양 등 개인 건강 관리에 관한 내용 - 생일, 관심사, 생활 방식 등 개인 일상에 관한 내용
2	가정생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복, 음식, 주거 등의 내용 - 명절, 가족 행사, 집안일 등 가정 일상에 관한 내용
3	학교생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교육 내용 및 방법, 학교 활동, 교우 관계, 진로, 진학 등 학교 일상에 관한 내용
4	사회생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노동, 직업윤리 등 근로에 관한 내용 - 서신 왕래, 소셜 미디어 등의 온라인 활동, 면대면 대화 등 대인 관계에 관한 내용 - 회의, 지역 행사, 졸업, 결혼, 장례식 등 사회적 행사에 관한 내용
5	문화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문화권 내의 다른 세대, 성별 간의 문화적 차이에 관한 내용 - 우리의 문화와 생활 양식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의 언어·문화적 차이에 관한 내용 - 다양한 문화권의 관습, 규범, 가치, 사고방식, 행동 양식, 의사소통 방식에 관한 내용 - 세계 문화의 의식주, 명절과 축제, 종교, 언어, 문학, 음악, 예술, 대중문화, 여행 및 관광지, 건축물, 전통, 지리, 역사, 인물, 스포츠, 관혼상제 등의 다양한 일상생활에 관련된 내용 -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교류, 협력 등에 관한 내용
6	민주시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도덕, 예절, 협력, 배려, 봉사, 정의, 책임감 등의 인성에 관한 내용 - 인권, 양성평등, 글로벌 에티켓, 평화 등의 민주시민 의식 및 세계시민 의식을 고취하는 내용 - 올바른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한 비판적 사고의 성찰, 사회적 공감과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민주적 의사 결정 및 갈등 해결에 관한 내용 - 가난 및 기아 해결, 인구 문제, 청소년 문제, 고령화, 다문화 사회, 사회 정의와 불평등 해소,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자원과 에너지 문제,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등의 사회 현안을 논의하는 내용 - 변화하는 사회 및 국제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 학교, 지역, 국가 및 세계 공동체의 범위로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
7	생태전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과 생태계의 관계에 대한 관점, 자연환경과 생태 윤리, 생태 감수성과 책임감, 현재 및 미래 세대의 권리로서 환경권 존중 등의 생태계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관점과 태도에 관한 내용 - 생태계의 특성과 시스템 탐구, 생태 시스템과 인간 사회 시스템의 연관성 탐구 등 기후변화와 생태계 문제 탐구에 관한 내용 - 생태전환을 위한 사회 체계의 변화 제안 및 실천, 생태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과학 기술 제안 및 실천, 일상생활에서의 생태전환 참여와 실천 등 생태전환을 위한 참여와 실천에 관한 내용

연번	범주	세부 내용
8	디지털·인공지능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 소프트웨어의 이해와 활용 등 디지털 기술의 이해와 활용에 관한 내용 - 정보의 공유, 온라인 활동 참여와 협업 등 디지털 의사소통과 협력에 관한 내용 - 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 표현 등 정보의 처리와 생성에 관한 내용 - 디지털 기술과 정보의 안전한 사용 및 윤리적 사용에 관한 내용
9	일반교양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안전, 교통안전, 재난 안전, 직업 안전 등의 안전에 관한 내용 - 동식물 또는 계절, 날씨 등의 자연 현상에 관한 내용 - 애국심, 평화, 안보, 독도 교육 및 통일 등의 내용 - 정치, 경제, 금융, 역사, 지리, 수학, 과학, 교통, 정보 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의 일반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 인문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 예술 분야 등의 학문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내용 - 언어, 문학, 예술 등의 심미적 심성을 기르고 창의력,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는 내용

2) 심미적 감성을 키우는 교과서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없었던 심미적 감성 역량이 추가로 반영되었다. 이는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는’ 역량이며, 어려운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접하는 간단한 시청각적 자료(사진, 포스트, 그림, 동요, 동영상 등)를 통해 고양할 수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교과 역량으로서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영어로 표현된 다양한 문화적 산물을 체험하면서 심미적 감성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이에 새 교과서는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포용적 태도를 갖추며, 적극적이고 협력적으로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을 구안해야 한다. 즉, 세계인의 삶과 문화를 표현한 일화, 예술·문학 작품 등을 예시 자료로 제시하여 언어와 문화의 심미적 요소를 학습자 스스로 탐구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다. 교수·학습 활동

1) 탐구 질문을 바탕으로 귀납적 접근을 돕는 교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역량 교육은 지식의 구조에 대한 학생의 주체적인 탐구를 기반으로 하여 학생 스스로 교과 학문의 원리 및 개념을 구성하고 자신의 지식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경험을 통하여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온정덕, 2021. p.18). 그러나 그동안 단편 지식 암기 및 문제풀이 위주의 무기력한 지식 교육으로 학생들의 지적 몰입을 어렵게 만들었고, 학생 스

스로 깊이 탐구하는 기회를 주지 못했다. 이에 탐구 질문을 통한 학습 경험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학생에게 학습에 관한 관심과 호기심을 증진하며,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려면 탐구 질문을 통한 학습이 필요하다. 새 교과서에서는 학생의 깊이 있는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러한 탐구 질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학생은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고 자기 주도 학습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된다. 탐구 질문이 갖추어야 할 특성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 탐구 질문이 갖추어야 할 특성

영어과의 탐구 질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볼 수 있다.

- 이야기 글은 어떠한 방식으로 문화적 요소를 반영하는가?
- 어떻게 하면 이야기 글을 능동적으로 읽으면서 주제나 세부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가?
- 담화나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 대화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 상대방이 의도를 표현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 ~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를 영어로 소개할 때 매체가 달라지면 효과가 달라질까?
- 소셜 미디어에서는 어떤 글쓰기가 효과적인가?
- ~를 어떻게 전달하면 의미가 정확해지는가?
- 왜 글을 정확히 읽고 자기 생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가?
-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따라 새 교과서에서는 위와 같은 탐구 질문을 기반으로 학생이 귀납적으로 탐구할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교과나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할 때, 귀납적 접근 방식과 연역적 접근 방식을 균형 있게 사용해야만 학생의 시너지적 사고를 유도할 수 있

다. 그런데 대부분 교실에서 정확하고 논리적인 결론을 빠르게 전달해 주기 위해 연역적 접근 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습을 통해 이해해야 할 내용을 미리 말하고 학생들은 이 일반화를 뒷받침하는 사실적 사례를 조사한다. 학생의 조사는 교사가 제시한 이해를 검증할 뿐이다. 이것은 귀납적 접근 방식과 대조되는데, 학생들이 탐구 질문을 통해 실제 예를 탐구하고, 그들 안에서 찾은 공통점을 종합하여 일반화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학생들은 일반화를 설명하기 위해 스스로 패턴을 찾는 과정을 경험한다. 이러한 귀납적인 접근 방식으로 학생들은 자기 생각에 책임을 지고 주체적으로 사고하게 된다. Carla Marschall, Rachel French(2021)는 생각하는 교실을 만들고 싶다면 우리 학생들이 능력 있고 유능한 개념적 사고자임을 믿고 귀납적 접근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관련되는 사실적 사례를 탐색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일반화를 제공하면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 생각을 대신 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이해를 구성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없다는 믿음을 드러내며, 학생들의 생각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귀납적 접근 방법에 근거하여 교과서에서 문법 규칙을 습득하는 활동을 넣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에게 다양한 문장을 관찰하고 이해하도록 한 후, 관찰한 문장에서 공통적인 패턴을 파악하여 문법 규칙을 도출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 도출된 문법 규칙을 기반으로 문장을 만들고 실습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학생 스스로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면서 규칙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방식의 귀납적 접근 방법은 학생이 문법 규칙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실제 상황에서 언어를 능숙하게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핵심 아이디어를 다루는 교과서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깊이 있는 이해를 강조하면서 학습 내용을 핵심 아이디어 중심으로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로 구성하고, 이 세 요소를 통합적으로 작동하여 학생이 학습의 결과 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성취기준으로 구현하였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핵심 아이디어는 <표 2>와 같다.

표 2 —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핵심 아이디어

	핵심 아이디어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소통 목적과 상황에 맞게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 관점, 목적과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담화나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적절한 사고 과정 및 전략을 활용하여 담화나 글의 의미를 파악하고 분석한다. 담화나 글을 이해하는 활동은 협력적이고 포용적으로 화자나 필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태도를 길러 준다.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소통 목적과 상황에 맞게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담화나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적절한 사고 과정 및 전략을 활용하여 의미를 표현하거나 교환한다. 담화나 글로 표현하는 활동은 다양한 문화와 관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적이고 포용적으로 상호 소통하며 의미를 표현하거나 교환하는 태도를 길러 준다.

이를 통해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맥락 속에서 교과 고유의 사고와 탐구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새로운 상황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경험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학생 참여형 수업이 강조됨에 따라, 대부분 교과서에서 단원의 마무리 단계로 프로젝트 활동을 추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주로 단순히 자료를 조사한 후 발표하는 수준이거나 포스터나 UCC 제작 등에 머물렀을 뿐,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학생주도 프로젝트 활동 본연의 목적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즉, 학생 참여형 수업은 본래 의도와 다르게 활동 중심수업으로 인식되었다. 교사가 다양한 활동을 디자인하고 학생들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수업은 학생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 중심수업’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깊이 있는 이해를 끌어내기보다 단순히 활동들만 나열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다. 예를 들어 글을 읽고 글의 중심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리도록 했다면 과연 그것만으로 학생이 핵심 아이디어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충분했을까? 학생이 핵심 아이디어를 이해하도록 하려면, 학생이 그린 그림이 어떻게 글의 중심 내용을 나타내는지 기술하도록 하고, 주제에 관한 중심 내용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는 활동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 교과서에서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고차원적 수준의 사고와 탐구를 통해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학습하는 법을 익혀 교사와 함께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3) 전략을 활용하도록 돕는 교과서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중 이해 영역의 ‘[9영01-08] 적절한 전략을 활용하여 다양한 매체로 표현된 담화나 글을 듣거나 읽는다.’ 표현 영역의 ‘[9영02-10]

적절한 전략을 활용하여 상황이나 목적에 맞게 말하거나 쓴다.’를 제시함으로써 적절한 전략의 활용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교실에서는 영어 이해 및 표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적·비언어적 전략의 종류를 제시하고, 학습자가 다양한 상황에서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새 교과서에서는 학생이 적절한 전략을 활용하면서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글의 내용 예측하기, 의미 이해를 위한 비언어적 요소 찾기, 의미 명료화를 위해 되묻기, 바꿔 말하기, 훑어보기, 키워드 찾기, 듣거나 읽은 내용을 자신의 배경 지식과 연결 짓기, 목적을 가지고 듣거나 읽기, 모르는 어휘의 의미를 문맥을 통해 유추하기, 화자나 필자의 숨겨진 의도 파악하기, 고쳐 쓰기 등 언어의 네 가지 기능에 따른 전략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새 교과서에서도 학생이 방송이나 영상,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로 표현된 친숙한 주제에 관한 말, 대화 또는 글을 듣거나 읽을 때, ‘다음에 나올 내용을 추측하며 듣거나 읽기’와 ‘훑어보기’ 등과 같은 다양한 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4) 다양한 에듀테크 활용을 지원하는 교과서

최근의 영어 사용 및 수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중 이해 영역의 ‘[9영01-08] 적절한 전략을 활용하여 다양한 매체로 표현된 담화나 글을 듣거나 읽는다.’가 있다. 이 성취기준은 학습자가 방송, 영상,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로 표현된 친숙한 주제에 관한 말, 대화 또는 글을 듣거나 읽는 것을 의미하며, 표현 영역의 ‘[9영02-09]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 윤리를 준수하며 말하거나 쓴다.’에서도 학습자가 인용한 내용이나 자료의 출처를 언급하는 등의 정보 윤리를 준수하며 이미지, 영상,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자기 생각을 말하거나 문장이나 문단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생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언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새 교과서에서도 디지털 기반 영어 학습자료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제 다양한 언어 입력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이 실제적인 영어에 친숙해지고 생동감 있는 언어 사용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면 의사소통 장면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온라인 기반 매체 또는 인공지능 번역기 등과 같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활동들을 제공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상의 다양한 영어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활동의 목적과 학생의 언어 수준에 맞는 디지털 영어 자료를 학생

스스로 선택하고 핵심 사항을 파악하여 영어 표현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될 예정이다. AI 디지털 교과서란,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 정보화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자료 및 학습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교과서를 말한다. AI 디지털 교과서에는 영어 학습을 지원하는 각종 인공지능 기술 및 디지털 도구를 훨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녹음, 학습용 앱, 코퍼스 데이터, 자동 번역, 챗봇, 각종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 등을 통해 학습 활동을 수업에 활용하도록 안내해 준다면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하고 영어 학습 성장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특성과 성취 단계를 고려한 개별화 수업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 가장 큰 이유로 여겨진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개별 학생의 영어 능력 수준 및 다양한 학습자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각자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자료, 활동, 과제를 선택하게 하는 등 개별화된 수업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맞춤형 평가와 학습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개별 학습자의 학습 성취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써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라. 평가

1) 학습을 위한 평가를 지원하는 교과서

최근 학교의 전통적인 평가에 대한 대안적인 관점으로 ‘학습을 위한 평가’를 통한 학생의 학습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Lorna(2022)에 따르면, 학습을 위한 평가는 개별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구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수·학습 활동을 수정할 수 있는 정보를 교사에게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다. 간단히 말하면, 학습을 위한 평가는 총괄평가에서 형성평가로, 판단하는 것에서 학습의 다음 단계에 사용될 수 있는 서술형의 작성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에 학생의 기초 학습을 지원하고 학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학생 맞춤형 영어 교과서가 필요하다. 교수·학습 활동과 평가를 연계하여 학습의 과정에서 형성평가를 통해 학생이 성취기준에 어느 정도 도달하였는지를 점검하고, 학생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

은 영어 학습의 목표와 성공적인 수행 수준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고 진단할 기회를 학생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영어 학습을 성찰하고 향후 학습 방향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2) 학습으로서의 평가를 지원하는 교과서

‘학습으로서의 평가’는 학생의 메타인지를 계발하고 지원하는 과정으로 평가를 사용하는 것을 강조한다. 학습으로서의 평가는 평가와 학생들의 학습 간 중요한 연결고리로 학생의 역할에 집중한다. 능동적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행동하는 학생들은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선지식과 연결 짓고, 새로운 학습의 구성에 사용한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피드백을 이용하여 자신이 이해한 것을 조정하고 적응하며 심지어 변화시키는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습 과정에 대한 반성적 성찰 능력을 강조한다. 역량을 기르는 학습의 과정은 복잡한 인지 과정이며 태도, 동기, 가치 등의 심리 사회적 자원이 동원된다고 하였다. OECD(2005)의 DeSeCo 프로젝트에서도 학생들이 반성적 사고를 갖추어야 함을 강조한다. 학습자는 사고 과정의 주체인 자신을 객관화하여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메타 학습으로 설명될 수 있다. 메타 학습은 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사고 과정을 객관화하고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메타 학습능력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함께 학생에게 길러 주어야 할 중요한 능력이 된다(온정덕, 2021. p.26). 따라서 학습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학습을 계획하고, 학습 과정과 결과물에 대해 반성적 성찰을 통해 재고하고 수정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 디지털 평가 도구를 지원하는 교과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에듀테크,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AI 등 다양한 디지털 평가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학습을 위한 평가와 학습으로서의 평가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디지털 분석·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실제적인 평가 맥락을 제공하고, 다양한 학습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며, 이를 토대로 다각적이고 신뢰할 만한 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듯이, 듣기나 읽기 같은 이해 영역 평가 시 디지털 텍스트, 텍스트 난이도, 읽기나 듣기 속도, 어휘·언어 형식 수준 등 학습자 개인의 읽기와 듣기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각종 보충 자료 및 인공

지능 기반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이해 능력을 진단하고, 개인별 맞춤형 피드백 학습을 통해 향상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말하기나 쓰기 같은 표현 영역 평가 시 실제적인 의사소통 맥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 - 음성 녹음, 음성 인식, 챗봇, 화상 회의 등 - 을 활용하여 다각적이고 신뢰할 만한 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개별 학생의 영어 학습 기록 - 음성 발화, 작문, 과제물, 각종 평가 점수 등 - 을 학습 관리 시스템에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분석하여 학습 성장 과정을 학습자 스스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영어 학습 활동의 결과물을 디지털 포트폴리오와 같은 온라인 공유 플랫폼에 축적하여 학습 성장 과정을 지속해서 기록하며, 자기 평가 혹은 상호 평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4. 나오며

이상으로 2022 개정 영어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기대하는 편찬 방향을 구성과 내용, 교수학습과 평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교과서는 국가 교육과정의 목표를 교수·학습 자료로서 구현하며,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한다.

교육에서의 주된 목표는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서 지향하는 바와 같이, 교과 간 연계와 통합, 삶과 연계한 학습,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 등을 통해 깊이 있는 학습에 이르도록 교사와 학생에게 중요한 매개체로서 교과서가 제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온정덕 외(2021).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개발 기준 마련 연구. 교육부.
 임찬빈 외(2022).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시안(최종안) 개발 연구. 교육부.
 Lorna M. Earl(2022) 학습과정으로서의 평가. 학지사.

필자 소개

학생의 행복한 배움을 위해 학생의 삶과 연계한 교육과정, 학생주도의 배움 중심수업,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 등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도전하고 있는 중등 영어교사이다. 2022 개정 초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 연구, 2022 개정 초중학교 교육과정 개선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였다.

3~4학년군 수학 교과서의 문제 만들기 과제 유형 분석*



임미인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박혜민

서울매현초등학교 교사

1. 서론

수학 문제 만들기 활동은 주로 깊고 충실한 이해를 하는 학생으로부터 발생하며,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가 완성되는 과정으로 수학적 사고나 구조의 학습과 연결시키는 데 기여한다(백석운, 2015). 또한, 문제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문제해결 교수·학습을 탐구 지향적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English, 2003). Brown & Walter(2005)는 의미 있는 문제 만들기 활동을 위해서 학생은 문제해결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문제해결 과정에서도 문제 만들기 활동이 필요하며 문제해결을 완료한 후에도 새로운 의문을 가지고 문제 만들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문제 만들기가 문제해결 과정의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문제 만들기 활동이 지니는 의의로 인

* 본고는 <학교수학> 제25권 제1호에 게재된 논문의 일부를 요약 정리한 것임.

해 현행 2015 개정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및 수학 교과서에서도 문제 만들기 활동을 곳곳에서 다루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문제 만들기 활동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10종의 3~4학년군 검정 수학 교과서(‘수학’, ‘수학 익힘’ 4개 학기 총 80권)의 문제 만들기 과제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부터 차기 수학 교과서의 문제 만들기 과제의 구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선행연구 고찰

문제 만들기는 ‘Problem posing(Brown & Walter, 2005)’을 번역한 것으로, 문제 제기, 문제 설정으로 번역되기도 한다(이명화·김선희, 2020). 문제 만들기 과제의 유형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여러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체로 문제 만들기 상황의 열린 정도를 그 기준으로 한다(여승현 외, 2021). 대표적으로 Stoyanova(1998)는 문제 만들기 상황을 자유 상황, 반(semi-)구조화된 상황, 구조화된 상황 등 3가지로 구분하였다. ‘자유 상황’은 아무런 제약 없이 문제를 만드는 것이고, ‘반구조화된 상황’은 주어진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만들거나 특정 그림이나 다이어그램에 기반을 둔 문제를 만드는 것이다. ‘구조화된 상황’은 이미 해결한 문제를 변형하거나 주어진 문제의 조건이나 질문을 바꾸어 문제를 만드는 것이다.

보다 세분화된 분류 기준을 제시한 연구 중에서 Christou et al.(2005)은 문제 만들기 과제의 유형을 ‘주어진 식에 맞는 문제 만들기’, ‘주어진 상황에 맞는 문제 만들기’, ‘특정 정보를 포함한 문제 만들기’, ‘주어진 답에 맞는 문제 만들기’, ‘자유 상황 문제 만들기’ 등 5가지로 구분하였다. Cai & Jiang(2017), 박미미 외(2019)는 ‘주어진 식에 맞는 문제 만들기’, ‘동일한 수학적 관계나 구조를 가지는 문제 만들기’, ‘주어진 정보와 예시 문제에 기반을 두고 추가로 문제 만들기’, ‘주어진 정보에 기반을 두고 문제 만들기’ 등 4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형인 ‘주어진 식에 맞는 문제 만들기’는 ‘14+8에 대한 문장제 만들기’가 그 예이다. 둘째 유형인 ‘동일한 수학적 관계나 구조를 가지는 문제 만들기’는 예시 문제를 주었을 때 기본적인 수학적 관계나 구조는 예시 문제를 따르고, 맥락이나 수 등을 변화시켜서 문제를 바꾸는 경우이다. 셋째 유형인 ‘주어진 정보와 예시 문

제에 기반을 두고 추가로 문제 만들기'는 예시 문제를 해결한 후 추가로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것으로, 이때에는 예시 문제의 수학적 관계나 구조를 반드시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둘째 유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넷째 유형인 '주어진 정보에 기반을 두고 문제 만들기'는 예시 문제없이 맥락과 정보만 주어졌을 때 이를 기반으로 문제를 만드는 것이다. 박진형(2021)은 문제 만들기 과제의 유형을 '조건 바꾸어 문제 만들기', '문제 해결 후 추가 문제 만들기', '식으로부터 문제 만들기', '식 외의 정보로부터 문제 만들기', '실생활 맥락 기반 문제 만들기' 등 5가지로 구분하였다.

국내에서 근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대상으로 문제 만들기 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한 연구는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5, 6학년 국정 수학 교과서의 문제 만들기 과제를 분석한 박진형(2021)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수학에 검정 교과서 체제가 도입된 시점에서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수학 교과서의 문제 만들기 과제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문제 만들기는 현행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문제해결 역량의 하위 요소 중 하나로서, 초등학교 시기부터 의미 있게 지도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수학 수업 시 교과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김판수 외, 2017) 수학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 만들기는 실제 학생들의 교수·학습과 직결된다. 따라서 수학 교과서의 문제 만들기 과제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연구 방법

가. 분석 대상

분석 대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3~4학년군 검정 수학 교과서의 문제 만들기 과제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초등학교 현장에 적용 중인 10종 출판사(금성, 대교, 동아출판 2종, 미래엔, 비상, 아이스크림, 천재교과서 2종, YBM)의 3-1, 3-2, 4-1, 4-2학기 '수학'과 '수학 익힘' 내 문제 만들기 과제로, 문항 수는 총 100개이다. 이때, 문제 만들기 과제는 학생이 직접 맥락이 있는 문장제를 만드는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 분석 내용 및 방법

분석 내용은 초등 수학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 만들기 과제의 수와 유형

이 어떠한지다. 문제 만들기에 관한 선행연구(박미미 외, 2019; 박진형, 2021; Cai & Jiang, 2017; Christou et al., 2005) 고찰과 교과서 예비 분석을 통해 <표 1>과 같이 문제 만들기 과제 유형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틀을 마련하였고, 10종의 3~4학년군 검정 '수학', '수학 익힘'에서 추출한 100개의 문제 만들기 과제를 이 분석 틀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때, 자료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유형에 C, F, F', F'', I, FI, P의 코드를 부여하였다. 일차적으로 연구자 2인이 각자 100개의 문제 만들기 과제의 유형을 범주화한 후, 분석 결과에 대한 합치 정도를 상호 확인하여 최종 판정하였다.

표 1 — 문제 만들기 과제 유형 분석 틀

유형	코드
조건 바꾸어 문제 만들기	C
주어진 식으로부터 문제 만들기	F
- 주어진 식과 예시 문제에 기반을 두고 문제 만들기	F'
- 주어진 문제를 푼 다음 새롭게 주어진 식에 알맞은 문제 만들기	F''
식이 아닌 주어진 정보로부터 문제 만들기	I
식과 그 외의 정보로부터 문제 만들기	FI
문제해결 후 추가 문제 만들기	P

구체적으로, 각 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C 유형은 '도형이 움직이는 규칙을 바꾸어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해결해 보세요.'와 같이 문제에 제시된 조건을 바꾸어 새로운 문제를 만들게 한 과제이다(그림 5).

주어진 식에 맞는 문제를 만드는 유형은 3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F 유형은 [그림 1]과 같이 오직 주어진 식을 보고 그에 맞는 문제를 만드는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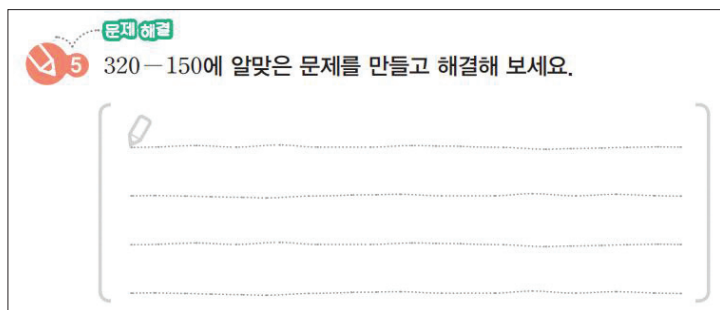


그림 1 — F 유형(신항균 외, 2022a, p.19)

F' 유형과 F'' 유형은 주어진 식에 맞는 문제를 만든다는 점에서 F 유형과 유사하다. 그러나 F' 유형은 그 식을 이용하여 만든 예시 문제를 참고해서 문제를 만든다는 점이 F 유형과 다르다. F'' 유형은 먼저 제시된 문제를 푼 다음, 수치가 다른 주어진 식에 알맞은 문제를 만드는 것이다. 이때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직전에 푼 문제를 참고하여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F' 유형이 F' 유형과 가장 다른 점은 문제 만들기 과제로 주어진 식이 예시에서 다른 식과 같지 않다는 점이다(그림 2). F' 유형과 F'' 유형으로 세분화한 이유는 예시가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F' 유형과 비슷한 형태의 문제를 풀고 새롭게 주어진 식에 알맞은 문제를 만드는 F'' 유형은 초등학생 수준에서는 난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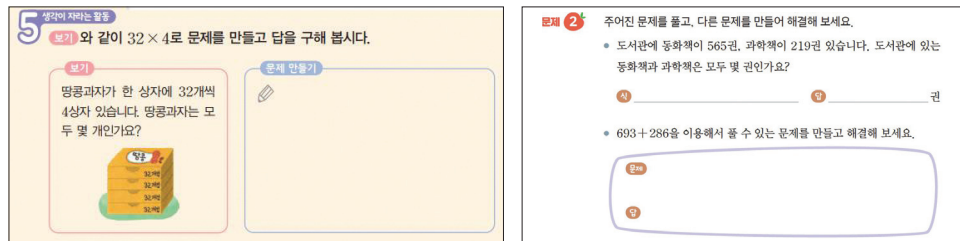


그림 2 — F' 유형과 F'' 유형(김성여 외, 2022a, p.83; 장혜원 외, 2022a, p.16)

I 유형은 식 외의 정보, 즉 그림, 낱말, 수, 상황, 문장, 문장의 일부 등을 제공하여 문제를 만들게 하는 경우이며, [그림 3]은 그림을 제공한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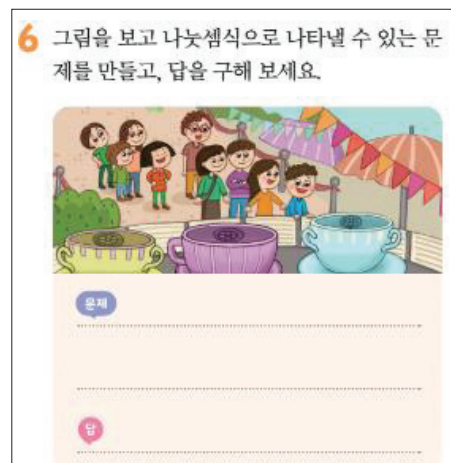


그림 3 — I 유형(류희찬 외, 2022e, p.45)

FI 유형은 식과 함께 그 외의 정보까지 제공되는 경우이다. [그림 4]처럼 주어진 식으로부터 문제를 만들 때 문제의 일부 맥락을 제공하고 남은 부분을 완성하게 하는 경우도 FI 유형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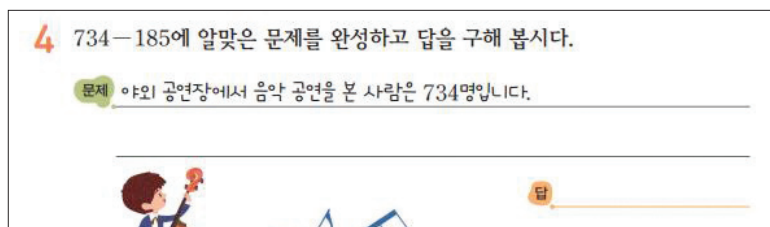


그림 4 — FI 유형(박교식 외, 2022a, p.25)

‘이외에도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문제를 만들고 해결하여 보시오.’와 같이 문제해결 후 문제의 조건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 문제를 만들게 한 경우는 P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4. 연구 결과

가. 출판사별 문제 만들기 과제 수

10종의 검정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 만들기 과제는 3-1학기 36문항, 3-2학기 24문항, 4-1학기 26문항, 4-2학기 14문항으로 총 100문항이다. 다음 <표 2>는 출판사별 문제 만들기 과제 수를 단위별로 정리한 것이다.

10종 검정 교과서의 문제 만들기 과제 수의 평균은 10개이다. 평균보다 많은 과제를 제시한 교과서는 B, C, E, F, G 교과서이다. D, G, I 교과서의 경우 4-2학기에는 문제 만들기 과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H 교과서는 3-1학기에 문제 만들기 과제를 제시하지 않았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출판사가 수와 연산 영역에서 문제 만들기 과제를 가장 많이 제시하였다. 수와 연산 영역 중에서도 특히 자연수의 사칙계산과 관련된 단원에서 문제 만들기 과제가 많이 제시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다음으로 자료와 가능성, 측정, 도형 영역 순이었고, 규칙성 영역은 4-1학기에 1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문제 만들기 과제는 제시되지 않았다.

한편, D, E, I 교과서는 수와 연산 영역에서만 문제 만들기 과제를 제시하였고, 나머지 7종 교과서는 수와 연산 외의 영역에서도 문제 만들기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중 A, F, G 교과서는 측정,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도 문제 만들기 과제를 제시하였고, C 교과서는 도형,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도 문제 만들기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때 C 교과서는 유일하게 도형 영역에서 문제 만들기 과제를 제시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그림 5 참고). B, H, J 교과서는 수와 연산,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 문제 만들기 과제를 제시하였다.

단원별로 비교해 볼 때, 모든 출판사에 걸쳐 문제 만들기 과제를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는 단원은 4-1학기 ‘곱셈과 나눗셈’이다. 이 단원에서는 이전 학년에서 개념과 계산 원리를 배운 곱셈과 나눗셈을 심화하여 학습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출판사에서 문제 만들기 과제를 다루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문제 만들기 과제를 아예 다루고 있지 않은 단원은 수와 연산 영역에서는 3-1학기 ‘분수와 소수’, 3-2학기 ‘분수’, 4-1학기 ‘큰 수’이다. 도형 영역에서는 4-1학기 ‘평면도형의 이동’을 제외한 모든 단원에서 문제 만들기 과제를 다루지 않았다. 측정 영역인 4-1학기 ‘규칙 찾기’ 단원에서도 문제 만들기 과제가 제시되지 않았다.

표 2 — 출판사별 문제 만들기 과제의 수

출판사 학기/단원		A 교과서	B 교과서	C 교과서	D 교과서	E 교과서	F 교과서	G 교과서	H 교과서	I 교과서	J 교과서	계
3-1	1.덧셈과 뺄셈		2	2		2	2	1		2	1	36
	2.평면도형											
	3.나눗셈		2	2	1	2		1		1	3	
	4.곱셈	1	1	2	2	1	1	2		1		
	5.길이와 시간							1				
	6.분수와 소수											
3-2	1.곱셈			2		1	1	1	1	1	2	24
	2.나눗셈	1	1	1	1	1	1	2		2	1	
	3.원											
	4.무게와 길이	1					1					
	5.분수											
	6.그림그래프						1	1				
4-1	1.큰 수											26
	2.각도											
	3.곱셈과 나눗셈	2	2	3	1	2	2	2	2	3		
	4.평면도형의 이동			1								
	5.막대그래프	1	1	1			1		1		1	
	6.규칙 찾기											

4-2	1.분수의 덧셈과 뺄셈	1	2			1	1		1		1	14
	2.삼각형											
	3.소수의 덧셈과 뺄셈			1		1			1			
	4.사각형											
	5.꺾은선그래프			2			1				1	
	6.다각형											
계		7	11	17	5	11	12	11	6	10	10	100

※ 출판사별 단위명과 단위 순서가 상이하여 10종 중 임의의 한 출판사 교과서를 기준으로 제시하였음.

나. 교과서에서 다루는 문제 만들기 과제의 유형

10종 검정 교과서의 문제 만들기 과제 유형별 수를 정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 출판사별 문제 만들기 과제의 유형별 수

출판사 유형	A 교과서	B 교과서	C 교과서	D 교과서	E 교과서	F 교과서	G 교과서	H 교과서	I 교과서	J 교과서	계
C			2								2
F		7	3	3	10				6	4	33
F'	2							1			3
F''			9			3					12
I	4	4	3	2	1	8	4	3	4	6	39
FI	1					1	7	2			11
P											0

10종의 검정 교과서에 걸쳐 가장 많이 제시된 유형은 I 유형(39%), F 유형(33%)이고, 이어서 F'' 유형(12%), FI 유형(11%), F' 유형(3%), C 유형(2%) 순이다. 이 중에서 주어진 식에 맞게 문제를 만드는 F, F', F'' 유형이 전체 과제의 48%를 차지하였다. FI 유형도 식을 제공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를 합한다면 전체의 59%에 해당한다. 즉, 초등학교 3~4학년군 검정 수학 교과서에서는 식을 제공하고 그에 맞는 문제를 만드는 유형이 선호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유일하게 10종 교과서에 모두 사용된 것은 I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I 유형은 어떤 출판사 교과서를 채택하든 간에 3, 4학년 학생들이 한 번쯤은 접하게 되는 유

형이라고 볼 수 있다. F 유형은 B, C, D, E, I, J 6종의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고, FI는 A, F, G, H 4종의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때 F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교과서와 FI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교과서가 정확하게 불일치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F' 유형은 A와 H 교과서에만 제시되어 있고, F'' 유형은 C와 F 교과서에서만 제시하고 있다. C 유형의 경우 C 교과서에서만 사용되었고(그림 5), P 유형은 10종 교과서 모두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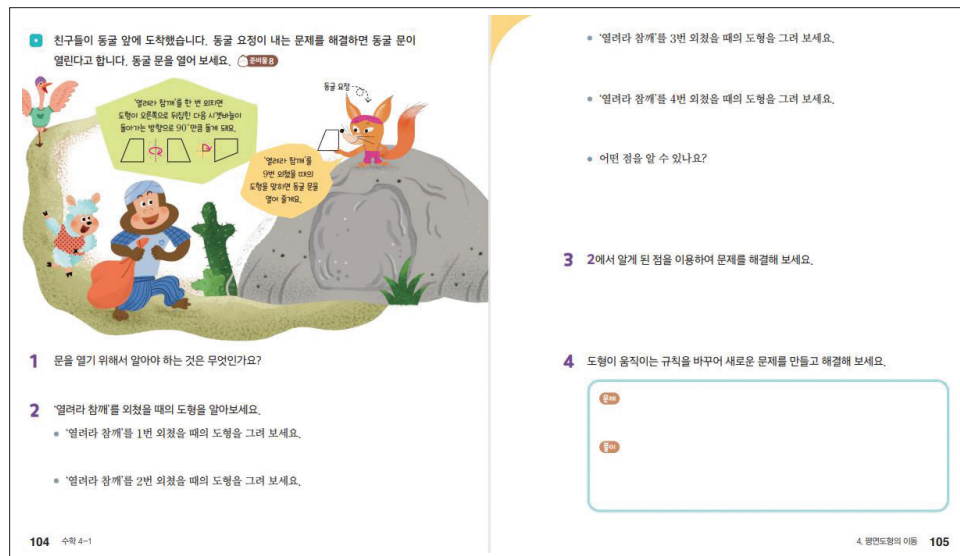


그림 5 — 도형 영역의 C 유형(장혜원 외, 2022c, pp.104-105)

출판사별 각 단원의 문제 만들기 과제 유형에 대한 세부 내용은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수학'과 '수학 익힘'에 제시된 과제를 구분하기 위해 수학 익힘에 제시된 경우는 유형 옆에 (익)으로 표시하였다. 이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동일 단원일지라도 출판사마다 문제 만들기 과제의 유형이 상이한 경우가 있었다. 특히 3-2학기 '나눔셈' 단원은 출판사마다 제시하고 있는 문제 만들기 과제의 유형이 다양하여 총 5개 유형(F 4종, F' 1종, F'' 1종, I 2종, FI 1종)이 다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그림 6). 이를 통해 예를 들어, A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에서는 3-2학기 '나눔셈' 단원을 학습할 때 F' 유형의 문제 만들기를 경험하게 되고, B, D, E, I 교과서를 채택한 경우는 F 유형을, C 교과서를 채택한 경우는 F'' 유형을, G 교과서를 채택한 경우는 FI 유형을, F, J 교과서를 채택한 경우는 I 유형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 — 출판사별 각 단원의 문제 만들기 과제 유형

출판사 학기/단원		A 교과서	B 교과서	C 교과서	D 교과서	E 교과서	F 교과서	G 교과서	H 교과서	I 교과서	J 교과서
3-1	1.덧셈과 뺄셈		F	F''		F	I	FI		I	F
			F	F''(익)		F(익)	I			F(익)	
	2.평면도형										
	3.나눗셈		F	F''	F	F		FI		I(익)	I
			F	F''(익)	F	F					F
											F(익)
	4.곱셈	F'	I(익)	F''	I	F	F''(익)	FI		F	
3-2				F''(익)	F			I(익)			
	5.길이와 시간							I(익)			
	6.분수와 소수										
	1.곱셈			F''		F	F''	FI	F'(익)	F(익)	I
				F''(익)							F(익)
	2.나눗셈	F'	F	F''	F	F(익)	I(익)	FI		F(익)	I(익)
								F(익)		F(익)	
4-1	3.원										
	4.무게와 길이	I(익)					I(익)				
	5.분수										
	6.그림그래프						I	I			
	1.큰 수										
	2.각도										
	3.곱셈과 나눗셈	I	F	F	I	F	FI(익)	FI	I	I	
4-2				F(익)						I	
		FI(익)	F(익)	F(익)		F(익)	F''(익)	I(익)	I(익)	F(익)	
	4.평면도형의 이동			C							
	5.막대그래프	I	I	I			I		I		I
	6.규칙 찾기										
	1.분수의 덧셈과 뺄셈	I(익)	I			F	I(익)		FI		I
			I								
4-2	2.삼각형										
	3.소수의 덧셈과 뺄셈			C		I(익)			FI		
	4.사각형										
	5.꺾은선그래프			I			I				I
				I							
	6.다각형										



그림 6 — 3-2학기 ‘나눔샘’ 단원 문제 만들기 과제 유형(박만구 외, 2022b, p.71; 김성여 외, 2022b, p.52; 장혜원 외, 2022b, p.71; 박교식 외, 2022f, p.29; 박교식 외, 2022b, p.49)

출판사별 문제 만들기 과제 유형의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A 교과서에는 3-1학기 4단원에 문제 만들기 과제가 처음으로 제시된다. 이때 과제의 유형은 식과 예시 문제가 모두 주어진 상태에서 같은 식으로 문제를 만들도록 하는 F' 유형으로, A와 H 교과서에서만 사용한 유형이다. A 교과서는 3-2학기 중반부터는 주로 I 유형을 제시하였고, 그 외의 유형으로는 4-1학기 3단원의 FI 유형이 유일하다. B 교과서에는 3-1학기 1단원부터 적극적으로 F 유형의 과제가 제시되고, 4-1학기 후반부터 I 유형의 과제가 주로 제시되는 흐름이다. C 교과서의 경우 3-1학기 3단원과 3-2학기 3단원에는 F'' 유형만 제시되는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F'' 유형은 C와 F 교과서에서만 사용한 유형이다. 4-1학기부터는 F'' 유형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F 유형, C 유형, I 유형의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된다. C 교과서는 전체 출판사 중 유일하게 C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과 가장 많은 4가지 유형(C, F, F'', I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D 교과서에는 F 유형과 I 유형이 총 5번 등장하며, 4-2학기에는 문제 만들기 과제가 제시되지 않았다. E 교과서는 1개를 제외한 모든 문제 만들기 과제가 F 유형이고, 4-2학기 ‘수학 익힘’에서 처음으로 I 유형이 1개 제시되었다. F 교과서는 전반적으로 I 유형을 가장 많은 빈도로 다루었고, I 유형 외에 F'' 유형과 FI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G 교과서는 FI 유형을 주로 다루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FI 유형 외에는 I 유형을 다루고 있으며, D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4-2학기에는 문제 만들기 과제가 제시되지 않았다. H 교과서는 3-2학기 ‘수학 익힘’에 F’ 유형의 문제 만들기 과제가 처음으로 제시되고, 이후 4-1학기에서는 I 유형, 4-2학기에는 FI 유형을 제시하여 학기별로 다루는 유형에 차이를 보였다. I 교과서는 3-1학기부터 4-1학기까지 I 유형과 F 유형을 혼재하여 다루었고, 4-2학기에는 문제 만들기 과제를 제시하지 않았다. J 교과서는 3학년에서는 F 유형과 I 유형을 모두 다루다가 4학년에서는 I 유형만 다루는 흐름을 보였다.

한편, ‘수학’과 ‘수학 익힘’에 제시된 문제 만들기 과제 유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수학’의 해당 단원에서는 문제 만들기 과제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수학 익힘’에서는 제시한 경우, ‘수학’에서 다룬 적이 없던 유형을 ‘수학 익힘’에서 제시한 경우, ‘수학’에서만 문제 만들기를 제시하고 ‘수학 익힘’에서는 문제 만들기를 다루지 않은 경우가 확인되었다.

5. 결론 및 시사점


수학 문제해결 교육에서 문제 만들기가 지니는 의의로 인해 현행 수학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는 문제 만들기를 폭넓게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2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 10종의 3~4학년군 검정 수학 교과서의 문제 만들기 과제를 분석한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 및 교수학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출판사별로 문제 만들기 과제의 수와 구현 단원이 상이하였다. 출판사마다 적은 것은 5개, 많게는 17개의 문제 만들기 과제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문제 만들기를 다루는 단원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10종 중 7종의 출판사에서 문제 만들기를 3-1학기 ‘덧셈과 뺄셈’ 단원부터 다루기 시작했고, 특정 학기에 문제 만들기를 아예 다루지 않은 출판사도 있었다. 또한, 문제 만들기를 대체로 수와 연산 영역에서 다루는 경향이 있었고, 규칙성, 도형, 측정 영역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출판사별로 다루는 문제 만들기 과제의 유형이 서로 다르고, 동일한 단원이더라도 출판사마다 과제의 유형이 제각각이었다. 3~4학년군 검정 수학 교과서에서는 P 유형을 제외한 C, F, F’, F”, FI, I의 6가지 유형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모든 출판사에 걸쳐 가장 많이 제시된 유형은 I 유형과 F 유형이고, F’ 유형과 C 유형이 가장 적게 제시되었다. 유일하게 10종 교과서에 모두 사용된 것은 I 유형으로 나타났고, 출판사마다 2~4

가지 유형으로 문제 만들기 과제를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동일한 단위임에도 출판사마다 제각각의 유형을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3-2학기 '나눠셈' 단원의 경우에는 출판사마다 F, F', F'', FI, I 유형의 과제를 각기 다르게 제시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의 학생들은 동일한 단원을 학습하면서 다른 유형의 문제 만들기 과제를 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수학'의 해당 단위에서는 문제 만들기 과제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수학 익힘'에서 제시한 경우, '수학'에서 다룬 적이 없는 유형을 '수학 익힘'에서 제시한 경우는 해당 과제가 문제 만들기 경험이 적은 3, 4학년 학생들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국정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개발하여 사용해 오다가, 2022년부터 3~4학년군에, 2023년부터 5~6학년군에 검정 수학 교과서를 도입하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초등학교 수학 수업 시 교과서의 높은 활용도를 고려할 때 어떤 교과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수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의 관심인 문제 만들기 과제 또한 출판사마다 다양하게 구현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초등 수학 교과서에서 어떻게 문제 만들기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교과서 집필 시 깊이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어떤 출판사 교과서를 채택하든 간에 모든 학생이 큰 격차 없이 양질의 문제 만들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숙의가 요구되며, 관련된 토대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강완 외 20인(2022a, 2022b, 2022c, 2022d). 초등학교 수학 3-1, 3-2, 4-1, 4-2. 서울: 대교.
 강완 외 20인(2022e, 2022f, 2022g, 2022h). 초등학교 수학 익힘 3-1, 3-2, 4-1, 4-2. 서울: 대교.
 김성여 외 14인(2022a, 2022b, 2022c, 2022d). 초등학교 수학 3-1, 3-2, 4-1, 4-2. 서울: 아이스크림.
 김성여 외 14인(2022e, 2022f, 2022g, 2022h). 초등학교 수학 익힘 3-1, 3-2, 4-1, 4-2. 서울: 아이스크림.
 김판수, 임미인, 장혜원(2017).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구성 체제 비교 및 교사 선호도 조사.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21(2), 263-289.
 류희찬 외 25인(2022a, 2022b, 2022c, 2022d). 초등학교 수학 3-1, 3-2, 4-1, 4-2. 서울: 금성출판사.

- 류희찬 외 25인(2022e, 2022f, 2022g, 2022h). 초등학교 수학 익힘 3-1, 3-2, 4-1, 4-2. 서울: 금성출판사.
- 박교식 외 32인(2022a, 2022b, 2022c, 2022d). 초등학교 수학 3-1, 3-2, 4-1, 4-2. 서울: 동아출판.
- 박교식 외 32인(2022e, 2022f, 2022g, 2022h). 초등학교 수학 익힘 3-1, 3-2, 4-1, 4-2. 서울: 동아출판.
- 박만구 외 14인(2022a, 2022b, 2022c, 2022d). 초등학교 수학 3-1, 3-2, 4-1, 4-2. 서울: 천재교과서.
- 박만구 외 14인(2022e, 2022f, 2022g, 2022h). 초등학교 수학 익힘 3-1, 3-2, 4-1, 4-2. 서울: 천재교과서.
- 박미미, 이은정, 조진우(2019).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교과서 문제제기 과제 분석: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수학교육 논문집, 33(2), 123-139.
- 박성선 외 16인(2022a, 2022b, 2022c, 2022d). 초등학교 수학 3-1, 3-2, 4-1, 4-2. 서울: 와이비엠.
- 박성선 외 16인(2022e, 2022f, 2022g, 2022h). 초등학교 수학 익힘 3-1, 3-2, 4-1, 4-2. 서울: 와이비엠.
- 박진형(2021). 초등 수학 교과서의 문제 만들기 과제 분석 : 5, 6학년을 중심으로.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25(4), 465-488.
- 백석윤(2015). 수학 문제해결 교육. 서울: 경문사.
- 신항균 외 13인(2022a, 2022b, 2022c, 2022d). 초등학교 수학 3-1, 3-2, 4-1, 4-2. 서울: 비상교육.
- 신항균 외 13인(2022e, 2022f, 2022g, 2022h). 초등학교 수학 익힘 3-1, 3-2, 4-1, 4-2. 서울: 비상교육.
- 안병곤 외 19인(2022a, 2022b, 2022c, 2022d). 초등학교 수학 3-1, 3-2, 4-1, 4-2. 서울: 동아출판.
- 안병곤 외 19인(2022e, 2022f, 2022g, 2022h). 초등학교 수학 익힘 3-1, 3-2, 4-1, 4-2. 서울: 동아출판.
- 여승현, 서희주, 한선영, 김진호(2021). 초등 수학교과서의 문제해결 역량 및 과제 유형 분석: 수와 연산 영역의 도전/생각 수학과 탐구 수학을 중심으로. 수학교육, 60(4), 431-449.
- 이명화, 김선희(2020). 수학 문제 만들기과 해결 과정에 나타난 가추 유형 분석. 수학교육학연구, 30(1), 89-110.
- 장혜원 외 13인(2022a, 2022b, 2022c, 2022d). 초등학교 수학 3-1, 3-2, 4-1, 4-2. 서울: 미래엔.
- 장혜원 외 13인(2022e, 2022f, 2022g, 2022h). 초등학교 수학 익힘 3-1, 3-2, 4-1, 4-2. 서울: 미래엔.
- 한대희 외 16인(2022a, 2022b, 2022c, 2022d). 초등학교 수학 3-1, 3-2, 4-1, 4-2. 서울: 천재교과서.
- 한대희 외 16인(2022e, 2022f, 2022g, 2022h). 초등학교 수학 익힘 3-1, 3-2, 4-1, 4-2. 서울: 천재교과서.
- Brown, S. I., & Walter, M. I. (2005). *The art of problem posing*.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Cai, J., & Jiang, C. (2017). An analysis of problem-posing tasks in Chinese and US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and Mathematics Education*, 15(8), 1521-1540.
- Christou, C., Mousoulides, N., Pittalis, M., Pitta-Pantazi, D., & Sriraman, B. (2005). An empirical taxonomy of problem posing processes. *ZDM*, 37(3), 149-158.
- English, L. D. (2003). Problem posing in the elementary curriculum. In Lester, F., & Charles, R. (Eds.), *Teaching mathematics through problem solving*. Reston, VA: NCTM.

Stoyanova, E. (1998). Problem posing in mathematics classrooms. In A. McIntosh, & N. Ellerton (Eds.), *Research in mathematics education: A contemporary perspective*, 164–185. Edith Cowan University: MASTEC.

필자 소개

- 임미인: 약 15년간 초등학교 현장에서 교사로 근무하였고, 공주교육대학교 조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조교수로 근무하면서 예비교사 양성과 수학교육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2015 개정,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진으로 참여하였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 검정 수학 교과서를 집필하였다.
- 박혜민: 현재 서울매현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 검정 수학 교과서를 집필하였다.



실크로드 심장에 불고 있는 한국어



우즈베키스탄에서 만나는 한국의 또 다른 한국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본 일이 있을 것이다. 과거 어딘가에서 본 듯한 경치 또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지금 본 그 장면이 과거 어디에서 보았는지 잠시 생각에 잠기곤 한다. ‘어디서 보았더라? 꿈에서 봤나? TV에서 본 장면인가?’ 등 가우뚱하면서 말이다.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에서는 한국의 정서와 가치 그리고 문화를 닮은 어디선가 본 듯한 한국을 만날 수 있다.

우즈벡은 우리에게 무척 낯선 나라이다. 최근에서야 외국 취업자와 유학생이 증가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진 나라지만, 여전히 한국에게는 낯선 나라이다. 최근에는 <김태희가 소 몰고 한가인이 밭 가는 나라>라는 TV 프로그램의 유행어로 ‘우크라이나’와 ‘우즈벡’을 혼동하며 우즈벡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만나곤



팽주만

타슈켄트한국교육원
원장

한다.

그러나 우즈베크는 대한민국을 낯선 나라가 아닌 '성실한 민족의 의리가 있는 따뜻한 나라', '본받고 싶은 나라'로 모든 국민이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조금 과장된 평가를 하고 싶다. 이는 1937년 일제 강점기 때 스탈린의 '강제 이주'정책에 의해 만주별판에서 이곳 우즈베크로 정착한 고려인의 성실함이 한몫했을 것이다. 각종 역사서에는 당시 강제 이주 과정 중에서 9천 명에서 2만 5천 명이 사망했으리라 추정하면서 17만 명에서 20만 명에 이르는 고려인이 낯선 땅 중앙아시아에 분산되었다고 한다. 어디로 향하는지를 모르는 끊임없는 기차길에 의지하며 내린 곳이 고려인의 제2의 조국이 되었다. 이런 배경하에 우즈베크에는 약 19만 명의 고려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다. 우즈베크에 정착한 이들 고려인은 그들이 가진 성실함과 도전 정신으로 나라의 농업혁명을 일으켰고, 국가의 성장을 견인하는 성실한 민족으로 자리매김 했고, 이들이 대한민국을 알리는 초석을 다졌다.

다음으로는 어려움에 있는 우즈베크에 손을 내밀어 준 우리 기업의 영향이 있다. 1991년 소련의 해체로 독립한 나라들은 각자의 삶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농업사회 중심이었던 우즈베크에 중앙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대한민국 대우자동차 현지 공장이 설치된다. 대우자동차 설립으로 알려지게 된 'KOREYA'라는 이름은 우즈베크이 다시 일어설 희망과 미래를 주게 되었다. 대우자동차 현지 공장 준공식 날이 현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정도였다는 것은 당시 그 의미가 국가적으로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다. 우즈베크에 느끼는 한국은 희망의 국가이고 국민에게 꿈을 준 따뜻한 국가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형성된 한-우 경제적 교류의 확대, 한류 문화의 폭발적 영향 등은 우즈베크에서 또 다른 한국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다.

함께한 인연, 함께 할 동행

우리에게 여전히 낯선 나라이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대한민국의 위상은 상당히 높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는 어려운 나라를 돕게 되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전은, 우즈베크이 닳고 싶은 미래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그러하기에 한국을 '알고 배우기' 위한 현지의 다양한 노력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 우즈벡 국민이 가장 먼저 다가가는 것은 ‘한국어 배우기’이다. 이들에게 한국어는 개인적 이유를 넘어 사회적으로 희망을 주는 언어로 자리매김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현지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한국어를 보급하는 중심에는 타슈켄트한국교육원이 자리 잡고 있다.

2022년 5월은 타슈켄트한국교육원이 우즈벡에서 개원한 지 30년이 되는 해였다. 타슈켄트한국교육원은 우즈벡이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1991년 한국과 우즈벡의 문화교류 협정 체결에 따라 설립이 확정되었고, 이듬해인 1992년 5월 27일에 정식개원했다. 사람의 나이도 30세가 되면 기초가 확고해져서 독립해야 하는 시기(而立)라고 하는데, 타슈켄트한국교육원도 이립(而立)의 시기를 넘어 앞으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성인이 되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했다. 지금까지의 달려온 많은 시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을 보냈다.

타슈켄트한국교육원은 한국어 보급 중심 기관으로 노력을 충실히 다져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룬 성과들이 차곡 차곡 쌓이면서 지금의 위상을 가질 수 있었다. 현지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주었던 대한민국 교육부와 우즈벡 정부, 교실에서 한국어를 알려주기 위해 배움·연구를 실천해주신 현지 대학 등 교육기관과 소속 한국어 선생님들 그리고 한국어를 사랑하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했던 우즈벡의 국민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위상이 가능했다. 이들과 함께한 노력이 낳은 땅 우즈벡에서 타슈켄트한국교육원이 한국어 보급의 길을 순탄하게 걸을 수 있는 이유라고 본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성과를 토대로 이제는 한국어 보급의 양적 확산을 넘어 양질의 한국어 교육 보급에 앞장설 필요성을 느낀다. 이러한 발걸음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과 같이 한국교육원 혼자 걷는 것이 아닌 여럿이 함께 걸어갈 것이다. 지금까지 맺어온 우즈벡의 따뜻한 한국어 인연이 앞으로의 한국어 보급을 위한 든든한 동행이 될 것을 우리(한국-우즈벡)는 서로 다짐했고 지금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다.





앞날을 약속하는 선도학교 수여식(30주년 행사)



단위 학교의 한국어 교육 홍보 부스(30주년 행사)

“살아가는 데 최고의 자산은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러한 믿음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만남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를 한국어 교육과 연계하여 실천하기 위해 타슈켄트한국교육원은 지금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어 보급이라는 성과와 목적을 직접적으로 알리고 실천하기보다는 만남을 통해 양국의 교육이 서로를 더 알고 배우는 기회의 폭을 넓힘으로써 한국어 교육이 자연스럽게 퍼지며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인류가 지향하는 진정한 우정과 협력 그리고 동반 성장을 가져오는 국제사회에 훌륭한 협력 모델이 될 것이다.

하나, 만남이 가져온 덤

양국 학생 및 교사 등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와 동반 성장의 기회를 확산할 수 있는 자매결연 사업을 확대하였다. 자매결연 사업은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교육원은 자매결연의 성과를 관리하면서 내실 있는 관계의 형성·발전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관 간 가교 사업을 진행하였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한국의 시·도교육청(학교 포함) 및 대학교를 대상으로 자매결연 의지가 있는 기관 모집 공고를 했으며, 동시에 우즈벡 학교에도 학교의 의지를 묻는 같은 절차를 진행하였다. 각 기관은 한국교육원이 학교 간 자매결연 가교를 진행하는 것을 낯설어하면서도 교류를 위한 기대를 품고 많은 기관이 지원하였다. 2022년도에는 양국에 각 25개 학교가 연결되었다. 기관 간 교류의 내용과 방식은 다양했다. 학생 동아리식 운영, 특정 주제에 관한 탐구 운영, 시·도교육청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 콘퍼런스 운영, 현지를 방문

하여 학교 수업 관찰 및 협력 다짐 등의 모습이 나타났다. 교류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소통 여건을 마련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놀라운 교류와 활동이 진행되었다. 활동 자체가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올바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아가 인간 존중, 배려, 평화 등 세계 시민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다.

우리는 국가별로 차별화된 지원을 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우즈베크 학교에는 만남과 소통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 여건을 지원하는 데 집중했으며, 한국 학교에는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통역과 서로 다른 문화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안내를 지원했다. 더불어 학교 간 교류 이외에 한국의 시·도교육청도 학교 간 국제교류를 지원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내실 있는 자매결연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지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이 교육 간 만남과 소통에 동참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과도 만남과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에 참여할 예정이다.

작년의 경험을 살려 올해는 다양한 형태의 자매결연 가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2년도 연결된 자매결연 학교 이외 23개의 학교가 추가로 자매결연 활동에 함께하고 있다. 인적·물적 교류에서 끝나는 단순한 교류가 아닌,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교환하고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 본연의 가치에 접근하면서 자매결연 가교 사업이 한발 더 나아가려 하고 있다.

코로나 19 이후로 사람 간 만남의 소중한 가치를 알게 된 학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매결연 가교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한국교육원도 학생, 교사, 교육행정가 간 소중한 만남이 지속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만남이 강화될수록 한국어 교육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 만남이 주는 상상 이상의 변화

우리 한국교육원은 주재국의 교육 성장을 도모하고, 교실 수업 모델 마련에 한국어 교육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즈베크는 지금의 시기를 경제성장 및 사회 발전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해외 제도 도입, 자유시장경제 확대, 외국어 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즉각적 효과가 나타나는

경제 부문에서는 그 활동이 남다르다. 해외 기업 투자 유도, 무상 원조 유치, 국제 대회 개최 등 경제 교역이 강화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교육 분야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투자 및 정책적 지원은 다른 정책 결정보다 우선순위가 밀려보인다. 교육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재원 부족이라는 현실의 문제가 주재국 정부의 과감한 교육투자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보였다. 이에 우리 한국교육원은 현지 학교에 한국어 교육을 보급하기 위해 한국어 교원에게 인건비 성격의 수당 지급, 한국어 교실 환경 개선, 한국어 교과서 개발·보급, 한국어 교사 양성 및 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주로 예산이 수반된 물적 지원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어 양적 확산에 치중하고 있으면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는 상대적으로 부족함이 있었다.

이제는 고기를 잡아주는 것에서 벗어나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 형태와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한국어 교사들이 주재국의 교실 수업 분위기를 혁신하여 현지 교육 개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도록 한국어 교실 수업의 질적 제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는 한국어 과목을 중심으로 이론적 강의와 제한된 실습으로 진행되었다. 과거 우리나라의 산업화 시기의 대량 교육 방법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교육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끌어낼 역량 제고 연수 방식 적용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수한 대한민국의 현직 교원을 초청해서 우즈베크 한국어 수업을 지원하는 '수업 지원단'을 운영하는 신선한 도전이 대표적이다. 9명으로 구성된 한국 수업 지원단은 한국어 교육 전공자가 없었다. 9명의 선생님도 '우린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공유할 수 있지?'라는 의문을 가지면서도 '같은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 무엇인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사업에 참여한 듯 보였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교실 수업의 소중한 경험을 우즈베크 선생님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경험과 생각의 공유가 현지 한국어 선생님들의 수업을 풍성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천한 이러한 연수 방향은 우즈베크 한국어 수업 수준을 높이는 데 적중했다. 우즈베크 한국어 교사들은 수업을 구성하기 위한 고민 과정을 배웠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례를 직접 몸으로 익혔으며, 교사의 자존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어 교사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세밀한 접근은 주재국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인재 양성 중심에 한국어 교사가 자리하고 있음을 기대하기에도 충분했다.

이러한 살아 숨 쉬는 현장 중심 수업의 공유 활동은 당시의 연수 기간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분기별로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한국어를 수단으로 교육에 대한 고민과 성장을 양국 교사가 공유하고 있다.

올해는 더욱 확대된 연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잠깐 만나는 사업 위주의 행사가 아니라 지속된 만남 유지를 위해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 혼합된 연수를 하반기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만남이 있는 연수는 분명히 우즈벡 교육 성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상상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그 저변에는 한국어 교육이 우즈벡 교육에 중심에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즈벡 수업제고를 위한 한국 수업 지원단 개강식



한국 교사와 우즈벡 교사의 만남(수업 지원단 연수)

셋, 한국어 교육은 언어교육을 넘어선 꿈을 주는 교육

“한국어 교육의 최종 목표는 한국어를 배워서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고 우즈벡의 성장을 이끌어 가는 한국형 인재가 양성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필자가 한국어 채택학교 교장단 워크숍에서 했던 말이다. 한국어 교육이 언어를 배우는 과목이라는 기능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즈벡 교육 성장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개인에게는 삶을 살아가는 힘을 키워주는 과목으로 인식해주기를 바라는 말이었다. 한국어 교육에 학교 관리자의 통합적 접근과 인식은 교실에서 진행되는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양한 과목을 편성 운영해야 하는 학교 차원에서 한국어 과목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 관리자와 한국교육원이 서로 협력한다면 학교 교육력 제고와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라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한국교육원이 자매결연 사업을 통해 해당 학교의 한국어 교육 질 제고와 물적·인적 지원을 지원하고 해당 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실 수업 여건을 개선하며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가질 것이다. 성장한 인재는 한국 대학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으며 자국의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흐름이 형성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우즈베크의 교육 교류가 지향하는 바 아닐까 싶다.


현재는 68개의 한국어 채택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학교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제2외국어 또는 방과 후 과정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우즈베크 정부와 제도적 협력을 통해 21개 학교가 더 확대될 예정이고 2025년까지 165개 학교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어 교육의 현장 보급 속도가 급격하게 진행되지만, 숫자의 증가와 더불어 언어교육을 넘어선 한국형 우수 교육이 제대로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는 한국어 교육을 넘어서 우수한 한국교육의 실천적 경험 공유가 개인과 사회에 꿈과 희망이 되는 교육이 되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한국어, 新실크로드의 역사를 쓰며

누구나 알다시피 과거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물류, 문화의 통로였고, 그 길을 통해서 동방과 서방의 많은 문물의 교역이 이어지며 서로의 문화 발전을 촉진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지금은 유럽과 아시아의 무역, 문명교류의 상징적 의미로 '실크로드'라는 명칭이 불린다.

최근 한류 문화를 세계인이 반기며 즐기는 모습을 방송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곳에서의 분위기도 별반 다르지 않다. <겨울연가>, <대장금> 등의 인기로 시작한 중앙아시아의 한류는 드라마, 음악뿐 아니라 K-푸드, K-의료, K-뷰티 등 모든 분야로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영향은 현지인이 한국어를 배울 동기와 용기를 충분히 자극하고 있다. 즉 다른 나라에서 만나는 한국이다.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즐기며 인류가 지향하는 가치를 만나고 공유하는 시간 속에 타슈켄트한국교육원이 우즈베크에서 새로운 한국어 실크로드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하반기에는 한국어 교육연수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전 세계 한국교육원 가운데 유일한 낮선 도전일 것이다. 한국어 교육에 소외되는 지방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이 도전이 알찬 성과를 이뤄 다른 한국교육원의 롤모델이 되길 바라는 욕심도 가져본다. 나아가 일시적인 기구가 아닌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유학지원센터를 내부 조직으로 신설하여 현지 학생들의 한국 유학에 안전한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 그 외에 우리 한국교육원의 다양한 실험과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해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 위에서 현지 정부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학생과 교사가 함께 배우고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교육으로, 알려주는 교육에서 스스로 배우고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어 보급을 넘어선 한국어로 서로가 연결되는 놀라운 한국어 실크로드가 개척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필자 소개

중등 사회과 교사로 교직을 시작했다. 아이들과 함께한 소중한 인연을 갖고 교육부 교육전문직에 몸을 담았다. 대입제도과, 학교안전총괄과, 교과서기획과, 학교생활문화과 등 초·중등분야에서 정책 기획 및 집행 업무를 수행했다. 지금은 타슈켄트한국교육원의 24명의 직원들과 함께 한국의 높은 위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과서의 전환, 브리태니커식에서 위키피디아식으로



양효준

경기 선행초등학교
교사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는 모든 것이 있다.”

1768년 브리태니커 백과사전(Encyclopædia Britannica)을 처음으로 발간한 이후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한 번쯤은 브리태니커 사전을 사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1974년, 4천여 명의 학자들이 참여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마지막 15판의 표제어(정보 및 지식)는 약 12만 개에 달했다. 그러나 위키피디아(Wikipedia)가 등장하면서 200년 넘게 지식의 왕좌에서 군림했던 브리태니커 사전의 사용자들은 점차 줄어들었다. 브리태니커 사전의 판매량은 급감했고, 결국 2012년에 절판됐다. 이는 사람들이 사전을 사용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고, 지식을 생성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음을 함축한다.

위키피디아는 각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전을 사용하는 일반인이 참여하여 표제어를 만든다. 2001년 1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위키피디아는 20년 만

에 5,500만 개의 표제어를 탑재했고, 1초마다 전 세계 사용자들은 8,000회 이상 위키피디아의 자료를 읽고 있다(위키피디아 재단, 2021). 위키피디아에서는 사용자라면 누구나 표제어를 등록하고, 기존의 표제어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그 결과 위키피디아에 등록된 표제어는 빠르게 팽창하였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전을 사용하면서 활용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사전에서 설명하는 표제어에 관한 내용이 정교해지면서 신뢰성도 높아졌다. 위키피디아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과학 분야 표제어의 오류 비율을 비교한 연구에서 두 사전의 오류 비율이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결과(Giles, 2005)가 이를 방증한다.

사용자들은 왜 브리태니커 사전에서 위키피디아로 이동하는가?

브리태니커 사전과 위키피디아는 모두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지식을 담고 있다. 그러나 브리태니커 사전은 전문가의 오류 검증 과정을 거쳐 정확한 지식을 담는다면, 위키피디아는 어떤 사용자가 등록한 표제어에 후속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이를 수정해가며 점점 더 실용적인 지식으로 만들어 간다. 즉 브리태니커 사전은 오류 없는 지식 제공에 초점을, 위키피디아는 사용할 수 있고 실제적인 지식 생성에 중점을 둔다. 전문가가 지식을 창조하는 권한을 독점하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개인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기존 지식을 응용하거나 새로운 지식으로 창조해서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사용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전 사용자들은 브리태니커 사전에서 제공하는 지식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 지식의 생성 가능한 공간인 위키피디아로 이동한 것이다.

지식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브리태니커 사전에서 내용 오류는 치명적 결함으로 보지만, 위키피디아에서 오류 문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이러한 오류는 사전 사용자들이 지식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필터링된다. 위키피디아가 별도로 표제어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더라도 위키피디아의 표제어는 자연스럽게 보완·수정·삭제된다. 이처럼 브리태니커 사전과 달리 위키피디아에서 하나의 표제어는 후속해서 새로운 지식이 탄생하기도 하며, 기존의 지식이 새로운 지식으로 탈바꿈하기도 하고, 지식이 소멸되기도 한다. 즉 위키피디아는 지식 생성의 공간이다.

브리태니커 사전 사용자들이 위키피디아로 이동하는 현상은 교과서 개발과 인식 변화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브리태니커 사전과 교과서의 개발 방식은 유사하다. 첫째, 브리태니커 사전과 교과서 둘 다 다수의 저자(개발자 혹은 집필자)가 참여한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브리태니커 사전을 개발하듯이 교과 전문가, 교사, 심의자, 편집자 등이 참여하여 교과서를 개발한다. 둘째, 브리태니커 사전과 교과서는 오류 없는 지식을 담는다. 브리태니커 사전이 전통적으로 오류 없는 지식을 지향하듯이, 교과서는 개발과정에서 공개 검토는 물론 개발 후에서 해마다 의견 수렴 및 개정을 통해서 오류 없는 지식을 담는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브리태니커 사전과 교과서의 개발자와 사용자가 철저히 구별된다는 점이다. 브리태니커 사전과 교과서 개발자는 기존의 것을 개정하든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하지만, 사용자는 개발된 결과물으로써 브리태니커 사전과 교과서를 사용할 뿐이다. 이처럼 교과서 개발은 ‘브리태니커식’이었다.

그럼 ‘위키피디아식’ 교과서 개발이란 어떤 것인가?

무엇보다 첫째, 교과서 사용자도 교과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이전의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도 교과서 사용자가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이는 일부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개발한 교과서를 검토하는 수준이었다. 교과서 개발과정에 교과서 사용자는 교과서 개발자를 돕는 도구적 위치나 존재로서 완성도 높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소극적으로 참여할 뿐이다. 그러나 위키피디아식 교과서 개발에서는 사용자라면 누구나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다. 위키피디아에서 사용자들도 표제어를 등재하고, 정련·창조하는 과정에 개입하듯이, 위키피디아식 교과서 개발에서는 교과서 사용자, 특히 교사나 학생은 자신이 가르치고 혹은 배우는 내용으로 교과서 지면을 구성한다. 교과서 사용자를 교과서 개발 주체로 세우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이미 도입하고 있고, 서책형 교과서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교과서에서 교과 지식을 넘어서 생활 지식까지 다룰 수 있다.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다루는 지식은 브리태니커의 표제어처럼 전문가들이 검증하거나 합의한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식이었다. 그러나 위키피디아에서는 전문가들이 검증한 객관적인 지식외에도 사용자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지식도 표제어로 삼을 수 있는 지식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AFP 통신은 한국의 ‘얼죽아(Eoljukah,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현상을 보도했다. ‘얼죽아’는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문화와 긴 문장의 앞글자를 따 줄여 말하는 문화가 합쳐져 탄생한 신조어로, 위키피디아에서는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문화로서 ‘얼죽아’를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위키피디아에서는 공적 지식 뿐만 아니라 생활(삶이나 일)의 영역에서 살아 있는 지식까지 표제어로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사실 이미 교과서에서도 학생들이 생활하는 영역의 정보나 지식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이야기 형태의 지식, 할아버지께 들었을 법한 이야기, 학생이 주말에 경험한 이야기 등이 있다. 이제 교과서도 교과 지식을 넘어서 생활 영역의 지식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지식 전달을 넘어서, 사용자가 지식을 사용하면서 사용자가 지식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서 이 과정에서 사용자 개인에게 의미 있는 지식으로 재탄생한 지식을 다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브리태니커식 교과서 개발에서 위키피디아식 교과서 개발로 이동하는 모습은 산발적이긴 하지만, 여기저기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교사와 학생이 필요하고 원하는 차시를 교실에서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통합교과 교과서의 구성 차시(blank lesson), 국어 교과서의 독서 단원, 과학 교과서의 탐구 단원, 도덕 교과서의 우리가 만드는 수업 등이 대표적인 위키피디아식 교과서 모습이다.

비록 교과서는 위키피디아처럼 새로운 표제어를 생성할 수 있는 하얀 도화지는 아니지만, 사용자가 직접 채워 넣을 수 있는 여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과서의 여백에는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기존의 교과 지식을 접하는 과정에서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 싶거나 우연히 알게 된 것들을 다채롭게 표현하고 담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시대는 교과서가 교실에서 지식을 창조해 볼 수 있는 공간이기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도 그리고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미래에는 누구나 기존 지식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자기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 지식이나 방법론, 즉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교육과정 자율화, 학생 주체성을 떠올려 보았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브리태니커식에서 위키피디아식 교과서를 상상하고 이를 구현하는 데 아이디어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참고 문헌

- AFP(2023). Coffee so cold it's hot: South Korea's love of iced Americano,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30210-coffee-so-cold-it-s-hot-south-korea-s-love-of-iced-americano>. 인터넷 신문기사(2023. 7. 25.접속)
- Jim Giles(2005). Internet encyclopaedias go head to head. *Nature*, 38, 900-901.
- 위키피디아(2023).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위키백과>. (2023.7.25. 접속).
- 위키피디아 재단(2021). <https://wikimediafoundation.org/wikipedia20/>.

필자 소개

10년 차 초등교사이다.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과정 중이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통합교과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다. 관심 분야는 교육과정 개발, 교사교육과정 등이다.

남북 겨레말의 이질화와 <겨레말큰사전> 편찬의 필요성



남북이 분단된 지 78년의 세월이 흘렀다. 남북한의 겨레가 만날 때 겉으로는 소통하고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불통하고 오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우선 탈북 동포들이 한국에 오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각종 정치, 경제, 행정, 사법, 사회, 언론, 문화 제도상의 언어 차이를 실감하게 된다.

아울러 외래어와 로마자 표기 간판이 거리와 신문 방송에서 넘쳐나 이들을 이해 소통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탈북 청소년들은 탈북 후 중국 등 제3국에서 오래 지내온 경우에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해 한국에 와서도 한국의 공교육을 따라가기 어려워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에서 배우고 검정고시를 거쳐 중학교나 대학 진학과 취업의 길로 나아가기도 한다.

남북이 한국어를 공동으로 쓰지만, 남북언어의 이질화 상태를 무시할 수도 없어 우리는 남북언어의 이질화 양상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이해할 수 있어



민현식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

야 한다. 북한어 이해 교육이 우리의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도입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의 북한어 이해 노력이 깊어질수록 통일의 자신감도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남북 교과서의 차이를 보면 교과목이나 내용과 교과 학술용어 면에서도 다음과 같이 상당한 차이가 나기에 남북 청소년의 소통도 쉽지 않다.

[남/북] 교장과 교감/교장과 부교장. 조회와 종례/조회와 총화. 수업 빼먹다(땡땡이 치다)/뚜꺼먹다. 영재교육/수재교육. 볼펜/원주필(圓珠筆). 파스텔/그림분필. 멜로디언/입풍금. 스케치북/도화책. 탬버린/탐부린. 트라이앵글/삼각철(또는 세모종). 스카치테이프/붙임띠. 격조사/격토. 종결어미/맺음토. 동의어/뜻같은말. 동음이의어/소리같은말. 두제곰근/두제곰뿌리. 막대그래프/기동도표. 정사각형/바른사각형. 코사인/코시누스. 컴퓨터/콤퓨터. 알고리즘/알고리듬. 바이러스/비루스. 데이터/자료. 데이터베이스/자료기지. 포맷/서식화.

분명히 남북한은 동족이라서 ‘너와 나, 먹다, 가다, 밥, 공부, 아름답다...’ 등등 공통어의 자산이 더 많다고 보기에 이질화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두려워할 것은 없다. 그러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기에 냉철한 머리로 학습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다음은 북한 자료에서 나온 표현들인데 이해할 수 없는 낱말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자. (예: 북한어 → 남한어)

누이는 **인차 동자질**을 하는 모양으로 자주 **정지문**을 열고 바깥으로 드나들었다. => 인차 → 이내. 동자질 → 부엌일. 정지문 → 부엌문.

언제 동자질한 뒤끝인지 **가시대** 안에는 가시지 않은 어지러운 음식찌꺼들이 붙은 사발, 접시 몇 개가 쌓여있다. => 가시대 → 개수대, 싱크대

가스곤로 우의 차주전자가 달랑달랑 소리를 내며 끓고 주전자 아구리에서는 김이 물물 피며 올랐다. => 가스곤로 → 가스레인지

중년남성들의 **갑작죽음**이 커다란 사회적화제거리로 되고 있다. => 갑작죽음 → 돌연사

겨울나이남새는 낮은 온도에 견디는 힘이 세다. => 겨울나이남새 → 월동채소

그들은 계단을 내려 **걸음길**로 들어섰다. => 걸음길 → 보도(步道), 인도(人道)

위 사례처럼 남북언어의 차이는 방언, 외래어, 순화어 사례에서 곳곳에 이질적 요소가 나타나는데 (1) 표현의 이질화와 (2) 표기의 이질화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표현의 이질화의 주요 영역을 정리해 보면 체제 이념의 차이, 순화어 차이, 생활 표현의 차이, 방언의 차이가 대표적인 영역이라 하겠다.

표 1 — 남북언어 ‘표현의 이질화’의 주요 영역

	남한	북한	남한	북한
체제 이념 차이	한반도	조선반도	법원, 교도소	재판소, 교화소
	대통령, 국회	국무위원장, 최고인민회의	경찰청, 경찰서 소방서	보안성, 보안서 소방대
	삼일절	삼일인민봉기의 날	스승의 날(5.15)	교육절(9.5)
	한글날	훈민정음창제일	제헌절(7.17)	헌법절(12.27)
순화어 차이	매스게임, 포스터	집단체조, 선전화	양궁, 퇴비	활쏘기, 풀거름
	아이스하키, 아웃, 해저터널, 다이어트	빙상호케이, 실격, 물밀굴, 살까기	비치발리볼, 프라이팬, 파마	모래터배구, 지짐판, 볶음머리
생활 표현 차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위바위보	새해를 축하합니다, 돌가위보(돌가보, 가위주먹)	별일없다, 거저먹다, 넘자답다	일없다, 공먹다, 넘자싸다
	비밀번호	통과암호	흡연실	담배칸
방언 차이	누룽지, 눌은밥	가마치	거위	게사니
	상추	부루	마구	망탕
	해코지	남잡이	맷돌	망
	빨리, 이제	날래, 인차	하세요(명령) 하시지요(청유)	하라요 하자요

다음으로는 남북언어 표기에서 외래어, 발음, 사잇소리, 두음법칙, 띄어쓰기 등의 표기에서 극심하게 이질화를 보여 준다. 공교롭게도 한국의 표기법에서 까다롭게 느껴 혼란스러운 비규범어일수록 북측에서는 규범어로 인정하는 것들이 많아 남북은 서로 다른 문법과 표기법(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 외래어 표기, 로마자 표기)의 통일 작업부터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다음 도표는 남북한 표기의 차이로 인한 이질화 유형을 나누어 본 것이다.

표 2 — 남북언어 ‘표기의 이질화’의 주요 영역

	남한	북한	남한	북한
외래어	초콜릿, 가스레인지	초콜레트, 가스곤로	비시지(BCG) 접종	비씨취접종
	고딕, 컵, 뷔페	고지크, 고뿌, 부페트	냅킨, 왈츠	내프킨, 왈쯔
	도넛, 매스컴	도나트, 매스콤	릴레이, 에너지	리레, 에네르기
	알코올, 튜브	알쿨, 쥬브	마이너스, 플래시	미누스, 플라쉬
	미얀마, 시리아, 스웨덴, 헝가리	만마, 수리아, 스웨리에, 마자르(또는 뎡그리아)	러시아, 덴마크, 이집트	로씨야, 단마르크, 예집트
모음	화폐, 겹연쩍다 -는구나, -는구먼	화폐, 게면쩍다 -는고나, -는구만	핑계, 괴팍스럽다 귀감(龜鑑)	핑계, 괴팍스럽다, 구감(龜鑑)
된소리	잠간, 곱배기	잠간, 곱배기	눈썹	눈섭
	빛갈, 색갈	빛갈, 색갈	멋쩍다, 족두리	멋척다, 족두리/쪽두리
	일꾼, 짐꾼, 지게꾼	일군, 짐군, 지게군	-ㄹ까, -ㄹ쏘냐	-ㄹ가, -ㄹ소냐
어미	띄어쓰기	띄여쓰기	태어나다, 되어	태여나다, 되여
파생어	무뚝뚝이	무뚝뚝히	겉쪽히	겉죽이
	곰곰이	곰곰히	엉거주춤히	엉거주춤이
	거북이	거부기	넋두리	넉두리
	얼루기	얼룩이	옹알이	옹아리
	설거지	설겅이	넌따랄다	넌다랄다
합성어	덧니, 사랑니	덧이, 사랑이	갓난아기	간난애기
	곤란, 꺾련	곤난, 권연	위쪽, 웃어른	웃쪽, 웃어른
	굴젓	구젓	검부나무	검불나무
사잇소리	범씨	벼씨	수돼지, 암돼지 수개, 암개	수돼지, 암돼지 수개, 암개
모음동화	냄비	남비	가자미, 지팡이	가재미, 지팽이
사이시옷	바닷가, 냇가, 뒷방, 꽃노래, 훈жат말	바다가, 내가, 뒤방, 코노래, 훈자말	차집, 진돗개, 호숫가	차집, 진도개, 호수가
두음법칙	노동, 노골적, 노인	로동, 로골적, 로인	규율, 미사여구, 여성, 양심	규률, 미사려구, 녀성, 량심
ㄸ불규칙	아까워	아까와, 아까워[복수인정]	줍다	쭏다
ㅎ불규칙	시퍼레지다	시퍼래지다	허예지다	허애지다
띄어쓰기	할 수 있을 것이다	할수 있을것이다	우리나라	우리 나라

이상과 같은 남북언어의 이질화를 극복하고 동질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노력이 2004년부터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인 2004년 어문학자들이 금강산에서 첫 접촉을 갖고 2005년 2월 협약서를 맺어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남북한 및 해외 한민족 공동체의 언어 유산을 집대성해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자고 하였고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법률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어 통일부 공직 유관단체가 되었다.

이 사업은 2005~2015년까지 서울, 평양, 개성, 금강산, 중국 등지에서 25회에 걸쳐 양측 편찬위원들이 한 주일씩 숙박하며 공동작업을 하였다. 30여만 개 올림말(표제어)을 선정하였고 2015년까지 40%의 낱말 풀이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2016년부터 북핵 사태로 북측이 교류사업에 응하지 않아 양측의 교류는 멈추었고 우리는 북측과의 재회를 기다리며 추가 협의용 낱말의 집필을 완료하였고, 2021년에는 1질 10권 규모의 가제본을 남북협의를 자료로 완성하였다.

사람들은 체제와 이념이 다른 이질어, 가령 ‘대통령, 동무’ 등은 어떻게 선정해 뜻풀이해 올릴 것인지 궁금해한다. ‘대통령’을 남북 사전에서 비교해 보면 우리의 〈표준국어대사전〉(2008)에서는 이념적 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으나,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증보판, 2017)에서는 “제국주의 독재자”로 부정적으로 풀이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2008), 우리말샘(2016)]

대통령 [대:통녕] (大統領) 「명사」 『법률』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 행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경우와 형식적인 권한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자에 속한다.

[조선말대사전(증보판, 2017)]

대통령(大統領) [명] 일련의 국가들에서 국가기관체계에서의 최고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국가와 정부를 동시에 대표하고 법적으로 광범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제국주의국가에서의 대통령은 독점재벌들의 정치적 이익과 부르조아 독재를 옹호하는 반인민 통치자이다.

따라서 〈겨레말큰사전〉은 남북한 뜻풀이의 공통요소를 종합하되 “제국주의국가에서는... 반인민적통치자이다.” 부분과 같은 이념적 뜻풀이만 삭제해 풀이하면 통합 기술에 어려움이 없다. ‘벗, 친구’를 뜻하는 ‘동무’도 북한에서는 “혁명 동지”의 뜻이 이념적으

로 개입되어 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그런 의미를 『북한어』 의미라고 별도로 처리하였고, <겨레말큰사전>도 이런 접근으로 처리할 것이라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표준국어대사전(2008)/우리말샘(2016)]

동무1 「명사」 「1」 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

「2」 어떤 일을 짝이 되어 함께 하는 사람.

「3」 『광업』 한 덕대 아래에서 광석을 파는 일꾼.

「4」 『북한어』 혁명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사람을 친근하게 이르는 말.

「5」 『북한어』 일반적으로 남을 친근하게 부르는 말.

[조선말대사전(증보, 2017)]

동무 ① 《혁명대오에서 함께 싸우는 사람》을 친근하게 이르는 말.


② 같이 어울리어 사귀는 사람. || 고향~.

③ 일반적으로 남을 무관하게 부를 때에 쓰는 말. | 이 책이 동무의것이 아닙니까?

글~. 길~. 말~. 밤~. 소꿉~. 송아지~. 어께~.

그동안 <겨레말큰사전>에 적용할 어문규범과 품사 체계는 일차적으로 합의하였으나, 두음법칙, 사잇소리, 외래어 표기 등에서는 합의하지 못한 것이 많아 이들 문제를 더 만나 중점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앞으로는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전자겨레말큰사전>을 웹사전과 앱사전으로 개발해 대국민 서비스도 할 계획이다. 이미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스마트폰 앱 <남녘말 북녘말>을 제작 보급하였고 <겨레말 TV>도 운영하여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진행 경과와 사업회의 다양한 활동을 알리고 있다. 올해에는 남북 간 언어 차이를 보여 주는 3,000여 개의 낱말을 선정해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을 펴내기도 하였다.

언어 통계 정보 누리집인 ‘민족어 통계 누리집’(ethnologue.com) 자료(2021)를 보면 세계 7,000여 개 언어 중 5,000만 명 이상 쓰는 언어가 25개이고, 한국어는 20위에 이른다. 전 세계에서 문명어의 문자 역할을 하는 주요 문자는 알파벳, 한자, 아랍글자, 한글 등 20여 개에 불과하다. 우리가 한자 문명에 동화되지 않은 것도 한민족 고유의 한글 문명을 창출하고 한글문화로 문명을 퇴치해 나라를 지켜온 덕분이니 ‘한강의 기적’은 ‘기적의 한글’ 덕분이라 하겠다.

대한민국은 건국 후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높은 교육열 덕분에 문맹자가 거의 없는 나라가 됐다. 더욱이 한국이 10대 무역대국이 되고 한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어의 위상도 올라 한국어 사전의 용도가 더욱 중요해졌다. 미국 현대언어학회가 조사한 미국 대학생들의 외국어 수강 실태 조사에서도 한국어가 10위권에 들어섰기에 장차 나오게 될 〈전자겨레말큰사전〉은 해외 동포사회는 물론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에서도 사용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2019),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사전의 올림말 표기차이, 맵씨터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2023),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 태학사
 김민수 편(1997), 김정일 시대의 북한언어, 태학사
 리호경(2005), 조선 문화어 건설리론(조선어학전서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이관규(2021), 남북한 어문규범의 변천과 과제, 고려대출판문화원
 전수태(1992), 북한의 언어정책, 국립국어연구원
 정순기 외(2005), 조선로동당 언어정책사(조선어학전서 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최정후(2005), 주체의 언어리론(조선어학전서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최정후·김성근(2005), 조선어 규범 변천사(조선어학전서46),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누리집: <https://www.gyeongmal.or.kr/>

필자 소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학 전공(문학박사)을 하였다. 강릉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립국어원장, 한국어교육학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으로 있다.

비운의 정치개혁가 조광조



전근대 사회에서의 개혁은 주도권의 측면에서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 즉 군주 혹은 황제가 추진하는 개혁과 소수의 정치가가 추진하는 개혁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개혁적인 인물들은 많았다. 그중에 조선 전기, 16세기 초에 왕도정치를 바탕으로 개혁을 이끌었던 조광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어떤 인물이고 어떠한 활동을 펼쳤으며, 이에 관하여 한국사 교과서는 어떻게 기술하고 있을까.

우선 『조선왕조실록』에서 그의 활동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남궁원

서울고등학교
수석교사

자료 1. 조광조가 중용을 강하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사유(師儒)와 유생 등에게 강(講)을 시키니, 성균관 사성 김안국(金安國)이 『논어(論語)』를 강하여 ‘통(通)하고, 사예(司藝) 김윤온(金允溫)이 『시경(詩經)』을 강하여 ‘통’하고, 진사 조광조(趙光祖)는 『중용(中庸)』을 강하여 ‘약(略)하였다. 강이 파한 뒤에 안국과 윤온에게는 ‘각각 마장(馬裝) 한 벌씩 하사하라.’고 명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국가가 무오사화(戊午史禍)를 겪은 뒤부터 사람이 다 죽어 없어지고 경학(經學)이 씻은 듯이 없어지더니, 반정 뒤에 학자들이 차츰 일어나게 되었다. 조광조(趙光祖)는 소시에 김광필(金宏弼)에게 수학하여 성리(性理)를 깊이 연구하고 사문(斯文)을 떨쳐 일으키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으니, 학자들이 추대하여 사람의 영수가 되었다.¹⁾

1)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11월 15일 정묘 1번째기사(1510년 명 정덕(正德) 5년)

자료 2. 조광조 등을 천거하다

석강(夕講)에 나아갔다. 사경(司經) 황여헌(黃汝獻)이 아뢰기를,
 “위에서 명하여 쓸 만한 유생을 천거하게 하시었는데, 성균관(成均館)이 생원(生員) 조광조(趙光祖)·김석홍(金錫弘)·황택(黃澤) 등을 천거하였습니다. 이 몇 사람은 모두 학문과 조행(操行)이 없으니, 성상의 성심으로 구하시는 뜻에 부합하지 못할까 합니다. 조광조는 바야흐로 학문에 뜻을 두니 쓸 만하기는 합니다마는, 학문을 폐지하고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그 역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천거라는 것은 재주와 조행이 특이한 자를 뽑을 것이요, 범류(凡類)로 그 선에 충당함은 불가합니다.”²⁾

자료 3. 조광조를 논하다

주강에 나아갔다. 검토관 공서린(孔瑞麟)이 아뢰기를,
 “성균관이 천거한 유생 조광조(趙光祖)는 그 마음과 행실이 다른 사람보다 특이한 점이 있어서 특별히 천거(薦舉)를 받았으니, 이는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³⁾

자료 4. 전시에서 조광조를 뽑다

문과 전시(文科殿試)에서 유학(幼學) 장옥(張玉)·사지(司紙) 조광조(趙光祖) 등 15인을 뽑았다.⁴⁾

자료 5. 조광조가 아뢰다

정언(正言) 조광조(趙光祖)가 아뢰기를,
 “언로(言路)가 통하고 막히는 것은 국가에 가장 관계되어, 통하면 다스려지고 평안하며 막히면 어지러워지고 망하므로, 임금의 언로를 넓히기에 힘써서 위로 공경(公卿)·백집사(百執事)로부터 아래로 여항(閭巷)·시장(市井)의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말할 수 있게 하나, 언책(言責)이 없으면 스스로 말은 극진하게 할 수 없으므로 간관(諫官)을 두어 그 일을 맡게 하는 것이니, 그 말이 혹 지나치더라도 다 마음을 비워 놓고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것은 언로가 혹 막힐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하략)⁵⁾

위의 자료를 보면 조광조의 사람됨을 짐작할 수 있다. 조광조가 성균관 재학 시절 힘써 공부하였다는 내용(자료1)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후 국왕의 명을 받은 성균관의 추천을 받은 내용(자료 2) 등이 있다. 조선 시대 과거 시험인 문과에는 소과와 대과가 있

2)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3일 임오 3번째기사(1511년 명 정덕(正德) 6년)

3)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18일 정유 2번째기사(1511년 명 정덕(正德) 6년)

4)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8월 22일 병자 5번째기사(1515년 명 정덕(正德) 10년)

5) 중종실록 23권, 중종 10년 11월 22일 갑진 1번째기사(1515년 명 정덕(正德) 10년)

고, 소과는 생원과와 진사과를 나뉜다. 생원과에 합격하면 생원이 되고, 진사과에 합격하면 진사가 된다. 이들이 초급 관직에 나아갈 수도 있지만,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성균관에 들어가 높은 공부를 할 수도 있다. 소과 시험은 일종의 성균관 입학시험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자료 2와 자료 3을 보면 조광조가 성균관 유생으로서 매우 열심히 유학을 공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조선의 국립대학이라 할 수 있는 성균관의 교육과정은 크게 경사(經史)의 강의와 제술(製述)이 주를 이루었다. 당대의 학문적 경향이 성리학이었고, 성리학의 주된 경전이 4서(四書)이니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 주 텍스트가 되겠다. 게다가 이 경전은 적어도 조선 전기의 시기에 벌써 1500년 전에 편찬되었기에 당대의 시각에서 주해하는 것이 난감했을 것이며, 많은 이론을 낳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마침 중국 남송 시대 주희(주자)가 4서를 당대에 맞게 해석하였으니 이름하여 『사서집주』이며, 이것이 성리학의 학문으로 삼기는 유학자들이 읽고 암송해야 하는 일종의 바이블인 셈이다.

자료 3에 “유생 조광조(趙光祖)는 그 마음과 행실이 다른 사람보다 특이한 점이 있어서 특별히 천거(薦擧)”라는 구절은 매우 특이한 부분이다. 마음과 행실이 다르다는 것은 ‘특출나다’라는 것으로 타의 모범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미 빼어난 인물이며, 말과 행동이 바르고 정직하며, 곧은 사람으로 힘써 성리 철학은 공부하는 인물로 평가받았음을 알 수 있다.⁶⁾

사서의 핵심 경전이 『논어』 「안연」편에 이런 글이 있다.

齊景公問政於孔子。孔子對曰“君君，臣臣，父父，子子。”

제경공문정어공자. 공자대왈 “군군, 신신, 부부, 자자.”

公曰 “善哉! 信如君不君, 臣不臣, 父不父, 子不子, 雖有粟, 吾得而食諸?”

공왈 “선재! 신여군불군, 신불신, 부불부, 자부자, 수유속, 오득이식저?”

제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관하여 물었다. 공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비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

6) 남송의 주희가 집대성한 성리학은 우리나라에 고려 말에 안향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이체현과 정몽주, 이색 등을 거치며 정착되었다. 고려 말 신진 사대부의 중심 철학이나 유학 사상이 성리학이었으며, 이는 불교 비판의 근거이자 조선 왕조 개창의 사상적 바탕이 되었다.

다.”⁷⁾

제경공이 말하였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만일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아들이 아들답지 못하면, 곡식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성균관 유생인 조광조가 이 대목을 모르지 않았을 터이고, 젊은 혈기에 조선 건국 이후 정치의 흐름에 대하여 몰랐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조광조의 성균관 유생 시절 국왕 중종은 반정을 통하여 국왕으로 등극한⁸⁾ 인물이니 조광조도 시대의 흐름을 읽으며 자중하며 학문에 몰입하였을 것이다.

임금이 임금답다는 것, 즉 임금 노릇을 하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본분에 충실하는 것일 터이다. 학생의 본분이 학문하기라 한다면, 임금이 임금답다는 것은 천명(天命)을 받들어 어진 정치를 펼치고 온 백성을 보살피는 일이 아닐까? 중종 초기에 성균관 유생으로 학문을 연마하던 조광조는 폐군 연산군과 새로운 국왕인 중종을 비교하면서 성리학적 관점에서 예의주시하며 생각하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조광조의 삶을 더듬어보고자 한다.

조광조의 본관은 한양, 호는 정암이며, 조선 개국공신의 한 사람인 조온의 5대손이라 한다. 아버지는 조원강이고, 어머니는 여흥 민씨이며, 1482년에 태어났다. 태종의 부인이자 세종의 모친도 역시 여흥 민씨이니 당대의 세력 있는 집안 출신임을 알 수 있다. 15세기 말 아버지가 평안도 희천군 찰방⁹⁾으로 부임하여 그가 따라갔으며, 마침 1498년 무오사화가 일어나 희천으로 유배를 왔던 김굉필의 밑에서 학문을 배웠다고 한다. 이는 이후 조광조의 학문은 물론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연산군 집권 시기에 두 차례 사화(士禍)가 일어났다. 1498년 무오사화, 1504년 갑자사화이며, 두 차례에 걸친 사화로 매우 많은 선비가 목숨을 잃었으며, 특히 사림파 선비들이 크게 화를 입어 죽임을 당하였다. 이는 조광조의 학문과 정치 철학에 더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라 판단된다. 즉 임금다운 임금, 임금의 노릇을 제대로 하는

7) ‘군군신신부부자자’를 속자는 임금이 임금 노릇을 하고, 신하가 신하 노릇을 하고,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하고 아들이 아들 노릇을 하더라도 풀이하기도 한다. 전체적인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 필자는 위와 같이 풀이하고자 한다.

8) 1506년 성희안과 박원종 등이 이른바 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을 폐하고 새로운 국왕인 중종을 옹립하였는데 이를 중종반정이라 한다.

9) 조선 시대 각 역참(驛站)과 원(院) 등에 근무하며 해당 역로(驛路)와 역마(驛馬) 등을 관리하는 종6품 관원

임금을 생각하였을 것이다. 1506년 중종반정이 일어나 중종이 집권하면서 세상이 달라졌다.

중종 5년에 진사시에 급제하여 성균관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철저히 성리학적 가르침에 따른 생활과 언행을 중시하였다. 이런 그의 행동을 동료들은 ‘그 마음과 행실이 다른 사람보다 특이’하다고 하였으니, 그의 행동을 능히 짐작할 수 있겠다. 중종은 성균관에 명하여 경전을 강하도록 하였는데, 조광조가 중용을 강한 바 있으며, 훌륭한 유생을 천거하도록 하였을 때 성균관은 조광조를 추천하기도 하였다. 그의 학문적 높이와 깊이 및 인품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조광조는 1515년 중종 10년에 마침내 대과에 급제하여 본격적으로 정치 전면에 나섰다. 이 해 그의 나이가 서른셋이었다. 마침 이때 커다란 분란이 일어났다. 박상과 김정이라는 인물이 중종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단경왕후 신씨¹⁰⁾를 복위하자는 상소를 올리는 일이 벌어졌고, 이를 둘러싸고 조정이 나뉘었다. 박상과 김정을 탄핵하자는 입장과 변호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대립하였다. 탄핵을 주도하는 사헌부의 관료와 그 동조 세력은 ‘종묘와 사직이 언로(言路)보다 중요하다’라며 탄핵을 주장하였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상소는 신하된 자의 ‘신하 노릇’이기에 탄핵을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조광조는 당연히 탄핵 반대의 입장이었다. 여기에는 이전부터 대립해 왔던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의 갈등이 깔려 있다. 이른바 도학 정치, 왕도정치를 추구하는 사림 세력과 두 번에 걸친 정변에서 공을 세워 중앙의 고위직을 차지한 훈구 세력의 대립이 흐르고 있었다. 국왕을 중심으로 두 세력은 이미 두 차례의 사화로 불거졌으며, 사림 세력이 더 큰 피해를 본 바 있었다.

당시 조광조의 직분은 사간원 정언으로서 상소를 올려(자료 5) 삼사의 직분은 언론이기에 국왕에게 상소를 올릴 수 있으며, 고관이나 국왕의 정치에 대하여 간언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박상과 김정을 탄핵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언관으로서 상소를 올리는 것은 당연한 직분이며, 이는 국왕이 수용 여부를 판단하면 그만일 뿐이지, 구태여 이들을 처벌하자는 주장은 언로를 막는 매우 좋지 않은 것이라 하였다. 그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상소를 올린 박상과 김정을 탄핵하자는 주장을 펼친 사헌부와 사

10) 중종이 공식적으로 왕이 되기 전에 첫 번째 부인이 신씨 부인이었는데, 그녀의 고모가 연산군의 부인이었다. 연산군이 폐위되면서 중종의 부인인 신씨도 폐위되었다.

간원의 대간을 파직하라고까지 주장하였다.¹¹⁾

중종은 결국 대신들을 불러 의견을 듣고 마침내 대간 교체를 단행하였으며, 1516년에 조광조를 홍문관 부수찬을 거쳐 홍문관 수찬으로 임명하였다. 이어 박상과 김정을 복직시킴으로써 조광조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홍문관은 경연에 참여하여 국왕과 학문과 정치를 논하는 관청인 탓에 조광조의 정치적 활동이 높아졌다.

1518년 홍문관 부제학에 이른 조광조는 소격서를 혁파하였으며, 현량과 실시를 건의하여 현량과 실시의 윤휴를 얻어냈다.

조광조가 아뢰기를,

“시종(侍從)은 신중히 뽑아야 합니다. 삼시 경연(三時經筵)에 임금과 도의(道義)를 강론하게 되니, 부득이 학문이 풍부하고 덕기(德器)가 이루어진 자로 할 것이요, 문장이 불만하거나 문벌이 높은 자로만 할 수 없으며, 또 너무 미천한 초야의 인사도 할 수 없습니다. 출신한 자는 벌써 모두 고위(高位)에 있고, 아래는 그를 계승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 신의 생각에는 지금 이 사람을 뽑아 써야 될 때라고 봅니다.”

상(국왕, 중종)이 이르기를,

“천거한 사람을 과거 출신(科擧出身)의 예로 임용한다면, 전조(銓曹)는 반드시 인재가 없다는 걱정이 없을 것이다.”

조광조가 아뢰기를,

“이자(李紆)가 아뢴 말은 신 등이 늘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외방의 경우는 감사(監司)·수령(守令), 경중(京中)의 경우는 홍문관(弘文館)·육경(六卿)·대간(臺諫)이 모두 재행(才行)이 있어 임용할 만한 사람을 천거하여, 대정(大庭)에 모아 놓고 친히 대책(對策)하게 한다면 인물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조종이 하지 않았던 일이요, 한(漢)나라의 현량과(賢良科)·방정과(方正科)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 덕행(德行)은 여러 사람이 천거하는 바이므로 반드시 헛되거나 그릇되는 것이 없을 것이요, 또 대책에서 그가 하려고 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요, 두 가지가 모두 손실이 없을 것입니다.”¹²⁾

11) 조선 시대의 삼사관 사헌부, 사간원, 그리고 홍문관을 이르며, 이들은 간쟁과 간언을 통하여 국왕을 바른 길로 인도함은 물론 고관들의 정치 비위에도 흔들리지 않고 상소를 올렸던 직책이다. 나아가 이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대신으로 승진할 수 있었기에 이들을 청요직이라 불렀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봉당 정치가 가열되며 본래의 직분을 잃고 자신의 봉당만을 편드는 폐단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12) 중종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11일 경술 1번째기사 1518년 명 정덕(正德) 13년

반대가 극심하였지만, 조광조 등의 주장을 받아들인 중종은 1519년 현량과를 실시하였다. 중앙의 한성부와 삼사 등의 주요 부서는 물론 지방의 관찰사(유향소에서 수령에게, 수령이 관찰사에 추천함)가 후보자를 천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추천된 120명을 근정전에서 시험하여 최종 28명을 선발하였다.

폐위된 연산군을 이어 반정으로 즉위한 중종은 언로(言路)를 열고 조광조를 중용하여 깨끗하면서도 신권을 존중하는 정치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중종은 세조 이후에 시행된 6조 직계제를 바꾸어 세종 때에 시행되었던 의정부 서사제를 다시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는 분명 연산군과의 차별을 통한 유신 정치를 도입하려는 중종의 의도였다고 풀이된다. 신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하의 의견을 들어 이른바 바람직한 정치를 행하려 하였다. 여기에 신진 사류인 조광조라는 인물이 잘 들어맞은 셈이었다.

하지만 당대 조광조의 반대 세력도 만만치 않았다. 남곤, 심정, 홍경주 등은 늘 조광조 등의 신진 사류(이른바 사림 세력)에 불만이였다. 조광조와 현량과를 실시하고자 한 것도 사실은 지방에 있는 사림 세력을 중앙으로 끌어올리려는 조치로 바라보았다. 게다가 조광조 등이 추진하였던 일부 공신의 공훈을 삭제(위훈 삭제)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곤 등은 중종이 조광조 등의 개혁이 지나치게 과격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파악하고 중종에게 접근하여 조광조 일파를 처단하기로 모의(?)하였다.

영의정 정광필·남양군 홍경주·공조 판서 김전·예조 판서 남곤·우찬성 이장곤·호조 판서 고형산·화천군 심정·한성부 좌윤 손주 등이 아뢰기를,

“조광조 등을 보건대, 서로 봉당(朋黨)을 맺고서 저희에게 붙는 자는 천거하고 저희와 뜻이 다른 자는 배척하여, 성세(聲勢)로 서로 의지하여 권요(權要)의 자리를 차지하고, 위를 속이고 사정(私情)을 행사하되 꺼리지 않고, 후진을 유인하여 궤격(언행)이 정상을 벗어나고 격렬함)이 버릇이 되게 하여, 젊은 사람이 어른을 능멸하고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을 방해하여 국세(國勢)가 전도되고 조정이 날로 글러가게 하므로,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속으로 분개하고 한탄하는 마음을 품었으나 그 세력이 치열한 것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며, 측목(側目)(두려워서 바로 보지 못하고 곁눈으로 보는 것) 하고 다니며 중족(重足)(두려워서 활보하지 못하고 발을 포개 모아 서 있거나 발을 좁게 띠어 걸음)하고 섭니다. 사세가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한심하다 하겠습니까. 유사(有司)에 붙여 그 죄를 분명히 바루소서.”

하니, 임금에 이르기를,
“죄인에게 벌이 없을 수 없고 조정에서도 청하였으니, 빨리 정죄(定罪)하도록 하라.”

정광필이 아뢰기를,
“한 사람이 중의(衆意)를 모아서 죄안(罪案)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니, 임금에 이르기를,
“남곤이 좋겠다.”

정광필이 아뢰기를,
“누구를 우두머리로 합니까?”

하니, 임금에 이르기를,
“조광조를 우두머리로 하라.”¹³⁾

결국, 조광조 등의 신진 개혁 세력은 1519년 이른바 기묘사화의 해를 입었다. 이 해가 조광조의 나이 서른일곱이었다. 조광조는 성리학적 사상을 기반으로 도학 정치(왕도정치)를 꿈꾸었던 개혁가였다. 연산군의 폭정과는 다른 선한 정치를 행하도록 중종을 이끌려 하였으나 지나친 과단성은 반대파를 더욱 굳게 하였으며, 중종의 눈 밖으로 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조광조는 능주(전남 화순)에 유배된 뒤 사약을 받아 죽었다.

중종 27년 5월 12일 기사에 ‘기묘당여’라는 기록이 등장하고, 이를 설명하는 글에 다음과 같은 주석이 달려있다.

기묘사화(己卯士禍)에 연루된 사람을 지칭함. 기묘년 즉 중종 14년(1519)에 훈구파의 홍경주·남곤·심정 등이 경빈 박씨 등 후궁을 움직여 왕에게 신진 사류를 무함(誣陷)하게 하고 대궐 뜰 나뭇잎에 과일즙으로 ‘走肖爲王’이란 글자를 써 벌레가 갉아먹게 한 다음 궁녀를 시켜 그 잎을 따다가 왕에게 바쳐 의심을 조장시키는 한편, 밤에 신무문을 통해 들어가서 비밀리에 왕을 만나 위협에 가까운 논조로 조광조의 일파가 당을 조직하여 조정을 문란케 한다고 무고해서 조광조와 그 추종 세력을 제거한 일을 말함.

13)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5일 을사 6번째기사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조광조의 개혁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 되었다. 국왕을 보필하는 신하로서의 삶은 어디까지 그의 활동을 인정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연로 확장, 소격서 폐지, 위훈 삭제, 현량과 실시 등은 그의 대표적인 개혁 정치이며, 당대 중종에게 어느 정도 인정받은 개혁안이었다. 이는 연산군을 뒤이어 즉위한 중종에게 전왕과는 다른 유신 정치를 펼친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정치 개혁안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조광조를 죽음에 이르게 한 개혁안이기도 하였다. 이런 조광조의 개혁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어떻게 서술하고 있을까 살펴본다.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즉위하자, 이 과정에서 공을 세운 훈구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에 중종은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을 등용하여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조광조는 유교적 도덕 정치의 시행을 주장하며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현량과를 실시하여 사림을 등용하였고, 중종반정의 공신을 조사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의 공훈을 삭제하였다. 공신들은 이에 반발하였으며 중종도 조광조의 급격한 개혁에 부담을 느꼈다. 결국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은 다시 사화를 맞았다.

고등학교 한국사 < 동아출판, 52p >

사림은 연산군 시기에 두 차례의 사화를 겪으며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중종반정 이후 등용된 조광조가 개혁 정치를 시행하면서 대거 중앙 정계로 진출하였다. 조광조는 천거제인 현량과를 통해 사림을 등용하고 향약을 실시하였다. 또한 도교 행사를 주관하던 소격서를 철폐하고, 반정 과정에서 공을 세운 공신들의 등급을 조정하거나 삭제하였다(위훈 삭제). 그러나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은 훈구 세력의 반발로 실패하였다.

고등학교 한국사 < 해냄에듀, 60p >

㉠ (1482~1519)

- 1498년: 무오사화로 유배 온 김광필의 제자가 됨.
- 1510년: 진사시 장원 합격함.
- 1518년: 사헌부의 장관인 대사헌에 임명됨.
- 1519년: 기묘사화로 유배되었다가 사사됨.



전하, 개혁을 위해서는
㉠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해야
하옵니다. 향촌에 성리학적 질서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향약을
실시하게 하소서.

고등학교 한국사 < 해냄에듀, 61p >

중종은 자신을 왕위에 올린 훈구파가 권력을 독점하자,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다시 사림을 등용하였다. 조광조는 중종이 등용한 사림 중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은 왕도 정치 실현과 사림 중심의 향촌 질서 확립을 추구하였다. 이를 위해 현량과를 시행하고 향약 보급을 추진하였다. 또한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중종반정의 공신 중 부적격자의 위훈을 삭제하였다.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에 위협을 느낀 훈구파는 조광조 일파를 공격하여 대거 숙청하였다(기묘사화).

고등학교 한국사 < 금성, 63p >

역사 속 인물

▶ 기묘사화의 주인공, 조광조

내 이름은 조광조 왕의 신임을 받아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나의 급진적인 모습에 지친 전하께서 결국 나를 버리셨네, 나의 정책 이야기 한번 들어볼 댜가?



- **현량과 시행** 덕이 있는 인재를 추천하여 간단한 시험으로 등용하는 현량과를 시행하였다.
- **향약 보급** 향촌의 자치적 약속인 향약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고자 노력하였다.
- **위훈 삭제** 중종반정 공신 중 공훈도 없으면서 혜택만 누리는 이들의 거짓 공훈을 삭제하였다.

고등학교 한국사 < 금성, 63p >

#2. 조광조

중종 12년(1517) 11월 20일

대간이 정치를 문란하게 만든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재상이 공론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대간이 공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간도 공론을 말하지 않는다면 초야의 의견을 물어서라도 정사를 바로잡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고등학교 한국사 < 금성, 65p >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을 내쫓은 훈구 공신들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자 중종은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을 등용하였다. 조광조는 현량과를 실시하여 사림 세력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공신이 된 일부 훈구의 공훈을 삭제하려 하였다. 국왕과 훈구가 이에 반발하면서 조광조를 비롯한 많은 사림이 제거되었다(기묘사화).

고등학교 한국사 < 비상교육, 62p >

현량과의 실시

경연에서 조광조가 중종에게 아뢰기를, “재행(才行)이 있어 임용할 만한 사람을 천거하여, 대궐의 뜰에 모아 놓고 친히 대책(對策)하게 한다면 인물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 한나라 현량과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 덕행은 여러 사람이 천거하는 바이므로 반드시 헛되거나 그릇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중종실록』 1518. 3. 11.

조광조의 건의로 실시된 현량과는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였다.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천거하여 왕이 친석한 가운데 구술시험을 치러 관리로 등용하였다. 현량과는 사림이 관직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고등학교 한국사 < 비상교육, 62p >

이후 연산군의 폭정으로 반정이 일어났고, 새로 왕이 된 중종은 정치 기강을 쇄신하고자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을 대거 등용하였다. 사림은 경연 강화, 언론 활성화, 소격서 폐지, 향약 시행 등의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훈구 세력의 반발로 조광조 등이 제거되었고 개혁은 좌절되었다.

고등학교 한국사 < 지학사, 63p >

성종 때부터 사림이라는 정치 세력이 중앙 정치 무대에 등장하였다. 이들은 주로 3세에 중용되어 세조 때부터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훈구 세력의 부정과 비리를 비판하였다. 이에 사림과 훈구의 대립이 심해졌으며, 이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차례의 *사화로 사림 세력은 큰 타격을 입었다.

*사화: 사림이 반대 세력으로부터 입을 화를 말한다. 연산군 때 일어난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중종 때 조광조 등의 개혁에 반발하여 일어난 기묘사화, 명종 초에 있었던 을사사화 등이 있다.

고등학교 한국사 < 천재교육, 65p >


사림이 공론을 내세워 훈구의 비리와 부정을 강하게 비판하자, 훈구와 사림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사림을 후원하던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즉위하자, 사림의 언론 활동은 국왕과 훈구 대신의 공격을 받았다. 그 결과 사화가 일어나 많은 피해를 입었다. *중종 때에는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이 성리학적 가치를 강조하며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다가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조광조의 개혁 정치: 조광조는 현량과 실시, 향약 보급 등을 주장하고, 과대 평가된 훈구 대신들의 공론을 삭제하려고 하였으나 기묘사화로 처형되었다.

고등학교 한국사 < 미래엔, 60p >

성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연산군은 신권을 제한하고 왕권을 폭압적으로 행사하였는데, 특히 사림의 언론 활동을 억제하였다. 이에 무오사화와 갑자사화가 발생하여 사림이 크게 타격을 받았다. 연산군이 폭압 정치로 쫓겨나고 중종이 즉위하였다(중종반정). 중종은 공신들로부터 벗어나고자 조광조를 비롯한 젊은 사림을 등용하였다. 사림은 천거제의 일종인 현량과를 통해 세력을 확대하였고 향약을 시행하여 향촌의 지배력도 넓혀 나갔다. 또한 3사의 언관직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으로 내세워 경연 강화, 위훈 삭제 등을 추진하였다. 공신 세력들은 이에 반발하며 조광조 일파를 제거하여 사림은 큰 타격을 받았다(기묘사화).

고등학교 한국사 < 리베르스쿨, 58p >

정암 조광조는 연산군과 중종 대를 살아가면서 성리학을 공부한 유생이었으며, 성리 철학을 바탕으로 도학 정치를 꿈꾸었던 정치가였다. 국왕 중심의 정치이지만, 언론을 중시하고 공론을 중시하여 많은 깨달음을 얻은 사림 세력이 중심이 되어 중암 정치를 주도하고자 하였다. 그의 개혁 정치의 지향점은 무엇이었을까?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학습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역사적 인물을 통하여 오늘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교훈을 찾고자 함이다. 그의 주장 중에 언론 확장과 공론 정치는 확실히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참고 문헌

- 조성일(2022). 개혁하는 사람 조광조. 시간여행.
- 신병주(2021). 조광조 평전, 한겨레출판.
- 이종호(1999). 정암 조광조, 일지사.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main/main.do>)
- 교과서(조광조 관련 서술 내용)
 - 최준채 외(2021),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3p, 65p, 금성출판
 - 노대환 외(2021).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52p, 동아출판

- 한철호 외(2021),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0p, 미래엔
- 송호정 외(2021),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3p, 지학사
- 최병택 외(2021),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5p, 천재교육
- 이익주 외(2021),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58p, 리베르스쿨
- 도면희 외(2021),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2p, 비상교육
- 박중현 외(2021),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0~61p, 해냄에듀

필자 소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서울 골목길 인문학과 융합 수업에 관심이 많으며, 학생들의 생각을 길러주기 위한 수업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였다.

탐방

“인공지능 융합수업 연구회”를 찾아서*



G — 먼저 “인공지능 융합수업 연구회”(이하 연구회)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인공지능 융합수업 연구회’는 2020년 3월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소속 기계·정보·전자·드론·음악·국어 등 다양한 교과목의 인공지능 융합 수업에 관심 있는 교사들이 만든 교원학습 공동체입니다. 연구회 활동은 학기 중 점심시간에 실시되는 인공지능 융합 수업 런치 특강 연수와 방학 때 진행되는 집중 연구로 나누어집니다.

연구회는 기존에 제작한 인공지능 프로젝트 학습 모듈을 더욱 정제화하고 학습 위계에 맞추어 재조직 및 재구성하여 이를 ‘인공지능과 메이커 프로젝트’라는 교과서를 집필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2023학년도부터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하여 매년 9개 학과 3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의 인공지능 융합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많은 인공지능 교육 콘텐츠 속에서 고등학교 학생 수준에서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제 문제 해결력을 길러 줄 수 있는 인공지능 - 메이커 분야의 토대를 형성하고 싶습니다. **성원경(상암고)**

* 본 내용은 “인공지능 융합수업 연구회” 소속 성원경(상암고등학교), 이문재, 이익재, 신현욱(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와의 서면 인터뷰로 작성되었습니다.

G — 연구회의 특징, 그동안의 주요활동(추진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런치 특강은 시간에 모여 샌드위치로 식사를 하며 연구회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강사를 하는 한 시간짜리 특강 프로그램입니다. 특강 주제는 인공지능 융합수업과 관련하여 현재 각 과목 선생님이 현장에서 시도하고 있는 인공지능 수업 콘텐츠, 인공지능 교육 Tool, 메이커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술 교육 등이 주를 이루며, 일방적인 이론 특강이 아닌 컴퓨터실, 드론 비행장, 납땜 실습장, 3D 프린트실 등에서 실습 위주의 특강을 진행합니다. 또한, 학기에 한 번 정도 메이커 유튜버, 대학교수님, 산업현장 전문가 등을 모셔 인공지능 융합 교육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학 때 진행되는 집중 연구는 다음 연도 스마트팩토리학과, 항공 드론과 컴퓨터전자과, 3D 융합설계과, 자동화기계과 등 다양한 학과에서 실제 AI-메이커 프로젝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는 연구를 주목적으로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인공지능 RC카, 인공지능 스피커, 인공지능 로봇팔 등 다양한 kits를 구매 후 이를 조립 및 분해하여 특성화고 학생들의 수준에서 직접 설계 및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한 뒤 이를 분절된 단위의 학습 모듈로 내용을 구분하여 웹 모듈 형식으로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모듈로 내용을 구분하여 웹 모듈 형식으로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문재(경기기계공업고)**

G — 연구회의 교과 교육 내 활동과 실천이 궁금합니다. 현재 연구회에서의 지향하고 있는 교육의 내용과 활동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연구회에서는 이론 중심의 교육보다는 학생들이 구체적인 프로젝트 목표 지점을 가지고 직접 실습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배움을 지향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교육 같은 경우는 너무 이론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중등 교육 과정 수학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오히려 학습자의 학습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구회에서 집필한 인공지능과 메이커 프로젝트 교육과정은 기존 특성화고에서 가르치고 있는 전자회로 제작, 3D 기계설계, 프로그래밍 과목들을 융합하여 하나의 메이커 주제를 목표로 각 실습 파트들을 융합하고, 인공지능을 오픈소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한글을 사용한 코드 작성

스 형태로 제공하고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어 인공지능을 이론적인 측면이 아닌 활용 측면에서 접근하여 인공지능 활용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익재(경기기계공업고)

G — 연구회에서 고등학교 인정도서인 ‘인공지능과 메이커 프로젝트’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서 개발의 참여 계기와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생소했던 인공지능 교육이 수년 전부터 공교육에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교과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인공지능을 수학과 컴퓨터 공학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중등 교육의 수준에서 인공지능 교육과정의 뼈대를 세우는 역할을 해주었다.

인공지능은 원리적 측면에는 수학과 컴퓨터 공학에 근간을 두고 있지만, 활용적 측면에서는 공업, 농업, 상업, 예체능, 인문학과 일상생활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융합된

니다. 따라서 미래 세대에게 AI 역량을 키워 주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리적 측면에서의 AI 교육과 동시에 활용적 측면에서는 AI 예술, AI 공학, AI 인문학 등 다양한 융합 과목으로 체질 변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과 메이커 프로젝트는 기존에 개별로 존재했던 프로그래밍, 전자 회로, 3D 모델링의 세 가지 교육과정이 인공지능 활용이라는 목표 아래 융합된 형태의 교육과정으로 설계했습니다. 각각의 과목이 가진 학문적 체계 위에서 AI 로봇 팔, AI RC가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필요한 학습 모듈을 실습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학습자는 본 교과서를 통해 다양한 실습 과제를 풀면서 문제 해결력, 창의적 사고력 등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실습 재료와 장비가 필요한 실습 환경과 더불어 다양한 교과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점을 집필진들은 늘 고민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실습 재료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실습을 시뮬레이션 형태로 할 수 있도록 Thinker Cad, p5 web Editor 등 웹브라우저 기반의 실습 시뮬레이션 툴을 제공하였고, 교과서와 함께 제공되는 웹 모듈과 동영상 학습 자료를 통해서 학습자가 실습을 완수할 수 있게끔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신현욱(경기기계공업고)**



G — 앞으로 차기 교육과정 개정 적용 교과서에서 창의성과 융합적 소양을 길러내기 위한 메이커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메이커 교육의 매력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학습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학습자들은 스마트폰의 사용량 증가로 인해 무언가에 집중해서 문제 해결하는 경험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메이커 교육은 각 학습자가 가진 수준에서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목표를 자신이 직접 세우고 해결에 참여하고, 결과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나오므로 문제 해결 과정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둘째는 학생들이 서로



현직교원 대상 AI 로봇팔 메이커 연수 사진

협력하고 소통하며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19 온라인 교육을 지나오면서 학습자들의 동료와의 의사소통 능력이 많이 저하 된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메이커 교육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문서 & 영상 기록, 공유 & 발표 등 다양한 팀 내 역할이 존재하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팀에서의 초기에 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팀마다 도출되는 다양한 결과에서 장단점을 보며 모든 학생이 성취감을 맞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차기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 교과목에서의 특성과 더불어 메이커 교육의 고유한 장점들이 잘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메이커 주제의 과제 디자인이 적절하게 잘 돼야 합니다. 기존 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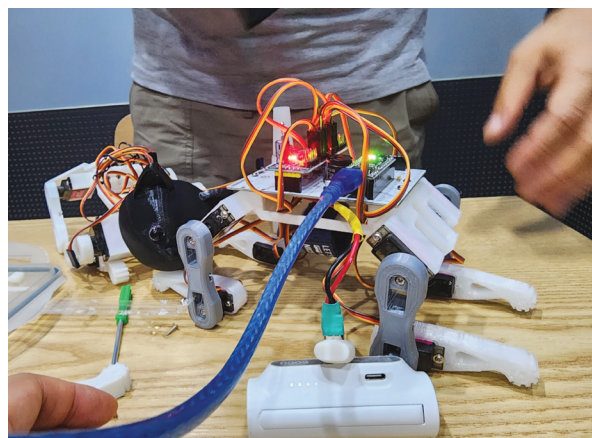
이커 주제 속에서 각 과목의 특성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과제로써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로봇 고양이라는 메이커 주제가 있다고 하면, 로봇 고양이를 제작하는 전체적인 메이커 프로세스 중에 수학 같은 과목은 로봇 고양이의 움직임을 제작하는 프로그램 코드에서 수식을 활용한 움직임 제어 부분이 과제가 될 수 있고, 영어 과목은 음성제어로 로봇 고양이를 제어할 때 영어로 음성인식 입출력을 디자인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기술, 전문교과들도 같은 식으로 각자 과목의 특성을 가지고 메이커 과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의 메이커 프로젝트 주제가 있을 때 메이커 프로젝트가 완성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부분은 학습자가 제시된 길을 따라서 실습할 수 있는 Path-Follow 식으로 실습하고, 각 교과목에서 키우고 싶은 역량 부분은 학습자가 과제를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는 Path-Find 식으로 과제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성원경(상암고)

G — 앞으로 연구회의 계획(연구, 실천 등)을 알려주십시오.

요즘 인터넷을 검색하면 다양한 메이커 키트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로봇팔, RC카, 드론, 로봇 고양이, 탱크 등 매력적인 메이커 주제들이 키트로 출시되고 프로그래밍으로 이를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키트가 없더라도 깃허브나, 싱기버스 같은 오픈소스 공유 사이트에 가면 다양한 메이커 프로젝트 주제들이 오픈소스 형태로 코드랑 3d 모델링 파일들이 모두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가져다 쓰려면 키트를 구매할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오픈소스 형태들은 아이들의 교육 수준과 격차가 커서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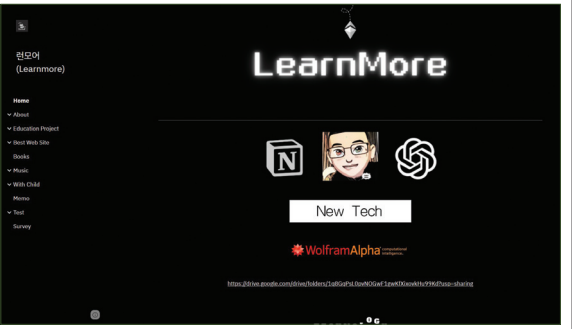

연구회는 이 지점에서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봇팔이란 메이커 주제가 있다면, 제작에 필요한 하드웨어들을 재활용 용품이나 값싼 우드락, 하드보드지 같은 재료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제작 기술을 공개하고 필수적인 전자부품만을 공개하여 현장에서 지출되는 재료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계별로 중등 교육과정 수준에 맞는 설명으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벗어나는 부분은 최소화하여 특성화고가 아닌 인문계 학교, 중학교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과서에 AI RC카, AI 로봇팔에 관한 교육자료를 만들었으며, 23년에는 AI 로봇 고양이, AI 드론을 위 과정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제작 중입니다. **성원경(상암고)**



로봇 고양이를 연구중인 연구회 회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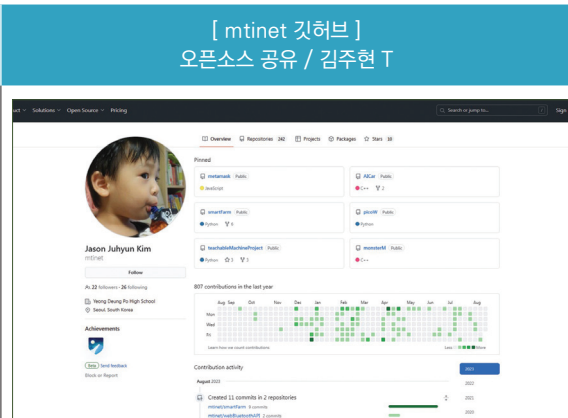
G — 마지막으로 교사들에게 메이커 교육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모델, 자료, 수업 운영 등에 대한 안내를 해주신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과목별로 교육자료들을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공유된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 연구회에서 내린 나름의 결론은 결국 각 분야에서 선도적인 교사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교육철학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건 사이트에서 교육 모듈을 생성하고, 각각의 교육사이트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교육자료에 관한 생태계가 점점 발전할 때 교육자료가 나름의 지속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하며 더 많은 교사에게 공유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교육 콘텐츠라 하더라도 모든 학교와 학급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으며, 같은 주제라도 각 교사의 교육철학과 기술에 맞추어 조금씩 수정되고 방향을 맞추어 재생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자의 온라인 공간에 축적되며 각자의 교육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연구회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연구회 선생님들께는 1 교사 1 교육사이트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중에서 몇 개의 사이트를 아래에 공유합니다. **성원경(상암고)**

<div>[런 모어]</div> <div>기술·공학 홈페이지 / 김홍순 T</div>	<div>[기술교사 정영천]</div> <div>교육 유튜브 / 정영천 T</div>
 <div>www.learnmore.co.kr</div>	 <div>www.youtube.com/@01000a</div>



sites.google.com/view/mtinet/



www.github.com/mtinet



<https://swmakerjun.tistory.com/>



<https://pythonkorea.com/>

인공지능 융합수업 연구회연구회에 참여를 원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working710@naver.com 으로 간단한 자기소개 및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연구회 오픈채팅방에 초청해 드리겠습니다.

『교과서 연구』 발간에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 분야

[연구논문], [현장교육], [교과서 속 인물 이야기], [탐방]

- 교과 운영과 교과서 활용 사례 연구 활동
-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 또는 단상
- 기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등

참여 방법

[e-mail로 원고 및 의견 전달]

- 보내실 곳: bjj819@textbook114.com
- 문의전화: 02-6202-6362
- 트위터: @textbook_03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소식

● 「2023년 정부부처·교과연구회 협업 교과서 개발·편찬」 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대구광역시교육청과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주관으로 「2023년 정부부처·교과연구회 협업 교과서 개발·편찬」 사업의 추진 경과 보고 및 참여자들의 업무 협의를 위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장소: 2023. 8. 2. (수) 11:30 / 대구 메리어트호텔(그랜드볼룸홀)
- 참석자: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과서 개발 참여자 등 71명
- 주요내용: 1) 편찬기관 및 편집·디자인 기관 추진 경과 보고
2) 편찬기관-집필진-편집·디자인기관간의 업무 협의
3) 교과별 샘플디자인 및 2022년 개발 교과서 완성본, 심의본 전시 등

● 교과서 질 관리 사이버 연수원

2023년도 교과서 질 관리 사이버 연수원 교육수강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개발역량 강화 원격교육을 수강하시고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퀴즈 이벤트	교육후기 작성 이벤트
기간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주간	2023년 7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참여조건	‘교과서 개발 전문가 양성 I 또는 II’의 수강진도율 80% 달성(월별 당첨자 120명 추첨)	‘교과서 개발 전문가 양성 I 또는 II’를 수강완료 (당첨자 50명 추첨)
경품	커피 기프트콘 증정	
참여방법	교과서 질 관리 사이버 연수원 홈페이지(http://edu.textbook.or.kr)에 접속 후 해당 이벤트 참여 ※ 각 이벤트의 구체적인 참여방법과 경품 내용은 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2024학년도 교과서 선정을 위한 웹-전시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2024년도 검·인정 교과서 선정을 위한 웹-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웹-전시 일정과 이용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전시기간: 2023. 8. 24.(목)~2023. 10. 18.(수) (※기간 외 열람 불가능)
- 대상 및 대상도서: 초·중·고 교과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검·인정도서
- 이용가입: 회원가입시, 시·도교육청 웹-전시 공문의 인증번호를 ‘교과서 웹-전시 비밀번호(인증번호)’란에 입력하여 이용

● 2023년 교과서 모니터링단 소식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초등학교 검정도서 신간본(초등 5~6학년군 사회, 수학, 과학) 대상 모니터링단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모니터링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및 방법: 2023. 8. 24.(목) 15:00~16:30 / 비대면 화상 회의
- 대상: 교과서 모니터링단 위원, 교과서 발행사 담당자, 교육부 담당자 등 150여명
- 내용: 교과서 모니터링단 활동 중간 현황 보고 및 주요 안건 협의

● 2023년 초등 1~2학년군 국정도서 현장적합성 검토 소식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1~2학년군 국정도서 현장적합성 검토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적합성 검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및 방법: <1학년> 8.28.(월) 15:00~16:30, <2학년> 8.29.(화) 15:00~16:30 / 비대면 화상회의
- 대상: 상설연구학교(9개교) 1~2학년 교원, 현장적합성 검토지원단, 교육부 담당자 등 300여명
- 내용: 1학기 현장적합성 검토 결과 및 2학기 중점 검토 사항에 대한 안내



교과서 질관리 플랫폼

교과서의 궁금한 모든것은 교과서민원 바로처리센터 TIOS

교과서 구입·주문, 수정·보완, 내용·정보, 파본·교환, 정책 등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TIOS(Textbook Information One-Stop Service)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TIOS)에서 해결하세요!



상시적인 교과서의 수정·보완,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

오류정정, 최신통계, 현장교사 의견,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교과서를 수정·보완 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1

교과서 집필자, 발행사들이
수정·보완 여부를 검토해요.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검토·승인 부탁드립니다.

발행사·집필자

2

수정·보완할 내용은 교육부,
시·도 교육청의 검토·승인 과정을
거칩니다.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시스템

검토·승인 요청

검토·승인 요청

3

이렇게 검토·승인된 내용은
즉시 교육 현장에 안내합니다.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시스템

내용이 이상하네.
고쳐진 내용이
있는지
찾아봐야겠어.

교과서 내용이
수정됐어요.
같이 살펴볼까요.

교육부

시·도 교육청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교과서 개별 구입처

초등학교 국정도서는 각 발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2월부터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에서 국정도서 판매가 종료되었습니다.

학교급 교육과정	구분	교과목	발행사	연락처 및 url 주소
초등학교 1~6학년 (2015개정)	국정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1~2학년)	지학사	02-330-5304 http://www.jihak.co.kr
		안전한 생활(1~2학년)	지학사	02-330-5304 http://www.jihak.co.kr
		국어(1~6학년) 국어활동(1~6학년)	미래엔	1800-8890 http://textbookmall.mirae-n.com
		수학(1~2학년) 수학익힘(1~2학년)	천재교과서	02-3282-8705 https://chunjaetext.co.kr
		도덕(3~6학년)	비상교육	1544-0554 http://www.visang.com
초등학교 3~6학년 (2015개정)	검정	수학(3~6학년) 과학(3~6학년) 사회(3~6학년) 음악(3~6학년) 미술(3~6학년) 체육(3~6학년) 영어(3~6학년) 실과(5~6학년)	한국검인정교과서	031-956-8581~4 (직원연결 0번) http://www.ktbook.com

학교급 교육과정	구분	교과목	판매처	연락처 및 url 주소
중학교 1~3학년 (2015개정)	검정	국어1-1, 1-2, 2-1, 2-2, 3-1, 3-2 국어지도서 1, 2, 3 사회①/②, 사회지도서①/② 사회과부도 역사①/②, 역사지도서①/② 역사부도 도덕①/② 수학1, 2, 3/ 수학1, 2, 3지도서 과학1, 2, 3/ 과학1, 2, 3지도서 영어1, 2, 3/ 영어1, 2, 3지도서	한국검인정교과서	031-956-8581~4 (직원연결 0번) http://www.ktbook.com
	인정	그 외 과목		

학교급 교육과정	구분	교과목	판매처	연락처 및 url 주소
고등학교 1~3학년 (2015개정)	검정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영어, 영어회화,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Ⅱ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지리 부도, 역사 부도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한국검정교과서	031-956-8581~4 (직원연결 0번) http://www.ktbook.com
	인정	그 외 과목		

※ 초·중·고 특수학교 교과서는 ㈜미래엔에서 판매합니다.
 ※ 저시력확대 교과서는 일반교과서와 판매처가 동일합니다.

서울지역 직매장

- **㈜미래엔 직매장** - 초등학교 국정교과서만 판매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21 ㈜미래엔빌딩 1층 (☎ 02-3475-4097) - 지하철 : 7호선 논현역 5번 출구에서 직진 도보 5분 소요

지역별 교과서 지정 판매서점

지역	서점명	주소	연락처
서울특별시	(주)교보문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종로1가, 교보빌딩)	1544-1900
	(주)영풍문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문고 지하 2층	1522-2776
	(주)북스리브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 131 지하1층 상봉듀오토리스	070-4726-7775
	(주)노원문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206 세일학원빌딩 B1층	02-2091-0633
	한길문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289(기릉빌딩) 지하1층	0507-1470-1901
부산광역시	영광도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10	051-816-9500
광주광역시	종합도서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68	062-222-4354
경기도	동원서적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210	0507-1306-4621
	(주)경인문고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239 지하 1층	032-329-1677
	(주)경기서적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535번길 38 2층	031-248-6300
	대동서적(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화로 235	0507-1409-6669
	송문당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310길 42	0507-1304-2666
	대신문고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51	070-4726-2843
충청북도	유신상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15	043-256-2542
충청남도	열린문고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264-3(학산배학빌딩) 지하	041-573-0827
	천안서적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일봉로 8 학산빌딩 B 01호	041-576-1545
전라북도	홍지서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106	063-288-5311
전라남도	중앙서림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상가 5길 7	061-723-8000

교과서가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이제 교과서 원문 DB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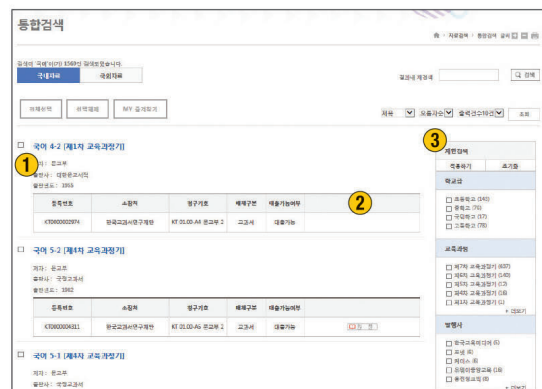
메인페이지 원문검색 안내

- ① **페이지 주소창** - <https://www.kotry.kr>를 통해 한국교과서 연구재단 교과서정보관 홈페이지에 접속
- ② **도서관 협약유무 확인** - 협약도서관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으며, 메인페이지에서 협약도서관 안내를 통해 원문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
(도서관안내 > 교과서정보협력망 > 협약도서관안내)
- ③ **검색어 입력** - 원하는 교과서를 검색하기 위한 검색어를 입력
(ex. 국어, 검정, 6차교육과정 등)
- ④ **원문검색** - 원문만 검색결과에서 보고 싶은 경우, 간략 서지 정보 화면의 제한검색에서 '원문'의 '있음'을 체크한 후 상단의 '적용하기'를 선택



검색결과 간략화면 안내

- ① **간략서지정보** - 검색 결과가 보여주는 화면. 원문이나 목차 등의 부가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보기'란에 목차/원문/참고문헌 아이콘이 게재됨
- ② **온라인 보기** - 자료별 원문, 목차 아이콘이 표시되는 곳. 원문 목차가 없을 경우 표시되지 않음
- ③ **제한검색(Facet)** - 키워드 등을 통한 검색결과에서 학교급, 교육과정, 발행사, 저자별, 년도별, 원문 유무 등으로 검색결과를 제한하여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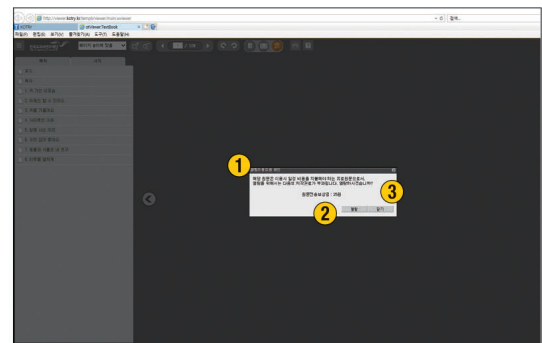
검색결과 상세화면 안내

- ① 상세검색 결과 - 간략서지정보에서 선택한 서지의 상세내용이 보여지는 화면. 해당 도서에 대한 정보 및 MARC보기, 즐겨찾기 추가 등이 가능함
- ② 소장 정보 - 해당 서지의 소장자료 정보 확인. 등록번호, 소장처, 열람가능여부 등 확인가능
- ③ 유사콘텐츠 - 해당 도서와 유사 콘텐츠를 모아서 볼 수 있으며, 자료명을 선택하면 해당 도서 정보로 이동

배경도/인	M/E/표/인	배경도/인
1	<div> <div>배경도/인</div> <div>배경도/인</div> </div>	<div> <div>배경도/인</div> <div>배경도/인</div> </div>
2	<div> <div>배경도/인</div> <div>배경도/인</div> </div>	<div> <div>배경도/인</div> <div>배경도/인</div> </div>
3	<div> <div>배경도/인</div> <div>배경도/인</div> </div>	<div> <div>배경도/인</div> <div>배경도/인</div> </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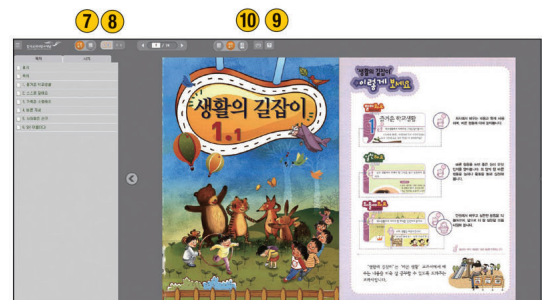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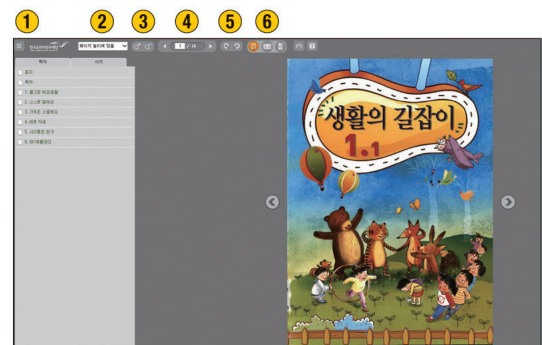
원문이용 시 이용요금 확인

- ① 열람이용요금 확인 - 원문 선택시 저작권법 안내, 이용 요금에 대한 안내 확인
- ② 열람 -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료가 부과됨을 안내받고 지불의사가 있을 경우 ‘열람’을 선택하여 원문을 열람
- ③ 달기 -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료가 부과됨을 안내받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달기’를 선택하여 창을 닫음



원문뷰어 이용 방법 안내

- ① 목차 및 서지정보 - 원문의 목차 및 서지정보표시
(목차 선택시 해당 페이지 이동)
- ② 화면배열 선택 - 페이지 높이에 맞춤/페이지 너비에 맞춤/
50%/100%/200%/300% 선택
- ③ 확대/축소 - 원문 이미지 확대 및 축소
- ④ 페이지 이동
- 이전 페이지 (◀) / 다음페이지 (▶)이동
- 해당 페이지 직접 이동시 페이지 번호 입력 후 엔터
- ⑤ 회전 - 원문 이미지 회전(좌우 회전)
- ⑥ 보기 설정 - 원문 이미지 페이지 보기 설정
* 단면보기/양면보기/세로보기 선택
- ⑦ 제본 설정 - 원문 이미지 제본 설정
* 좌철보기/우철보기 선택
- ⑧ 제본페이지 설정 - 원문 이미지 좌우 정렬설정 변경
- ⑨ 도움말 - 통합 뷰어 이용 안내
- ⑩ 인쇄 - 원문 이미지 출력



교과서 원문DB 이용 협약 체결 안내

-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구축한 원문DB를 이용하기 위한 협약 절차 안내입니다.
- 우리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지난 2013년부터 한국문학예술평론협회의 교과서 전문도서관 구축 사업을 통해 교과서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국회도서관의 원문서비스와 같은 방식으로 국내교과서 10,490권(미군정교수요목기~2009 개정 교육과정기), 외국교과서 899권(8개 국가)을 원문 DB화하여 도서관 보상금 제도를 통해 서비스 중입니다.

대상

- 전국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자료실), 학교도서관 등

협약 절차 안내

- ① 한국문학예술평론협회의 협약 체결
- ② 협약 완료 후 재단 협약 관련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02-6206-6373)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양지선, 02-6206-6373, jsyang@textbook.ac)
- ③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협약 담당자에게 협약서 및 등록서 전송 요청
- ④ 협약서 및 등록서를 작성 후 공문과 함께 재단 협약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달
- 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도서관보상금관리시스템(<http://www.kotry.kr/libfee>)에 접속하여 도서관 부호 및 등록서에 작성한 비밀번호를 이용해 로그인
- ⑥ 사용하고자 하는 좌석의 IP정보를 입력 후 담당자에게 통보

2023년 신규 협약 체결 기관

2023.08.28. 기준

• 2023년 신규 93개 기관(전체 214개 기관)

진주교육대학교 도서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주대학교 도서관, 정동초등학교, 삼송중학교, 토당초등학교, 임북초등학교, 민락중학교, 사동초등학교, 용인대덕중학교, 한국도예고등학교, 동부중학교, 안일중학교, 주엽고등학교,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솔밭중학교, 단원고등학교, 구성고등학교, 서원고등학교, 장성여자고등학교, 강화고등학교, 송림초등학교, 운정고등학교, 평택고등학교,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부평고등학교, 안양남초등학교, 고천중학교, 라온고등학교, 탄현중학교, 은가람중학교, 황성교육도서관, 고양 백석고등학교, 인천하늘고등학교, 장수중학교, 검단고등학교, 고암초등학교, 대구광역시립달성도서관, 충의중학교, 야탑고등학교, 회인초등학교, 신갈중학교, 과천고등학교, 석정초등학교, 판교고등학교, 인천포스코고등학교, 현초중학교, 이충중학교, 인천아라중학교, 신일비즈니스고등학교, 인천상정고등학교, 부광고등학교, 대구광역시립북부도서관, 경기평택교육도서관, 금암초등학교, 남양주신촌초등학교, 양평고등학교,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왕산초등학교, 용인다움학교, 광주고등학교, 인천가정초등학교, 인천대건고등학교, 미사강변고등학교, 안성여자고등학교, 백운고등학교, 충청북도교육도서관, 갈산중학교, 산들초등학교, 성수고등학교, 진부고등학교, 서원대학교, 양성초등학교,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화산초등학교, 백령중고등학교, 양지중학교, 글로벌선진학교, 춘천 신동초등학교, 포곡중학교, 대전과학고등학교, 인천광역시교육청북부도서관, 상록초등학교, 과천문원중학교, 광덕고등학교, 백마초등학교, 서신중학교, 인명여자고등학교, 신일고등학교, 모가중학교, 충신대학교 중앙도서관, 순천대학교도서관

※ 전체 협약 기관 확인

교과서정보관 사이트(www.kotry.kr)의 중단 메인메뉴 중 우측 “협약도서관안내” 클릭



꿈을 위한 동행

축구선수, 래퍼, 선생님, 요리사...
배움을 통해 아이들은 꿈을 꿈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뛰어놀고 싶은 마음을
잠시 미뤄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병동에 입원해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도 똑같이 공부하고
맘껏 꿈 꿀 수 있어야 합니다.
천재교육 학습봉사단은
직접 병원으로 찾아가
같이 공부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함께 하는 시간이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밑바탕이 되길 바라며
천재교육은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하며 세상과 소통하겠습니다.

MiraeN 미래엔 공모전

응모 기간

2023. 5. 2.~
2023. 10. 10.

수상자 발표

2023년 11월 30일(목) 15시

자세한 내용은 미래엔 홈페이지

(<https://www.mirae-n.com>) > 공모전을 참고 바랍니다.



미래엔 공모전
바로 가기

제8회
초등학생
‘톡톡’
손글씨
공모전



응모 기간
2023. 5. 2.~
2023. 10. 10.

올바른 글씨 쓰기로
은글씨의 따듯함과
아름다움을 함께 나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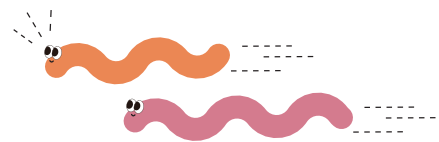
톡톡 초등학생 손글씨 공모전

참여 대상 | 만 7~12세의 어린이 또는 초등학생 누구나

공모 내용 | 자신이 배우고 있는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글 중
1편을 골라 쓴 손글씨

참여 방법 | 우편 접수 또는 미래엔 홈페이지 > 공모전에서 접수

보내는 곳 | (065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21
(주)미래엔 손글씨 공모전 담당자 앞



창작 글감 공모전

초등학교 교과서와 학습 관련,
유아 그림책, 동화책, 인형 교양서까지
다양한 책을 골라오는 미래엔에서
창작 글감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1 초등학생 글숨씨 분야

참여 대상 | 만 7~12세의 어린이 또는 초등학생 누구나

주제 선정 | 자유 주제

공모 부문 | ① 동시 ② 기행문 또는 일기 ③ 독후감

응모 방법 | 미래엔 홈페이지 > 공모전에서 접수

02 교과서 창작 글감 분야

참여 대상 | 선생님 및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주제 선정 | 초등학교 교과서 글감으로 적합한 글

(2022 개정 초등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 참고)

응모 방법 | 미래엔 홈페이지 > 공모전에서 접수